朝鮮日報
夕刊 十一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方應謨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聯盟諸國의對伊制裁 自今爾後엔甘受不能

戰爭終局後의制裁는對象喪失한制裁

制裁繼續은自動的으로聯盟脫退誘致

伊의對英最後的通告

【倫敦十日發同盟】倫敦駐箚伊太利大使그란디氏는 九日午後 英國外務省을 訪問하고 반시타트次官과 長時間에 亘하야 會見을 遂하엿는데 席上에서 大使는 聯盟脫退에 關한 伊太利政府의 最後通牒을 投擲하고 如左히 述하엿다고 確聞된다

一、聯盟各國의 制裁案은 伊에 兩國間의 戰爭을 可及的 迅速히 終結시키려는 目的에서 나온것이라고 解釋하고 伊太利政府는 오랫동안 制裁行動을 甘受해왓다

一、그러나 戰爭이 終局을 告한以上 制裁行動은 全혀 그對象을 喪失하게되엇고 말하지안흘수업다 聯盟各國政府가 이事實을 無視하고 依然制裁行動을 繼續하는것은 全혀 伊太利政府에 對한「膺懲」을 意味하는데 不外하고 또 金融經濟上의 斷交로 伊太利國民을 破滅에 陷케하려는 經濟的共同動作이다

一、伊太利政府는 如斯한 制裁工作을 이제는 甘受할수업다。 聯盟이 依然 制裁案維持를 決定한다면 自動的으로 伊太利政府의 聯盟脫退를 誘致할것이다。

一、總會가 特別委員會를 任命하고 制裁案의 善後策에 關하야 協議를 遂할 境遇에는 右審議期間으로 二三週間、伊太利政府는 情勢의 推移를 靜觀할것이다 그러나 右猶豫期間은 最後限度이오 期間滿了와함께 伊太利政府는 聯盟脫退를 敢行할것이다。

駐英伊太利大使그란디氏

中川臺灣總督 東京으로向發

【臺北電話同盟】中川臺灣總督은 臺灣拓殖會社設立準備에 關하야 政府와 協議次 十日午前十時基隆發蓬萊丸으로 東京으로 向하엿다

理事會前에 英佛會談

英、佛의要請을受諾

【倫敦十日發同盟】英國駐箚佛國大使코-르뱅氏는 九日夜 巴里로부터 歸任後 卽時 英國外務省에 이든外相을 訪問하고 聯盟理事會와 總會에 臨할 英佛兩國政府에 關하야 協議를 遂하엿고 席上에서 코르뱅大使는 巴里出發中 블룸首相、델보스外相等과의協議에 基하야 理事會以前에미리 英佛會談을 遂하고싶다는旨를 要請하엿다고 傳해진다 이든外相은 아마 右要請을 受諾하고 몬트루會議出席途中에 아마 푸옥스톤乃至 부론市에서 佛國代表인델보스外相과 會見할것으로보인다

그로스터公 에皇帝를御訪問

【倫敦十日發同盟】그로스터公殿下께서는 十日午後 全혀個人의 御資格으로 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를 御訪問하시고 御懇談하옵셧다 同公은 六年前 父君故조-지五世陛下의 御名代로 아디스아베바에 赴하사 하일레·셀라시에一世의 戴冠式에御參列하신 일이 잇서 當時를追億하고 에디오피아皇帝도 感慨無量이잇다고 傳한다

駐英、駐佛 伊太利大使更迭

【羅馬十日發同盟】伊太利內閣改組의結果 前外務次官스비치氏는 閣外로 나갓는데 近近倫敦駐箚大使로 復活하야 英、伊兩國의 國交調整에 當할것이라고 傳한다 同時에倫敦駐箚그란디氏는佛國駐箚大使로轉出할것이라고한다

制裁强化主張은 三伏暑中의狂亂狀

伊를徹底히制裁하라는 세실卿에對하야 英藏相이反駁演說

【倫敦十日發同盟】藏相체임벌린氏는 十日 倫敦에서 聯盟問題에 關하야 演說하엿는데 세실卿이 英國國際聯盟協會員에게 發한「政府를 鞭撻하야 對伊制裁를 繼續하고 境遇에 依해서는 다시 이를 强化하야 끗까지 에디오피아獨立을 維持할것이다」라고 力說하고잇는 現狀에 言及하야 세실卿의 所說은 三伏暑氣의 狂亂狀에 견줄것으로 如斯한 政策이 實際로 實行될때에는 다른 보담나흔解決은 求할수업다 我等은 如斯한 手段이 부질업시 이以上不幸을 招來하는데 不適하다고 밋는다 集團的安全保障을 目的으로한 聯盟政策의 實行에 對하야 從來最善의 機會에 調整을 希望한데 不拘하고 制裁政策이 實行되어 이것이 失敗에 歸하고도로허 聯盟의 權威를 失墜케한 結果가 되엇다 라고 述하고 原則에 拘泥하지말고 實際解決을 圖하여야할것이다 라고 力說하고 政府의 方針을 示唆하야 注意를 끌엇다 藏相은 다시 政府의 軍備充實計劃에 關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英國의 軍備는 좀 느진念慮가잇다 萬若 將來 最新、最善의 技術을 使用할수잇는限 우리는 決코 時期를 失치안헛다 그러나 全般的에잇서서 萬一의 境遇에 對한 準備期間이 써르므로 우리는 軍備充實에 最善을 다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 (寫眞은 체임벌린氏)

何鍵氏 西南派要求拒絶

【漢口十日發同盟】西南軍의 湖南侵入과함께 省政府主席何鍵氏의 態度는 注目을 끌고잇던바 同氏는 十日 長沙에서 如左히 聲明을 發하야 西南側과의 共同戰線을 拒絶하고 中央政府를 擁護하는 態度를 闡明하엿다

西南軍의 湖南進擊에 關해서는 앞서 西南側에서 再三 李品仙氏를 派遣하야 抗日의趣旨를 述하야 共同戰線을펴기를 求하엿스나 이에 對하야 對外關係에關해서는 中央의指導下에 一致하야 이에 當하는것이 必要하다고 미드므로 이를 拒絶하고 西南側이 速히 軍事行動을 中止할것을 求하엿다 湖南에잇는 西南側에 對한 處置에 關해서는 지금 中央에 請訓中이다

西南派協力要請에 宋哲元氏拒絶通電

【北平十日發同盟】陳濟棠、李宗仁氏等은 六月九日附 西南政務委員會의 名義로 冀察政務委員長宋哲元氏에게 對하야 抗日救國聯合第二集團軍司令에 就任하고 抗日共同戰線에 同意해달라고 通電을 보내엇다 이에 對하야 宋哲元氏는 愼重考慮한結果 그目的如何를 不問하고 적어도 抗日旗幟를 揭揚하고 對日行動을 起하는것은 北中現狀으로보아 承諾할수업다고 十日 拒絶의 旨의 通電을 發하엿다

英蘇海軍協定에 蘇聯側滿足表示

對獨、對日關係를妙微히折衷

十日英蘇當局會見

【倫敦十日發同盟】駐英蘇聯大使마이스키氏는 十日午後 英國外務省을 訪問하고 海軍協定案에 關하야 關係當局과 會談을 遂하엿는데 交涉은 相當히 進捗되어 協定은 事實上 成立되엇다고 解釋된다 極東水面에 關한 蘇聯側의 留保에 關해서는 兩國政府가 附屬文書를 交換하야 極東水面의 蘇聯海軍은 日本海軍同樣의 制限을 尊重할境遇에이서서만 本條約의 制限을 [illegible] 明示하기로 決定하엿다고 解釋된다 大使는 十日의 海軍會談의 成果에 關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illegible] 新海軍協定은 [illegible] 獨逸政府와 英國政府와의 [illegible] 協定의 形式同樣의 協定[illegible] 이다 또 極東水面에 關해서는 英國政府와 蘇聯政府間에 書翰을 交換하야 極東水面의 蘇聯海軍制限은 日本海軍과 同樣의 制限을 遵守할것을 條件으로한다는 旨를 明示하엿다

英米兩國國民에 長沙撤歸를警告

【長沙十一日發同盟】長沙駐箚英米兩國領事는 湖南南部 在住의 兩國國民 主로宣敎師에게 對하야 速히 長沙에 撤歸하도록 警告를 發하엿다 또 英國砲艦스카라브號는 一兩日中에 漢口로부터 長沙에 到着할 豫定이다

八面錄

◇ 八大臣을 한몸에兼하고 名實共히獨裁를 强行하든 伊太利首相。

◇ 印綬의重量이 무거운지 新進의앞길을爲한인지 三大臣의자리를 辭退。

◇ 그러나、聯盟과의싸움은 一步도讓步할생각이업서 制裁案을 撤回안하면 脫退하겟다고威脅。

◇ 그나그뿐인가、獨逸과 同盟하야 어대까지 新興國家의 氣勢를뵈일는지。

◇ 滿洲國內에서 日本의治外法權一部를撤廢햇다。

◇ 在滿朝鮮人의 住居、營業、土地買賣等이 맘과가티 便해진다하면 多幸。

民主國、米國을 獨裁에서救出하라!

白堊館서階級意識鼓吹는不可

후버氏、루氏를攻擊

【클리브랜드十一日發同盟】후-버-前大統領은 前後三個年에亘한 沈默을깨트리고 十日夜 共和黨大會席上에서「나라」를痛烈히 論難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은 民主國 米國에 獨裁制를 布하려고한다 고現大統領의 政策을 全面的으로檢討하야 가로되

루즈벨트大統領의「나라」는 歐洲大陸의 社會主義獨裁와 맛치 獨裁同樣으로 民衆自由의精神을 全혀沒却한 秕政이다 루즈벨트大統領의施政은 要컨대 全혀 當面主義 算盤本位의經濟政策을 버서나지못햇다 루즈벨트大統領은 所謂 庶政一新의看板下에 權力과 人氣를 엇는데 汲汲한 形便이다 方今民主國인 米合衆國에 獨裁政治가 施行되려한다

또 후-버-前大統領은 現在의 浪費策을 難詰하야가로되

루즈벨트大統領은 弗의 平價切下를 强行한後 失業救濟의 膨大한 資金을 浪費하고 通貨政策에 그措置를 그릇한結果 米國國民은 方今經濟的破滅과 混迷의 渦中에 빠지게되엇다 如斯한 秕政을 刷新하기爲하야 共和黨은 眞實히 社會政策의 改善을 圖하지안흐면 안된다 社會的病症에 對해서는 一時를 糊塗함과如한것은 絶對로 避하고 眞實로 그病症을 救濟하지안흐면 안된다

후-버-氏는 最後로 全國民이 一致하야 獨裁를 打倒하고 自由를 戰取하기爲하야 神聖한 十字軍을 起하지 안흐면안된다고 强調하고 如左히 述하엿다

白堊館으로부터 階級憎惡의 福音을 說하는것을 듯는것은 實로 米國史上空前의 異例이다 一切의 民主制를 破壞할 階級鬪爭이야말로 一切의 歷史가 明示하는바이다 歐洲各國의 獨裁政治는 完全히 人民의 自由를 破壞해버렷다 現大統領은 以上의 歐洲大陸의 獨裁性을 模倣하고 또 그것에 미치지못함을 두려워하고잇는形便이다 米國國民은 먼저 經濟分野에서 그自由를 確保하지안흐면 안된다 經濟的權力에 對해서도 阻止抑制가 必要한것은 政治的權力에서와 同樣이다 그阻止抑制의 傾向이 업스면 滔滔 專制政治를 誘致한다 民主主義空前의 危機에 當하야 米國民은 一致協力하야 神聖한 十字軍을 組織하야 自由를 戰取하지안흐면 안된다 (寫眞은 후-버氏)

루大統領 수氏攻擊을反駁

【아-칸소十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은 十日 아-칸소에 進出하야 아-칸소州創設百週年記念祝賀會에 出席하야 一場의 演說을 試하고 共和黨全國大會의 上院議員스타이와氏의 主張을 反駁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米國의 如何한 集團이라도 國民의 公共生活에 對한 政治的統制權을 剝奪할수는업다 제파-슨大統領은 일직 法律的疑義가 잇섯슴에도 不拘하고 敢然 리지아나州를 買收하야 아칸소·유니온을 實現하엿다 그나마 當時 누구나 大審院에 提訴하지아닛섯느냐 제파-슨大統領은 實로 熱烈한 勇氣로서 廣汎한 憲法上의 權限을 질머지고 國家를 爲하야 올라고 밋는바에 向하야 邁進한것이다。(寫眞은 루즈벨트氏)

米國의武器輸出 中國買入이第一位

【華盛頓十日發同盟】國民政府는 蔣介石氏 指導下에 國防强化策에 邁進中인데 米國으로부터 軍用機는 勿論 軍用機、機關銃部分品을 大量輸入하야 五月의輸入總額은 無慮百四十萬弗에가깝다고한다 米國國務省當局은 十日午後 左의 軍需品輸出統計를 發表하엿는데 中國이 第一 大量으로軍需品을 買入한 事實을 指摘하엿다「中國이 米國으로부터 軍用과 非軍用飛行機 各種發動機機關銃部分品自動車·라이플銃及 拳銃等을 大量購入한 總額은 百三十九萬弗로 各國中 第一位를占하엿다 中國다음에 希臘이 百十萬弗 亞爾然丁이 八十八萬九千弗이다」

上海五團體 中央擁護를闡明

【上海十一日發同盟】上海市商會、銀行公會、錢業公會、船舶業、地方協會의 有力五團體는 十一日 國民政府와 西南政務委員會에對하야 如左한 通電을發하야 中央擁護의立場을 宣明하얏다 國難重大한때에 國內가團結되고 絶對內戰을 避하기바란다

軍事行動停止를 蔣氏、陳氏에通電

不然則反蔣行動으로認定

【南京十一日發同盟】南京政府는 西南派說得의 政治的折衝에 努力하고잇던바 西南派의 態度는 依然 變更되지안키때문에 蔣介石氏는 十日附로서 陳濟棠氏에게 如左한 通電을 發하야 萬若 軍事行動을 卽時 停止치안흐면 反蔣軍으로 認定하겟다고 强硬態度를 表明하엿다

第二中全大會는 一個月以內에 開催하기로 決定하엿다 이會議는 黨議에 依하야 決定되것이므로 各自의 自由行動은 絶對로 不許하다 나는 西南軍北上에 依然衝突을 避하기爲하야 衡陽으로부터 中央軍을 北方으로 撤退시켯스므로 따라서 西南派에서도 速히 進軍을 停止해주기바란다 西南派의 軍事行動은 抗日이 아니요 反中央의 叛亂行動인 印象을 與할것이다 나의 보는바로는 一部抗日에 憑藉하고 私慾을 爲하야 煽動하는 軍事首謀者가잇는것을 認定치안흘수업다 이는 나의 가장 遺憾으로 여기는바이다

佛人民戰線內閣 分裂危機에直面

勞働者法案議會提出을契機로 急進社會黨反對擡頭

【巴里十日發同盟】블룸內閣은 組閣初 罷業解決에 相當한 效果를 보며 順調로 出航한것가티 보이드니 九日勞働者法案의 議會提出과 同時에 急進社會黨의 反對意見이 擡頭하야 벌서 人民戰線內閣內에 左右對立의 形勢가되어 內閣의 基礎脆弱性을 暴露하야 前途多難을 豫想케되엇다 卽 急進社會黨機關紙에ㅡ르스카紙는 十日附紙上에 블룸內閣의 勞働法案을 攻擊하고 正面으로 反對하야 如左히 論評하엿다

블룸內閣이 提案한 四十時間勞働制는 生産價格의 昻騰을 招來하야 거의 近絶的인것으로 佛國外國市場은 全혀 潰滅되게될것은 明白하다 그結果必然 失業者의 增加를 招來하야 新立法의 目的인 勞働者의 福利는 單純한 空手形에 [illegible]하게될것이다

駐米佛大使更迭

【巴里九日發同盟】佛國政府는 華盛頓駐箚大使 라부레氏를 召喚하야 米國情勢에 關하야 協議中인데 仄聞하건대 政府는 라브레大使를 華盛頓에 歸任시키지안코 새로 歐洲外交界에 重要地位를 與할 意向이라고 傳하다 라브레大使의 後任으로는 外務省聯盟局 막시그레氏 元勞働相次官모상氏及 元國民經濟相長官 바로노르氏等의 說이잇다

聯盟緊急總會 三十日에開會

【쥬네브九日發同盟】亞爾然丁要請에基하야 聯盟緊急總會는 來三十日開會되는데 亞國代表는 制裁問題의 全般的檢討를 爲하야 新提議를 할것으로 解釋된다 卽 에國問題에 關한 聯盟의 處置에는 亞政府를 爲始하야 南米諸國政府는 모다 실증을내고 잇스니 制裁案의 處理와 關聯하야 聯盟機構의 根本的改革을 提唱할것으로 보이는데 萬若 此等希望이 容納되지안는 境遇에는 聯盟과 絶緣하고 米大陸에 閉籠하는 同時에 南米安全保障機構結成에 邁進하지안흘까 觀測된다

陸海空相任命코 內相도專任으로?

無氏兼攝八相辭任乎

【羅馬十日發同盟】자노伯의 外相就任을 中心으로한 伊太利內閣의 一部改造는 九日 斷行되엇는데 뭇솔리니首相은 이에 依하야 一九三五年一月以來 兼任해오던 陸海空及 內相의 兼務를 辭任하고 左의 專任長官을 選任할것이아닌가 하는風說이傳한다

任陸相 現陸軍次官 바이스트로키將軍
任海相 現海軍次官 카바니아리 提督
任空相 現空軍次官 바레將軍
任內相 現파시스트黨幹事長 스타라체

그리고 차노伯의 外相就任에 伴하야 駐英大使그란디氏에게 歸國을 命하엿는데 이는차노外相의 對英外交에 對한 重大關心을 示하는것이라고 解釋된다

一千의中國學生 日本領事館包圍

打倒日本帝國主義를絶叫

警戒憲兵、겨우解散

【南京十日發同盟】十日正午頃約千名의 中國人學生은 南京日本總領事館 前廣場에 集合하야 打倒日本을 高唱하면서 總領事館에 肉迫하려다가 中國側警戒憲兵에게 阻止되어 小衝突後 解散시키게되엇다 日本總領事館에서는 卽時國民政府外交部에 對하야 嚴重抗議하는同時에 今後如斯한事件의再發을防止하도록要求하엿다 右學生運動은 中國側의 抗日通電에 刺戟된모양으로 이外에 南京各學校에서도 抗日決議를行하려는 傾向이보여 西南、中央의 抗爭問題를 契機로 排日運動의 勃發이 憂慮되고 잇다

治外法權撤廢後엔 朝鮮人民會도縮小

職員大部分은滿洲國官吏로轉職斡旋

交涉不如意로民心에動搖

만주국내의 일본치외법권(治外法權)중 산업과세(課稅)등관계는 오는칠월일일부터 철폐하게되다 따라서 조선인민회는 그기관을 축소하는동시에 민회의부과금(賦課金)은 폐지하고 치외법권이 전부철폐되야 민회가업서질때까지의 민회의 비용은 만주국에서 부담케 할작정이라하며 또 현재의 민회직원중에서 기한명과 소사한명을 두어두고는 전부 이것을 만주국관리로 적당히 전직(轉職)식히려는것이라는데 이에대하야 아직 만주국에서는 확실한승락이업서 민회 축소후은 해산후에 그직원과사업이 어떠케될는지재류조선인은 불안을느끼고잇다한다 민회해산후의 대책에 대하야는 주만대사관과 령사관에서 그간 만주국과 교섭을 하여오는중이나 전긔의 여러가지문제가 해결안되야민심에 동요를 이르키고잇다한다

咸南에서도團束

普天教幹部五名檢擧

警察의取調따라擴大될情勢

【咸興】 전조선적으로 보천교도(普天敎徒)의검거선풍을 일으키고잇는이때 돌연함남에도 간부급인물오명이 검거되엿다 함흥서고등계에서는 북청군신남면(北靑郡新南面)에 본점을두고 잇는 보천교의 간부 리덕귀(李德貴)외사명을 검거하야 엄중취조중인데 사건내용은 알수업스나 비밀히 현정(現政)에 배치되는 계획을한것인듯하며 함남에도 이교도가 약일백여명 가량된다고하는데 취조에따라서 검거가 확대되지안흘가 매우주목된다

在京都朝鮮人親睦會總會

【京都】 재류동포의 유일한 친목단체인 재경도조선인친목회(在京都朝鮮人親睦會)는 작년이월에 창립된이래 다방면으로 광휘잇는 활동을 계속하야오는바 지난일일 오전열시 제삼회 정기총회가 상경구 서진직물회관(西陣織物會館)에서 위원장 박긔제(朴旣濟)씨의 개회사로 개최되얏는데 림시의장 서긔를 선거한결과 최현수 하남철(崔賢洙、河南哲)김활수 조중환(金活洙、曹仲煥)등 사씨가 피임되고 박영희(朴永禧)군의 축사의뒤를 이어 동회고문 변호사 전중의남(田中義男)씨의 도항、주택(渡航、住宅)에 관한 열변이잇자 림석경관의 중지로서 장내의공긔는 일시험악화하얏고 역원선거 의안통과를지나 만세삼창으로 무사폐회하얏다는바 피선된 위원과통과된 의안은 다음과갓다한다

被選委員

▲委員長 洪承用 ▲副委員長 曹仲煥 ▲委員 河南哲 金活洙 鄭泰華 洪承秀 蔡洙福 金鐵泰 鄭鐵雄 許且律 金英大 朴旣濟 金月鳳 崔賢洙 具大鐵 李貴洙

決議案

一、在京都朝鮮人團體統一에關한件
一、在京都朝鮮人事情調查에關한件
一、在京都朝鮮人生活擁護에關한件
一、在京都朝鮮人居住權獲得에關한件
一、渡航證明에關한件
一、致鄕에關한件
一、會勢擴大에關한件
一、衛生에關한件
一、財政에關한件
一、勞務機關設置에關한件

안해의 서투른示威

술먹고飮毒인체

夫婦싸움끄테喜劇一幕

십일오후 열시반경에 시내내자정(內資町)이백삼십사번지 과자제조업하는 성락준(成洛駿)의 안해조인수(趙仁秀)가 부부싸홈을 한바탕하고나서 죽는다고하면서바그로나갓다오더니 갑작이 독약을먹고죽는다고 신음하기시작하야 이에 놀랜그남편이 황망하게 부근광제(廣濟)의원에 데리고가서 의사에게진찰을바다보니 독약은커냥 독한술을 엄청나게만히 먹고와서그와가티 거짓시위(示威)를하던것이 판명되여일장 희극으로 끗을마첫다

飮毒一貫의 求愛戰術

식어가는사랑의回生劑로

두번재飮毒한金蓮花

부모의 반대를 항거하려하야독약을먹고 삭발(剃髮)까지하야가며 획득한 그정남(情男)의사랑을독차지못하야 끗끗내죽음의길을차즌젊은여자가잇다 지난십일 오후 열시경에 시내내수정(內需町)삼십칠번지 십여만재산가 최원규(崔垣圭)의 첩 김련화(金蓮花)가 만흔분량의『칼모친』을먹고 자살을 도모하야 신음하고잇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곳부근광제(廣濟)의원에 입원시켜 응급치료를한결과 겨우생명만은 붓잡을모양이라한다 이제 그자살의 경위를 알어보건대 전긔 김련화는 작년말까지 시내 조선권번(朝鮮券番)에긔적을 두고 기생노릇을 하다가 전긔최원규와 사랑하게되자 그의부모가 극력반대함에 불구하고 독약을먹고 죽는다고까지 발바둥처서 부모에게 시위하고 삭발까지하야 그남자에게 열정을 표하야서 금지에 번초부터 살림을시작하여오던것인데 최근남자가본가에도자주가고하야 사랑을독차지하려는나머 그남편과싸운끄테 그와가티 독약을먹은것이라한다

(사진은 음독한김련화)

土兵隊의出沒頻繁

二百餘名同胞被害

五月中에暴行回數四十二件

咸南對岸에集結中

【咸興】 지난사월말경부터 시작된 일만군합동 대토벌공작으로 인하야 안동성(安東省)중부방면의 수천명토병대들은 전부 장백현(長白縣)내로 이동하게되여 그대안인 함남도국경지방의 출몰도 극히빈번하야 이주동포들의피해가 그절정에 달하여잇다 함남도경찰부의 통계를보면 함남도대안에서 지난오월중 이주동포촌락을 습격(襲擊)한회수는 사십이건이나되며 신체에 해를바든 사람이 여덜명 물품의피해를입은사람이 사십사명에 일천사백오십일원칠십오전의 거액에달한다。그리고 금년 일월부터 오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토병출몰회수는 일백륙십이건에관계된인원이 이백이십여 명의 다수로서 신체의 피해를 바든것이 오십륙명이며 물품의해를바든 사람이 일백륙십팔명 그 피해액이 사천구십륙원팔십전의 거액에달한다、금후 더욱 출몰할형세를 보이고잇스며 극히함남국경방면에 접근하고잇슴으로 어느때에 조선내지로 처들어올는지 극히불안한 상태에잇슴으로 국경선경찰서에서는 각주재소를 독려하야 엄중한경계를하고잇스며 대안동포들도 이자심한 횡포로 타처로 피난하여가는형편이라고한다

當局의突然彈壓으로 吊鐘울리는普天教

四十餘正私服巡查첫새벽부터猛活動

井邑에서 本社特派員 白安基記

한때조선에 큰맘성으로 그의세력이 우후로 하날을뚤흘듯하며 아래로 자칭륙백만의 신도를거느리고 자칭천자의 칭호를 어더가면서 우부우부들을 가진 수단으로 속여가며 거대한금액을 모취하야 백만여원의 공사비로 외람하게도 웅대한 건물을 수십채지여노코 마치 소왕국을 건설한듯 가진항악을 다부리다가 지난사월이십구일에황천의손이된 보천교교주 차경석(車京錫)! 조선의땅에 적(籍)을둔사람치고는 모르는사람이 업슬것이다 그가한번죽어(死)가자 제교주추대설이 또다시 항간에 떠오르게되엿스니 혹자는 차경석의 아들이된다는등 아직 열두원살 박게안되는 손자를소위 섭정(攝政)으로 추대한다는 등 가진풍설이잇서 세인의주시를 끌고잇는일방 교도중소위 최고간부측에서는 교세를여전운전 하겟다고 각지방신도로하여금 헌금(獻金)을 모취하는 모양이 보임으로 당국에서는종래의 소행은 물론 금후의진전될 모든문제를 예방코저 보천교를 철저탄압하겟다는 악이서잇섯든모양이다 긔자는 지난구일밤 사명(社命)을띄고 보천교의 소재지인 정읍(井邑)을당도하니 때마침경찰부원이 근이십명이나 이곳에 와잇는것을보고 각방면으로 그들의 동정을살폇스나 비밀을생명가티아는 경찰계의사무이라 할으로 알길이막연하야 필경은 경찰관의숙소를 차저 그곳에다 숙박을하고 인삼장사(人蔘商)처럼 문왕굿겨닷고 이제는 저이들의 행동만엿보러니하고 일거일동을 의심스러히 보고잇는차에 한편방에서 려관보이를 부르드니 래일은아침 네시에 깨워달라는 주문이 연발한다 이때야 비로소 십일새벽에는 무슨일이잇나하고 그날밤을 안저새다십히 시게의단침(短針)만 눈이빠지도록 처다보고 지리한시간만을 멧번이나 원망하엿다 이윽고 네시가되자 건너편 려관압헤서 (경찰부원의숙소) "엔진" 소리가들리자급히쪼처가보니 벌서원의 숙소에는 한사람도 업섯다 정읍의 거리는 아직도 조용한 새벽공긔에 파뭇처인적이라고는두경찰수가 업섯다 한거름에 경찰서문압흘 당도하니 아니나 다를가 화물자동차 두대와 공용차두대가 마치 전지를 나아갈군인(軍人)을 실은듯여덜개의 "헤드라이트"가 백촉이상의광선을 여지업시 방사(放射)하고잇다 조금잇스니 경찰서이층에서 사십여명의 정사복순사가밀려나와 제대로 분승하든니 일로 입암면대흥리(笠岩面大興里)를향하야 맑은새벽공긔를 헤치며 제멋대로 다라난다 긔자도 한대의 자동차를 불러 그들의 뒤를 살금살금따러부럿다 보천교 정문압흘 당하니 발서 열세반(十三班)으로 난운수사대가 홍지촌(普天敎村) 일대를 보기조케둘러싸고 간부급 소위 보천교사무실에는 간부급인물기타사십여명이 마루가에안젓고 대청한가운데에는 멧권의 서류를두고 정사복경관이 무엇을쓰는지『청년경주』를 하고잇다

(사진은 보천교본부의정문 보화문(普化門))

(계속)

업는사람의설음

우슴미테는 눈물

大京城實現後所有의移動頻繁

느는것은家屋明渡와撤毁

요사이 토지갑시싸지고 물가가올려가는바람에 토지에 대한투긔열(投機熱)이 일반으로 팽창됨에 따라 또는경성부의 구역확장에따라 토지에관한 소송사건도 갑작히늘어 경성지방법원민사부에는 매일토지소유권이전등긔(土地所有權移轉登記)와 특히 가옥철긔(家屋撤毁)등에대한 소송사건이 폭주되야 자못그처리에 두통중이라는데 이제금년일월일부터 금월십일까지 그법원민사부이부(二部)에서만 정수한 소송건수를 보더라도 토지소유권이전등긔에 관한것이 륙십건 가옥명도 가옥철거에관한것이 삼십일건으로 일부(一部)까지 합하면 모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긔와 가옥철거 가옥명도에관한 소송은 약일백구십여건에 달하야 전년보다 약칠할가량 건수가 늘엇다 한다 이종류의소송이 만히늘게된 원인은 경성부의구역확장과 도시계획령(都市計畫令)실시에따라 땅갑시는 불량토지『뿌로커』들이 만히발호하는데와 땅갑시 올흔바람에 땅을다른사람에게 팔라든가또는 새로집을짓기위하야 종래에 빌려주엇든땅을 그만빌리려하는데와 빌려주엇든집을 내노라는데에잇는것으로 보이는데 소송까지하게되는것이 이가티만흘뿐에야 그대로가옥명도와 가옥철거요구를당한 차가 차지(借家借地)계급은 몃배나더만흘것으로 추측되야 조선에도차가법과 차지법을 속히실시하야 세민계급을 옹호하라는물론이비등하고잇다 그리고하나 만흔사건은 리혼(離婚)사건으로금년에들며 법원일이부 합하야 약륙십건이나된다는데 이상한것은 녀자편이 리혼을요구하는것이 거의전부로서 대개는 남자의횡포와 학대를리유로하는 것이 일반의주목을 끈다고한다

延禧松林속에展開될 中等籠球爭覇

延專主催와本社後援下에

申請期는來十三日限

중등롱구계의 패권을 노리는 연희전문학교 주최와 본사후원의 제六회 전조선중등학교 롱구대회는 래十九日(金曜)과 二十日(土曜)의 량일간 신촌정 연전코-트에서 개최할터인바 참가희망교는 十三일 정오까지 주최측에 신청하기를 바라며 당일오후二時부터 동교에서 대진을 추첨결정할터이다 동대회의 강령과 규정은 다음과갓다

綱領

一、本大會는 中等學校의 體育精神과 籠球技能을 獎勵함으로써 目的함
二、本大會는 全朝鮮中等學校의 籠球優勝校를 決定함
三、本大會는 每年春期에 本校에서 擧行함

規定

一、本大會는 優勝校에게 本校에서 特定한 優勝旗及東京運動社에서 寄贈한 優勝盃를 授與함
二、優勝旗及優勝盃는 優勝校에서 次回大會까지 保管함 但返還時에 永久히 保管케할 表彰盃를 授與함
三、參加學校는 朝鮮人中等學校에 限함
四、參加는 每校一隊에 限하며 隊員選手는 十人以來로함
五、一次申請한選手는 變更함을 不得함
六、競技相對校은 抽籤에 依하야 決定하되 抽籤한結果相對校이 無한時는不戰勝으로함
七、競技時間은 豫選은 三十分間(中休五分)으로하고決勝은四十分間(中休十分)으로함
八、上記의所定競技時間內의 兩軍의得點이 同點이될時는五分間式競技를 順次延長함
九、競技開始十分前에 出場치아니한團體는棄權으로認定함 但審判員과相對便의 承認을得한時는此限에不在함
十、競技用具는東京運動社製品로함
十一、審判에關하야는 昭和十一年度大阪朝日運動年鑑에 依함
十二、本大會綱領規約及審判의命令에 違反하는選手及團體에對하야는退場을命함을得함
十三、本規定에 記載치아니한事項은 一切役員과審判會의決議에依하기로한다

(寫眞은昨年優勝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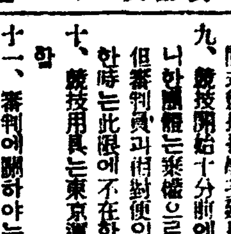
學生陸上競技大會

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 第三回全朝鮮學生陸上競技選手權大會는 來十三、十四兩日間 京城運動場에서 開催할터이다

學生水上競技大會

朝鮮學生水上競技聯盟主催의 第三回全朝鮮學生水上競技大會는 二十、二十一日兩日間 京城運動場풀에서 열릴터인데 今年度當番校는 高商과 普專이라고한다

拳豪朴君東京에



우리拳鬪界의王者 朴龍辰君은 지난世界오림픽最終豫選에서 惜敗하얏스나 君은 이에奮起하야 빗나는將來를 期約하고 師範成氏의後援을 어더 東京專修大學專門部商科에 入學手續을마치고 十二日午後十時五分 京城驛發 渡東할터이라는바 압으로는 東京에서 活躍할터이다

올림픽水上陣出發

伯林올림픽大會에 水上覇權을 目標로 日本올림픽水上陣選手役員一行三十名은 十一日午後九時東京驛을 出發하야 西伯利亞를經由하야 一路伯林으로 向할터이라고한다

朝鮮體育會常務會

朝鮮體育會緊急常務會를 明十二日午後四時부터 同會館에서 열터이라고한다

으슥한밤거리에서 키쓰해주먹洗禮

路上에서硬派와軟派의衝突

십일 오후아홉시경에 시내계동정(桂洞町)구십사번지 김봉수(金鳳洙)가 시내가회정(嘉會町) 길우에서 계동정(桂洞町)팔십번지 리주완(李柱完)의안해 김병숙(金炳淑)을붓잡고키쓰를 하고잇다가 부근청년들에게 발견되여 주먹세례를맛고 소관종로서에 검속되여 엄중취조를 밧는중이라한다

妻와싸운끄테 自家에放火

【新義州】 귀성군천마면탑동(龜城郡天摩面塔洞)사백륙십삼번지 광부 백운조(白雲祚)는 지난칠일 오후네시쯤 부부싸홈끄테 분푸리할데가업서 자긔집에 방화(放火)하야 전부 태워버리엇는데 그집은작년삼월 십오원에 저당권설정을 한것이라 한다

藥劑師合格者 朝鮮人은單二名

일전에 시행한 약제사시험 합격자는 십일에 총독부에서 발표하엿는데 그중 조선사람은 두명이다 金奎昌 李南鎬

延禧町의强盜犯

有力한嫌疑者追擊中

犯行後五日、逮捕는時間問題

칠일밤 시내연희정(延禧町)중국사람의 농가에 침입한 강도에 대하여서는 현장에 범인의지문이라든가 유류품등 한등단서될만한것이업고 경찰에신고하기까지에는 네시간이나 경과하엿슴으로 범인수사에 대지장이생겨 소관서대문서는 물론 경긔도경찰부와 시내각서의 응원을 어더 사건발생이후 닷새되는금 십일일까지 불면불휴의 활동을 계속하여엇스나 한등범인검거의단서조차 보이지안흐니 오날아침 경긔도경찰부에서는 아연긴장한 비출 띄이고 산구(山口)형사부장이 형사한명을 대동하고 인천(仁川)방면으로 출동하엿다는데 이는이번사건에 가장유력한 용의자인 강도전과이범 백학원(白鶴元)이가 인천(仁川)근해에잇는 대무의도(大舞衣島)에 잠복하여잇다는 보고를밧고 출동한것으로 범인체포도 지금와서는 자못 시간문제에 지나지 안흐며 오리무중에드러갓던 이사건도 머지안허 해결될터이며 서대문서에는 방금피해자인 중국인두명이 범인과곳대면할수 잇도록 출두하야 대긔하고 잇는중이라한다

少年떼가군四名被捉

십일밤 시내 종로서사법계에서는 시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 벽구시번지 량우언(梁禹彦)외 김인덕(金寅德)등 네명의 소매치기스리떼단을 체포하엿는데 그들은 지난삼월 오후열한시경에 시내종로정목을 지나가는 전차속에서 일백륙십원이 들어잇는 지갑을빼앗것을 비롯하야 각처에서 십여건의범행을한것을자백하엿다고한다

失踪된船長

依然五里霧中

【釜山】 괴보=부산으로부터 마산을향하야 심야에항해중이든발동선가운데서는 돌연운전하든선장의행방이업서지고 배는그데로진행하야 진해근처 가덕(加德)섬바위에부듸쳣다는 탐정소설가튼 선장실종의 괴사건 발생은 당시보도한바와 갓거니와 그후진해서(鎭海署)에서는 실종된선장의행방을찾고저 전긔발동선장복환(長福丸)의 선부상인을 소환하고 엄중히 조사하엿스나아직확연한 단서를어지못하고 사건은 오리무중으로 들어가는모양이다

痘瘡依然猖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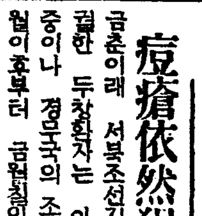
금춘이래 서북조선지방에서 창궐한 두창환자는 아직까지계속중이나 경무국의 조사에의한 일월이후부터 금월칠일까지의 환자는 일천이백팔십사인이며 그중사망자가 삼백이십팔인이다 그리고현재신음하는환자는 백륙명 함남북도의평도에서 만히발생하엿스며 관게당국에서는 계속하야경계중이다

瑞典空中慘禍

十三名死傷

【암메(서전)九日發同盟】『암메』와『암스텔담』사이의 정긔항공 대형려객비행긔는 구일 오전에『알메』비행장을떠난뒤 얼마안되여고장이생겨서 떠러젓다 려객가운데서『아메리카』사람 한명은죽고『스칸듸나비아』사람 열두명은중상을 입엇다

天氣予報



概況 七五二미리의低氣壓은滿洲에잇스며 七六二미리의 高氣壓은 半島로부터 日本海及日本本州를 거처關東에 퍼지고잇다 滿洲는개이며 朝鮮은흐리고 東岸及 中部內陸에는 降霜이잇다 日本內地도흐리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개엇다흐렷다하며 日도갓다

京城 昨日最高 二五度九 同最低 一三度六 今朝最低 一四度三 今日正午 二四度三

平壤本町里 電話一〇八九番 水王産婦人科 醫學士 李■■

김질藥은 木オヂリン
胃腸障害를 念慮하시는분 一回一個服用
定價 五十圓
各地藥店有、品切時는 京城本町四 木村藥房으로

迅速 夏撤 鷸鷸 酬應
亢羅、春紗、生明紬、改良紬、明紬、交七色、熟素、本絹熟庫紗、平安苧布、麻布、鐵絅、生絲、石油
合理的經營法에依한生産品을 直接販賣하난
朝鮮平北寧邊城內 平安機業社
振替京城二三四七二番 電話寧邊二九番 私書函寧邊三番
時勢表進呈

朝報案內
外務社員採用 府內에精通한內鮮人二十五歲以上四十歲까지의 身體健康하고保證人을要함 希望者는履歷書携帶하고本人來談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五 共濟無盡株式會社
開業就職 自由 一個月卒業化粧品科、石鹼科資任通信敎授(案內書要郵券二錢)京城府鍾路七十四番地 松檜化學工業社 振替口座京城一二五〇五三番
少女募集 十五六歲普校卒業程度履歷書持參來談하시오 京城府蓬萊町一丁目一〇 四海公論社 婦人公論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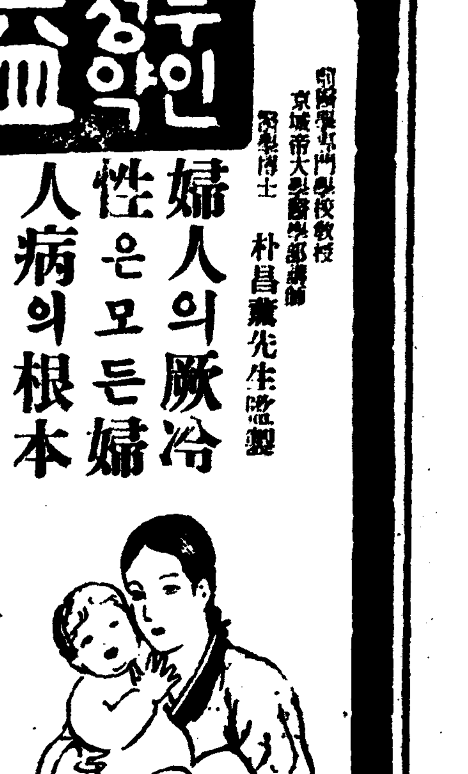
장갑 製造家를求함
○年中無休……收入確實
本業은小資本으로서京鄕을莫論하고婦女子들이容易하게製造、製法은二三日의講習으로充分、製品은一手로引受、絲絲는供給하며들입으로서遠地에서라도不便업시取引할수잇슴、目下有利한條件으로서製造者急募中 詳細는通知次第說明書無料送呈
京城府黃金町五電停前 朝日軍手京城支店 電話本局(2)二七五三番 本店·大阪·支店·東京 平壤府櫻町五三朝日軍手營業所

당채색 (商報送呈) 京城府鍾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二八八番 振替京城八〇二九番

副業
非常時에處하야 生活의安定을圖함에는 紙袋製造業推奬
都會와農山村을 不問하고本業又는副業에 가장適當한婦女子에도 가장簡單便利、製品取引은 確實、永久之業。生活의安定을希望하는 분은必히相談하라 申込次第說明書進呈
大阪西區本田通 千代田商事本店 電話新町三七一九八番 振替大阪二四〇六番

癌科·라듸움科
京城婦人病院
顧問독톨 工藤武城
院長醫學博士 松本泰治
醫局女醫 李敬信
電本局②〇四八二番 京城北米倉町九四

부인성약 益母草엑기스錠
醫學專門學校敎授 京城帝大醫學部講師 醫學博士 朴昌薰先生監製
婦人의厥冷性은모든婦人病의根本
益母草엑기스錠은 月經不順帶下症、諸子宮病의 徹底的治療와 産前産後의養生에 國際的藥으로 確認된 古今唯一의 婦人聖藥입니다 또男女를不拘하고 神經衰弱 諸冷病 消化不良에 特効가잇습니다
主 냉병, 경도부족, 석백대하증, 적혈히스데리, 혈기부족, 하초허랭, 수족궐냉오증, 안색창백, 산전산후제반약증도시, 허리와아래알흔데, 상기와두통, 남녀불임, 무시출혈불면증, 신경쇠약제냉병소화불량에특효
藥價 十日分二圓 卅日分五圓 七十日分十圓
帶下症과子宮病에 子宮內膜炎、膣炎、膣가다루、淋疾性子宮病으로因하야下腹痛이甚하고帶下가잇는婦人은本劑를服用하시요
月經不順 月經時에下腹痛이나며全身이노곤하며成年이되여도月經이업는婦人또는月經時期가一定치안이한人이本劑를服用하시면効가잇습니다
産前産後姙娠中 에는姙娠腎臟、姙娠腎臟炎等諸病이發生키쉬움으로益母草엑기스錠을常用하시면 胎兒發育도順調로됩니다또産後에本劑를服用하면血液을補하며母體의恢復이速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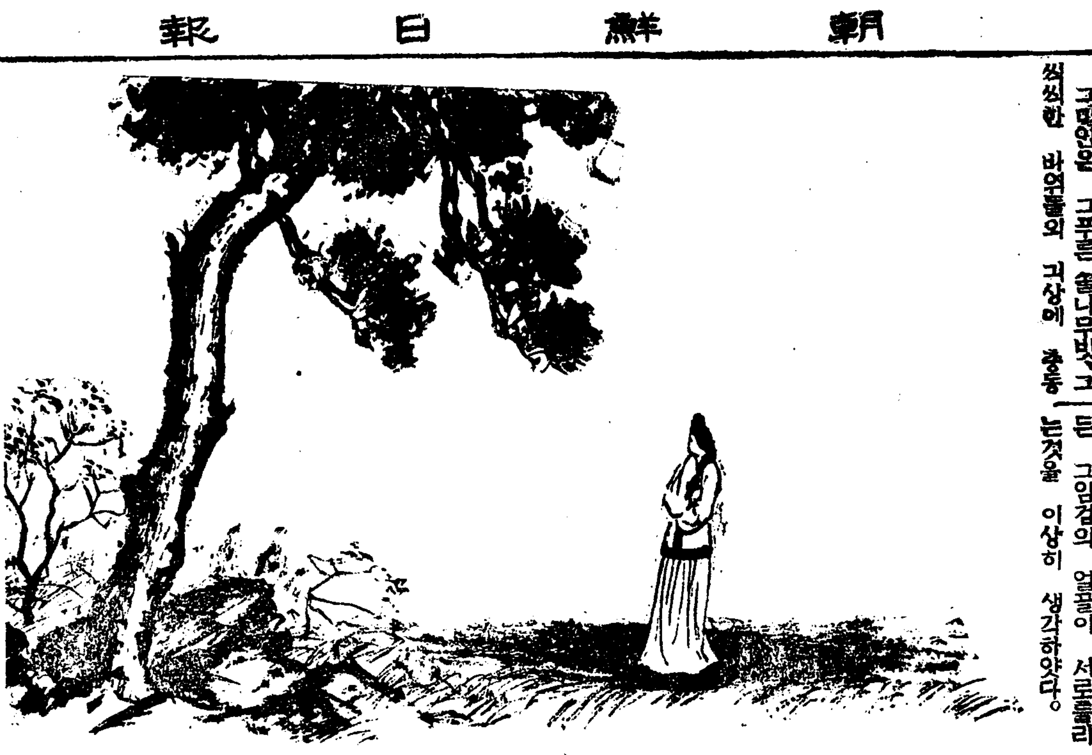
特約店募集
京城府公平町八八 本舖 大盛堂藥房 振替京城七八九三·電光一三五六
代理店 京城南大門通 株式會社 新井藥房

連載野談 (卅七)

布囊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畵

그미인의눈물(十)



고 미인은 남편이 먼저 잡혀간뒤에 여러가지 걱정이 장마뒤 버섯처럼 돋는、돋는 소서 솟나왓다。

그래서 아모조록은 호올로는 마음을 가려안치고 풀가려 차고도 무거운 생각으로 앞일을 궁리하라고 먼산을 바라보기를 시작하얏다。

때는 정히 늦진 가을!。

한동 좋닢과 나무닢을 벌서서 리바람을 바뎌 그 파랗론 비처 붉고 누르게 변하얏다。

그러나 오직 솔나무의 빛만은 그전빛 그대로 여전히 딸앗고 옷독소슨 바위돌의 울찬것은 그전대로 단단히 보힌다。

그미인은 그푸른 솔나무빛、그 씩씩한 바위돌의 긔상에 종종 이되며 한가지 더 깨다름이생기엇다。

『흥。눈마젓대서 빗변한 솔나무잇스며 비마젓대서 속썩은 바위돌 잇든가 목석도 그러커든 허물며 사람。 사람중에도 녀자。 녀자중에도 렬려절부(烈女節婦)의 마음이랴。 내남편은 이몸까닭에 죄인이되어 잡혀갓지。 그리고 장차병신이될지、죽을지 모르는일。 그러나 겁할것 족음도업는 한 큰길。 그것은 남편이 죽는다면 나는 벌서 그남편과 약속하기를 죽은뒤에는 두내외의 사랑을 떼장미테서 속살거리자하얏지。 그랫거늘 내어이 그약속을 변하리。 만일 내남편이 병신이되다면 그병신남편을 내등에업고 천리만리 다니다가 내려놋는 그자리에서는 내치마를 버서덥고 그미테서 우리내외의 사랑을 속살거리지。 아무것도 겁낼것이업서。 아아。 눈마진 솔나무! 비마진 바위돌아!。』

하고 두주먹을 불끈질새 그얼굴에는 족물과 가튼 푸른긔운이 떠돌앗다。

원래 그미인의천품은 양의렬과 가티 지극히 부드럽지만은 그절개를 위해서는 그러케 독한 미인이엿다。

그런데 이때 문밖게 여러사람의 발자최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리며 뒤미처

『이년! 빨리나와。 절개가 장한체하고 그러케 뽐내드니 잘걸녓다 잘걸엿서。 이년!。 어서나와。』

하며 볶으는 소리가 원근산천이 문허질듯하엿다。

그미인은 얼는 그사람들이자긔를 잡으려온 사람들인줄을잘 알엇다。

그러나 그미인은 솔나무와、바위돌을 두고 또다시 견실한것이잇는지라 조금도 겁낼것이업시 그들의 뒤를 딸하 대궐에 들어갓다。

그리고 개루왕을 향하야 머리를 쪼아가며 절하얏다。

그런데 그미인은 개루왕을뵈앞는중에 그룡안과 몃칠전에 보든 그입검의 얼굴이 서로틀리는것을 이상히 생각하얏다。

이때 개루왕께서는 그미인을 향하야

『이리 갓가히 올너 서라!』

하시며 그미인을 유심히 내려다 보신다。

그미인은 왕의 분부대로 왕아페 갓가히 가서 아미를 숙이고 단정히 섯다。

『너、내얼골을 알겟시?』

『황송하오나 뵈온적이 업슴으로 알외오』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전날밤에 네집에 가서 하루밤을 너와가티 지내고、왓거늘、내얼골을 어이 몰나。』

『그러면 엇든줄로 알외오리』

『그럼 맹경하고 잣구나。』

『나라에 임검이 어찌 무단이 게실리잇겟삽닛까』

『그는 그럿지。 그럼 누가 거짓 임검노롯을 햇구나。』

『확실이 그런줄로 알외옵 억가 짐하에 처음니를때 상감마마의 룡안이 번처보든 임검의 얼굴과 틀린것을 벌서 이상하게 생각한것을 알외오 그러하오나 백성의 조강지처를 검탈하려고 거짓 임검노롯까지 한놈은 그정탈하려든 죄도 잇사오려니와 떠떠구나 거짓임검 노롯을 한놈은 확실히 큰 역적이오니 그역적놈을 잡으사 나라법을 밝혀주시오면 그뒤에는 무슨죄를 당하얏든지 원한이업겟삽을 알외오。』

하고 그미인은 매우 날카로운 음성으로 말하는 그긔색이 너머나 냉냉하야 찬긔운이 떠돌아 보엿다。

『허허、과연 어엽브기도 하려니와 마음까지 매우 밝고도 똑똑하고。 하마트러면 내가 후회할뻔햇구나。』

하시고 개루왕께서는 곳 늙은 궁녀한사람을 불으셧다。

라디오

十一日 (木曜)

◇午後六時三十分 說方指導(敎育레코ー드倂用)(一) 延專敎授 鄭寅燮
◇同六時五十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科學講演『海中植物』 培花女高 李德鳳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二) 崔南善
◇同八時三十分 (東)室內樂
◇同八時一〇分 詩話와詠詩 一、心性圖 二、長篇 林炳駿
◇同九時五分 孤獨의怨恨外 一、孤獨의怨恨 二、가가이打鈴 三、제격歌 四、春踊歌 五、悠悠別恨 書松岡
短簫 崔壽成
細笛 高載德
◇同九時三〇分 映畵物語『鄕愁』 柳寅晟

第一放送
◇午後六時 新日本音樂 西村靖琴社一行
◇同七時三〇分 講演 日・蝕 國富信一
◇同八時 (東) 清元 清元壽美太夫外
◇同八時三〇分 (東) 室內樂 鈴木콰르텟트
◇同八時五〇分 (大) 浪花節 廣澤虎造

十二日 (金曜)

◇午後〇時五分 唱劇調 一、短歌 어화靑春 二、唱劇調 春香歌中 春香母壇보고비는데 緖素玉 誠手 丁元燮
◇同三時一五分 婦人週間『女性과職業』 同德女高 宋今璇
◇同六時三〇分 說方指導(敎育레코ー드倂用)(二) 延專敎授 鄭寅燮
◇同六時五十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講演 〃船舶이야기〃 中央高普 沈亨弼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二)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愁心歌外 一、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寧邊歌 四、긴난봉가 五、자진난봉가 六、긴아리 七、경복궁타령 崔貞子 金秋月
◇午後八時五〇分 洞簫獨奏 一、散調 二、새타령 柳東初 池龍九
◇同九時二〇分 名曲鑑賞(레코ー드演奏) 解說 朝鮮音樂家協會 桂貞植
빠이올린과管絃樂 빠이올린・후ー벨트만
西班牙交響曲 D短調……랄로作曲
管絃樂・위ーㄴ 필하ー모니 指揮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大)로ー키物語(사랑의나포리) 木田牧童
◇同〇時三五分 (東)詩吟 大麻博之
◇同六時 (鹿)鄕土童謠의노래 鹿兒島川邊郡加世田
◇同六時二五分(東)基礎英語講座 鹽谷榮
◇同七時三〇(東)講演 松井茂
◇同八時 (大) 寄席中繼 花柳쓰바메外
◇同九時(東)講談 神田山陽

十三日 (土曜)

◇午後〇時〇五分 (大)輕音樂 一、하ー모니카合奏 二、섹소폰獨奏 關西學院하ー모니카밴드 指揮 三宮貞三 피아노 武澤武
◇同一時 野球試合實況『鐵道對全大宮』ー京城그라운드에서ー
◇同六時三〇分 說法指揮(敎育레코ー드倂用)(三) 延專敎授 鄭寅燮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時事解說 朝鮮日報社主筆 徐椿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三)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안해의秘密』 放送劇協會
ー配役ー
英俊……河一琛
그의妻(貞淑)……李英惠
그의동생(英純)……林景淑
光浩……宋芝蘭
中國料理商……文烈
下女……池蓮玉
演出 李瑛 效果 楊熙
◇同九時一〇分 赤壁歌 一、赤壁歌 二、제비가 三、달거리 郭山月 郭明月
◇同九時三五分 音律 一、鄕唐交奏 二、仕絹風流 奚琴 趙奉石 大笒 金一奎 細笛 李點龍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郞
◇午後零時五分 輕音樂
◇同三時三五分(東) 琵琶 大麻倘之
◇同六時 幼兒에의옛날이야기
◇同六時一五分(東) 生活改善講座 棚橋源太郞
◇同七時三〇分(東) 歌謠曲 山野巡 伴奏日本빅타管絃樂團
◇同八時二分(東) 舞踊劇 市川左團次外
◇同九時 時事解說

落拓不遇한快男兒
長安名物"林唐鞋"

庾秋岡

才子와佳人어라하면、누구나엽는생각하가를 昔日卓文君과司馬長卿을 想像할것이로되 이에『건드러진才子』라고 한은司馬만 못하지안흔 才子이지만은 決코 佳人에戀戀한 鄕瀟才子를 말함이아니요、今日『스포ー쓰』式으로快活大膽하고 勇快絶人한 林唐鞋를 紹介코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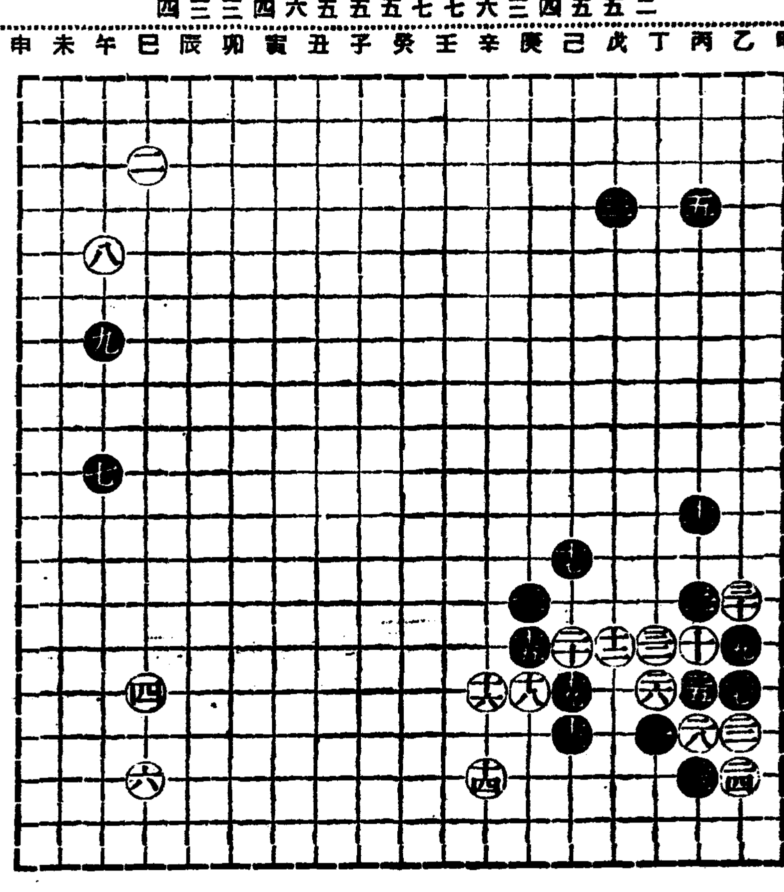
林唐鞋는距今百二十二年前 丁丑四月初八日 漢陽玉洞에서 出生하엿는대 胎內에서 喪父한遺腹獨子로 幼名을昌吉이라하엿스며 後에母의婚禮時에 신고온唐鞋를신고단인까닭에 林唐鞋라부르게되엿다。

昌吉은 貧困한家庭에서 자란몸이라 營養不良으로 그랫든지 身體發育이 不良하야 顔色이蒼白함을 근심하는母親은 遺腹獨子萬一不幸하면 웃지하나 念慮하기를 마지못하든中 昌吉이九才되든해 正月에『隣家兒孩들은 實實樂하는데 昌吉이는 가엽서라』하고 歎息하는母親을 처다보든昌吉이 仁王山에 올나가 山猪를 잡어왓다 母親은 놀나서 무른즉 『나무나좀해올가하고 山에올나갓더니 山猪가덤벼들기에 때려잡엇지요』 母親은 그때부터 昌吉의氣力이 超越한것을알고、더욱근심하엿다 果然 그後에는 昌吉의行動이 前과다름을보고母親은 昌吉에게 決코 腕力을자랑함은 小人의行爲이니 注意하라고 일럿다 昌吉은 母親의命을지키여 十九歲되든해에 東浦場에서 惡漢을戒하야 여러사람의危險을 救하고 傷人하는黃牛를 蹴殺하엿스며 弘濟院大賊團을 退治하엿슬뿐으로 決코 남에게손을대본일이업시 當時桂月이란妓生의危險을 救한關係로 頑惡한외입쟁이들에게 뭇매를마진일도 만헛스되 決코 對抗한일이업섯다 그리하야 避身을象하야 母親이作故한後에 八道江山을도라다니다가 桂月의至誠으로 다시만나가지고 多恨의餘生을 질거웁게 마첫다는이야기

圍碁對局譜 =2=

本社主催

白 柳鎭河
黑先 丁奎春



十七	●	己의十二
十八	○	庚의十五
十九	●	己의十五
二十	○	己의十四
二一	●	庚의十三
二二	○	乙의十六
二三	●	丙의十七
二四	○	乙의十七
二五	●	丙의十五
二六	○	丁의十五
二七	●	乙의十五
二八	○	丙의十六
二九	●	乙의十四
三十	○	乙의十三
三一	●	丙의十三
三二	○	丁의十四

蔡極文氏評日 黑丙의十五를 白이 丁의十五로 應한은 互相奇絶하니 實令人膽驚이로다 概論컨댄 奇門一闢에 反致危機는 此亦理中出來이로 變方地盤이 姑未設定하고 早速交爭은 其於棋道에 恐失正體일까하노라

試寫室

카스타、디바(面影)

伊太利의 名作曲家 뷜렌쏘、벨리니의 百年祭를 記念하기爲하야 맨든 伊太利映畵다。 監督에는 칼미네、갈로네요 主演에는 말타、에겔트와 산드로 팔미에리요 音樂은『未完成交響樂』의 슈벳트 켈트나가 벨리니의 曲을 編曲하고 또 指揮한것이다。

그梗槪는 나포리音樂學校의生徒인 벨리니가 어느 大官의집에 招待바더가서 音樂에 理解업는 무리들에게 冷待를맛고 돌아 오려든차 그大官의 딸로부터 꼿한송이와 慰勞의 편지를 선사바덧다。 그는 學校에 도라와서 그女子의얼골을 그리려다가 그리지못하고 사랑의노래를 지어 그女子에게 바치엇다。 그以後 두男女의사이는 사랑의실머리로 얼키엇스나 不幸히도그女子에게는 이미 約婚者가 잇섯다。 그女子는 自己約婚者의 地位를 利用하야 벨리니를 出世시키려고 努力하나 벨리니는 그女子自身以外 다른것을 要求치 안햇다。 벨리니는 그女子와 한께 自己故鄕인 시시리島로가서 隱遁生活을 하자고 請하는데 그女子는 벨리니藝術의 大成을 爲하야 拒絶한다。 할수업시 벨리니는 저혼자 미라노로 와서 거긔서 漸次로 이름을 노피어가는中 녯失戀의 기픈苦悶으로부터 사랑의노래 가업는 오페라『놀마』를 作曲하얏다가 聽衆의怒號아래 大失敗를 演出하고 만다。 그消息을 드른 벨리니의 녯戀人은 病든몸을 馬車에 依支하고 漢路를 달리어 가서 벨리니도 모르게 그오페라一行에게 녯날 自己가 바든 그사랑의 노래를 傳하고 돌아왓다。 그사랑의 노래로 因하야다시못사람의 歡呼속에 파무친 벨리니는 그女子의 기픈사랑을 感激하고 나포리로 곳 出發하려는 지음 病든몸에 路毒을 兼하야 그女子는 멀리 이世上밖그로 떠나갓다는 悲報가 이르렀다。

이梗槪로써 알수 잇는것과가티 아조 로맨틱한 一篇사랑의悲劇으로서 未完成交響樂과 만히 비슷한데 다른 映畵批評家들의말과가티 씨나리오로나 演出로나 그보담은 졸열어지는것、갓다。 곳곳이 監督者가 재치도 보이지안는것은아니로되 그러한主題로도 좀더 深刻味를 씌웟드면 하는 希望을 그로써 업설수는 업슬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內容으로서 그만한 程度라면 興行價値로는 充分하다。 더구나 前半部의 伊太利風景은相當히 조와보인다。(十日부터市內團成社에서上映)

映畵短信

巴里의常設館 不景氣에빠진

巴里映畵館의收入은一九三一年의 三億六千九十萬法을 絶頂으로해서 一九三二年의 三億五千九百三十萬法 一九三三年의 三億三千八百二十萬法 一九三四年의三億二千二十萬法으로 下降을繼續하얏는데 一九三五年度에는前年에 比하야 新映畵館이 二十處나增加하얏슴에不拘코 六百萬法이 減의 三億一千三百七十五萬法으로 되얏다。 同年度最初의 出發은 퍽 好成績이엇고또十一月도 前年度同月에比하야 二百萬法의收入增加를보이엇스나 五、七、八、十、十二의 各月이 前年度보담은 엄청나게 떨어저 된것이다。 그러나 그不振의 한原因에는 映畵가다른 興行物보담도 重大한 [illegible]을 밧고 잇는것이라는데 前보담도 一層 [illegible]하야진 映畵業者의 [illegible]이 장차어떠 한 큰 問題이다。 그러고 뮤직홀과 써커스도 年來로 不振狀態엿스나 一九三五年度에 이르러는前者千萬法、後者十萬法의 收入增加를 보이고잇다

平間・井上氏一行 昨日本社來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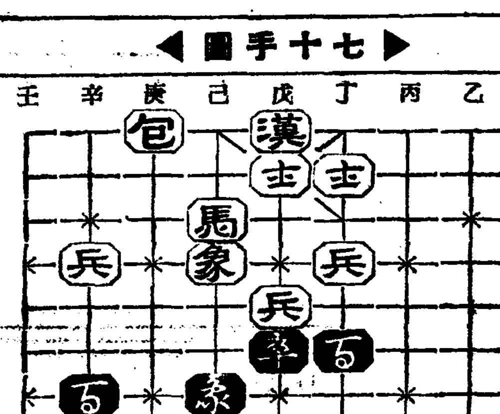
帝國音樂學校敎授인 聲樂家 平間文壽氏와 井上게이子氏는 伴奏者古莊百合子와함께 今十二日밤 府民館에서열릴 中央藝術社主催의演奏會出演人事次로 昨十日에 本社를來訪하엿는데 平間氏로말하면 朝鮮에 氏의門下生이만코 京城에서의公演은今十二日이다

寫眞 中央이平間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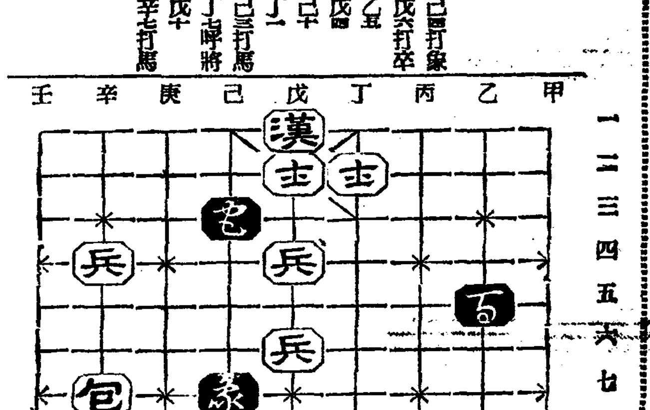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八)

漢 李在鳳 對先手 楚 全于石

◀十七手圖▶



◀十八手圖▶



己〇ー己三打象
戊五兵ー戊六打卒
丁六〇ー乙五
丁四兵ー戊四
己三〇ー己一
庚一包ー丁一
己二〇ー己三打馬
丁一包ー丁四將
丁十〇ー戊十
己七包ー辛七打馬

讀者社交室

▲苦學生諸氏게 問議하옵니다 小生은 今番苦學으로서中學이나卒業하올가하오나 苦學의經驗이無하오니 多少苦學에對하야 讀者社交欄에로通해下敎하여주심을 비나이다 그러고 京城市內에『칼톨會』라는會가잇다오니 그住所를가르처주시기바랍니다 苦學生 全北金堤 一讀者

▲本校音樂校長(西洋人)의 秘書一人을求하오니 左記條件을具備한이로써 希望하시는분은自筆履歷書를보내시오
一、英文書信 英文飜譯에能한이
二、朝鮮文及國文에相當한素養잇는이
三、音樂에常識잇는이
四、事務處理에手腕과責任心豊富한이
梨花女子專門學校 朴慶浩

▲寧邊妙香山持曆生兄…五月二日付本欄에 京義線金郊生氏에게 通寄하옵신것을 엿듯고 못사오니 明治四十一年二月十八日(陰曆)은 陽曆으로 何月何日에該當하올지 兄이가지신朝曆五十餘卷中에 좀、차저보와주시겟슴니까? 끄르로吾兄의健康을비옵나이다 咸興府朝日町 崔光震

★曆★

六月十二日(金) 陰曆丙子四月小 (廿三日)
乙丑・金・婁・危
●祭祀에宜함
●小滿二十一日(舊四月一日)
●芒種六日(舊十七日)

皮膚チヤージ

理想的인이靈藥은 現代人의皮膚美를發揮!

顯微鏡으로 본皮膚病

엇더한조고만한 皮膚面異狀이라도 顯微鏡으로보면 소름이기치는 怪態의 微菌이나 寄生虫이욱실욱실하고잇는것은 놀내지안코 견될수업는것입니다。 더구나『가렵고』『아픈』程度면、微菌의數는 더욱만코 皮膚病도相當히進展된 것으로 보지안어서는안되는것입니다。

×

皮膚의表面에 附着한微菌은、毛細管이나 가장적은 間隙에서、深部에 深部에로侵入하야 眞皮의內部에 繁殖하게되는것입니다。 眞皮의內部面에는 神經이 通하야잇는바、『가렵다』고알게쯤만되면、 眞皮가 犯해워서、神經에 刺戟을 주게됨으로써입니다

×

皮膚チヤージ 가理想的靈藥인까닭

그效力에잇서는疑問되는點이만슴니다 그러치만 이皮膚チヤージ는表皮眞皮를 通過滲透하야 內部에깁히숨은病根을 殲滅驅逐식히여깻끗한皮膚、爽快한 氣分을찻게하는 새로운 이藥의特徵을分析하면

A、殺菌力이强大
B、滲透性이强大
C、刺戟性업시殺菌
D、染色臭氣찐득이지 안는

皮膚藥으로서의 이런四大條件을具備한 現代的理想藥인것은 愛用家로하여금 自信잇는 信望을거듭하게하는것입니다

皮膚チヤージ 適應症

근질근질한皮膚病一切・痒疹、水虫、頑癬、陰部癬、汗疹、糖粃疹、面疱、吹出物、毒虫害

─使用法─

藥液을 붓에바르던지、綿으로 患部에문지르면되는것。

=藥價= 三十錢・五十錢 一圓・二圓・三圓 全身用 五圓

從來의皮膚病藥은 化粧水와 大同小異하야 效力이薄하며 使用에不便한끈적거리는 膏藥用도잇지만이런類의 藥은 오히려衣服이나外容을더럽힐뿐아니라

本舖 株式會社 山崎帝國堂 東京市神田區花房町

朝鮮代理店
京城南大門通 新井大藥房
京城本町四丁目 木村大藥房
釜山辨天町 大黑南海堂
釜山辨天町 藤田大藥房
各地有名藥店에서販賣함

六月十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半) 特別大興行
京城撮影所超特作映畵 李銘牛監督作品 朝鮮映畵全發聲日本版 洪吉童傳 續篇 李慶善、李錦龍、李鍾哲、鄭崔、金眞圭 主演
◆伊太利A・C・I超特作映畵 말타에겔트 산드로팔미에리 主演 面影
◆佛國토비스社超特作映畵 G・W・파부스트監督作品 上에서下까지 토비스社의精銳를網羅하야 [illegible] 名喜劇이되다
(次週封切) 鄕愁、 정열의王者 [illegible]
映畵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若草映畵劇場 (電本五一二五四番)
九日ヨリ十三日迄超豪華篇封切 各等大人五十錢學生三十錢均一 次週十四日ヨリメトロ社『猛獸師の子』 P・C・L『あきれた連中』
─今週の番組─
パラマウント本年度代表作日本版 Gウーマン ウイリアムK・ハワード監督 シルビア・シドニー大熱演 かりそめの戀の相手がギャングであつた許りに煉獄を行く若き女の運命!脫走する女囚を繞つてGメンとギャングの硬熱火を吐く大市街戰!
パラマウント超特作日本版 花嫁の感情 ウエスレイ・ラッグル監督 クローデット・コルベール フレッド・マクマレイ 主演 爆彈の樣なさかひチョロレーのやうな甘美な雰圍氣!さうした若人の戀の戲れが初夏の宵にかすかな胸のときめきと昂奮を覺えさせます!
P・C・L特作オールトーキー 夏目漱石原作山本嘉次郞監督 坊つちやん 宇留木浩・夏目初子主演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話光3 三一番
六月十六日부터晝夜 東劇座公演
其間各地에서絶讚의好評을밧고오라온東劇座는巡業의길을미치고오랫만으로다음의名藝題와指目할演技로여러분을맛게되엿습니다
林仙圭作 時代劇『松竹莊의武夫』二幕 華麗하고壯嚴한이時代劇이야말로 東劇座舞臺가아니고는볼수업는大傑作品!百濟末葉의史劇에서取材한것으로丈夫의義憤을알니거든이劇을보라
出演 卞基鍾、李敬煥、宋海天、河之滿、崔仙、金英淑 其他東劇座올스타ー캐스트
金振門作 人情劇『魔都의天使』一幕 人間은누구나魔都에살고잇다 [illegible]
洛山人作 喜劇『來日은五百圓만』一幕 우슴속에서人間의애미운꼴을그린 諷刺喜劇
出演 朴昌煥、韓一松、朴英泰、金道日、李潤玉、金陽春 其他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龍 一三三番
六月九日부터大公開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正午開館 日曜祝祭日은晝夜二回公開 밤七時四十分始映
◇파라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天然色劇 로이드의牛乳屋 主演…하롤드로이드氏 아돌푸만쥬氏 헬렌막코氏
◇P・C・L超特作全發聲日本版 都會의怪異七時〇三分 監督 木村莊十二氏 主演 中野英治氏 千葉早智子孃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版 西部大活 씨、호는悍馬車 監督 잘수바ー그氏 主演 랜돌프스콧트氏 [illegible]

歷史的으로文物로 第一長安豐沛鄕

◇……郡勢一邑、二十個面으로 人口十六萬의巨郡

우리水原은 歷史로보아 中古郡邑으로 半島產業開發의 秘鑰을 잡은곳이며 風光明媚 天惠의 勝境을자랑하는 勝地이다 只今까지 正宗大王의 遺跡이 燦然하야 百有四十餘年後인 오늘날 우리에게 意味深長한 標榜을주고잇음이 非一非再이다 그러한中에 天然의 事物이 裕足하고 氣候가 溫適하야 多方面으로 將來가有望한 重要한地帶이다 往古로부터 온는 古蹟으로던지 現時로 施設된 諸般機關으로던지 小邑郡市로는求하야 볼수없는 地方이다 이러한 要地에 不器非才인 筆者가 敢히 新界의 一支廳을맡고 그職責을 다하지못하엿든 遺憾으로 慚愧의마음을 禁치못하는바이다

今般이 特輯으로써 우리水原의全貌를 紹介할計劃을 함에잇서서도 本是筆者의 無智와 또 그外에 여러가지 周圍事情으로 因하야 平素心中에 抱懷하엿든것의 半分도 하지못하게되엇에對하야는 참으로 永遠히잇지못할遺憾이다 그러나 이것은 後日의 機會를 利用하야 이遺憾의 抱懷를 秋毫만큼이라도 남김이업시 萬全을 期할가하는바이다 ◇寫眞은 筆者支局長李得宇

沿革及地理

水原은 高句麗時代에 비로소買忽郡이라稱號하다가 新羅景德王에 이르러 水城郡이라 改稱하고 郡太守를두고 高麗太祖時代에 南征에 勝利하야 郡人金七及崔承珪等이 歸順함으로부터 그 功을褒하야 州로昇格하야 水州라 稱號하고 知州事를 두엇스며 同成宗時代에 다시 郡鎭使를두엇다가 穆宗에 이르러이것을 罷하고 顯宗九年에도로 水州로稱하야 知州事로 變更하얏섯다 光宗十六(一說에는元宗)때에 副使安順(一說에는安悅)으로하야금 蒙古軍을討平하라 命하심에 드디어 出戰한結果그 軍을 一擧討平歸順하얏슴으로 이功을 表하야 都護府(都護府使)로 昇格한後 또牧使로 陞進하얏섯는데 忠宣王二年에牧使를除하고 府로逆降한뒤 또다시 恭愍王三十一年에 紅巾賊(胡吏)이 楊廣道에 侵入하야 府民의 形勢는漸次阻塞하고 賊의勢力이 隆盛하얏슴으로 郡을 逆降하여 知郡事를 두엇섯는데 그후 다시 府로復昇하야 府使를 定하시고 城廓을建設코자하든前夜에 뜻하지도아니한 天候는突然히 白雪이皚皚하야 一面의銀世界를일우엇든데 王께서 八達山에오르사 雪景을 眺望하심에 異狀스럽게도 白雪이八達山周圍만이 降雪이고 其他에는降雪된 자취도업슴으로 이것이正히城廓의區域을 八達山脈으로 局限하라는 天命으로生覺하시고 積雪의區域을城廓의 境界로行宮의營造와 城樓의建築을實施하사 行宮北東에武衛(都行政官廳)를建設하시고 漢南이라稱하시며 府城이라命하신後도다시 華城이라稱하시다가 正宗十二年 戊申(李朝開國三百九十七年 只今으로부터百五十年前)十月二日에비로소 水原郡이라改稱하얏는대 只今은다만 그衰廢하야가는 古蹟이凄涼하게 그往古(特히正宗)時代의歷史를 말하는듯이 또는主人오기를 기다리는듯이 萬苦를겨리까지아니하고 嚴嚴히 서잇슬뿐이며往古를말하던 그古蹟도벌서자최조차 업서진 古蹟이 實로그數를 알수업다 우리水原郡은 京畿道南西에잇스며 京城으로 南隣路八里九町鐵路二十五哩八鎖로東으로 龍仁郡界 西北으로는始興郡界 南으로는 振威郡界 西으로는 黃海 東經百二十七度 北緯三十七度의位置로 東西十一里 南北九里 面積은 五十七方里二四의 全郡一邑二十面二百七十七個里로 一周里程은 實로 四十四里에達한다

水原地

既設機關으로본 水原地方의現勢

△行政

△行政=行政機關으로는 現下 어느 地方을 勿論하고 다가튼 範圍內에서 治政한다 하겟지마는 우리 水原地方으로서는 往古로부터 오는 歷史가 他地方과 特異한 點이 만히잇기때문에 行政機關으로도 施設되지안흔것이업다 우리 水原地方은 조곰만 더 活氣를 가젓든 地方이엇스면 帝都가 되엇을 都市이다 實上으로는 帝都라고하여도 過言이 아니겟시마는 前述한바와가티 正宗의 運命이 短命하시엿기때문에 政事機關만은 全部 施設이 되엿스나 悲慘하게도 그대로 無冠之都가되고말어버렷다 그러나 그構造만은 現下 朝鮮의 首都인 京城과도 大同小異이다

現下의政治機關을 말하자면 郡行政으로 郡과 稅務署를 비롯하야 一邑二十個面으로 區域이되여 어느 村落을 들어가든지 郡行政上 不便한 點이 조곰도 업시 圓滿하게 施行케되여잇스며 一方으로는 郡農會가 創設되여 農繁하던 우리 水原郡一般産業發展에 細密히 指導方針을 樹立하야 積極的으로 奬勵하야온結果 産業發展上 하나도 不足함이업시 順調롭게 進行하는中 한層더 農事試驗場이 中에하야 農事改良과 其他 一般産業에 無比의 模範을 주고잇스며 司法官廳으로는 水原署가 斗柄이되여 事件發生을 豫防하고잇스므로 우리 郡民을 들어말하면 一般的으로 良順하며 地方이 地方이엿섯더니만큼 各其自己의 精神을 가지고잇다 이와가티 意味深長한 歷史를 가지고잇는 地方이므로 郡長官으로 色다른 사람으로는 到底히 圓滿한 行政을 施行할수가 업섯슴을 맛본 當局으로서는 수年부터는 우리 水原地方을 開

……하는兒童을본다만 實로寒心할일이다 이것이 언재나 學校가兒童오기를 기다리고잇슬가 現在施設된敎育機關의 狀況을들어말하면 普通學校가 十八校로 敎育者九十六人에 學級數八十九學級兒童數六、一七九人이며 私立初等程度學校三校로 敎育者二十四人의 學級數十九學級兒童數一二六三人이며 公立尋常小學校四校로 敎育者十五人의 學級數十四學級兒童六百四十五人이며 農業實修學校一校로 敎育者二人의 學級數二學級 生徒三十九人이며 簡易普通學校五校로 敎育者四人에 兒童三百人이며 學術講習所가 十四個所로 敎育者十五人에 兒童三百三十五人이며 私立幼稚園이 四園으로 敎育者五人에 園兒百十七人이며 私立書堂六十五個所로 敎育者六十七人에 學童八百七十三人이며 水原高等農林附屬實業補習學校一校로 兒童十人이며 (敎育者는高農敎育者)同附屬實業補習學校敎員養成所一所로 (敎育者는同上)生徒數十一人이며 女子蠶業講習所一所로 講習員四十人이다

中等程度로는 水原農業學校가오는七月一日부터 開校되여 生徒五十五人을 募集하게 되엿스며 專門程度로는 水原高等農林學校一校로 敎育者四十五人에 生徒數百九十三人으로 每年다가티 順次로 우리實社會에 進出하야萬方으로 役軍이되고잇다 中等과 專門程度의 敎育機關은 一校式이니 다시말할必要가업스며 初等程度의 敎育機關을 校別로들어보면 다음과갓다

區分	創立月日	敎員數	學級	年限	兒童數
水原公普	明三九、[illegible]	二三	二〇	六	一、二三二
烏山公普	大一〇、[illegible]	一三	一二	六	[illegible]
南陽公普	明[illegible]	八	八	六	[illegible]
八灘公普	大[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水原遞信事業 沿革에對하야

水原郵便局長 佐佐木繁雄

往昔韓國時代에 郵便制度라하면 驛關相互間에 往復文書의 逐達에不過하얏섯스나 明治二十九年日本內地人을 郵便顧問으로雇聘하야 日本郵便條例에 依하야郵便規則을 制定하고 비로소不完全하나마 近世的 郵便制度의創設을보게되엿엇다 그後幾多의變遷을經過하야 着着改善向上하얏스나 亦如是그成績은 不振狀態에잇섯다 明治三十七年二月 日本政府와 韓國政府間 日韓議定書의 交換이잇슨後 韓國政府는 形便에依하야 그通信事業의 經營을 日本政府에 委託하게되여 明治三十八年四月 韓國政府의 通信機關에 關한 取扱事務를 交換하고通信事業의 管理를 委託케되엿다 水原에對한 通信機關은 前述한바와가티 政府方針에 依하야明治三十八年六月十二日 朝鮮郵遞司及電報司로부터 引繼하야 京城郵便局水原府出張所를 設置하고 郵便、電信、市外電話、爲替貯金의 業務를 取扱하여오다가明治三十九年七月一日附로 水原郵便局이라 改稱하야 오늘까지이르럿다 其後地方民度의 發達에依하야 漸次 通信機關利用者가增加하며 一面政府에서는 地方經濟의 發展과 文化의 向上에酬應하야 施設改善의 方針으로明治四十四年 十二月十五日附로市內電話交換事務를開始하야 一般市民에게 唯一無二의 便益을圖하야오다가 昭和四年十月一日부터 簡易生命保險事務를 開始케되여 全朝鮮的으로 比較的優秀한 成績을 내이고잇다

水原郵便局의 槪況뿐이고 水原郡內의 通信機關으로는 水原郵便所를 비롯하야 水原驛前郵便所、陰德面에南陽郵便所、鄕南面에 發安郵便所、城湖面에 烏山郵便所、雨汀面에 朝岩郵便所、安龍面에 安寧里郵便所로 郡內中心地에 全部施設되여 地方發展에 元動力이됨은勿論이요 各所事業의狀況은全般的으로 堅實한 進步로逐年發展의 趨勢를 보이고잇다

△交通

△交通=往昔에는 水原뿐만이 아니엿고 全朝鮮을 들어 거의全部南船北馬의人肩馬背로 勿論生存競爭의 勢力도잇섯겟마는 모다가 平和狀態라고 보지안흘수가업섯다 그러나이것도 小人口和平的時代의 일이엿스며 文化가向上되고人口가增加되여가는事態에는 到底히平和的時代의交通으로는 絶對不可能할것이事實이다이와가티交通機關이發達됨에따라 生存競爭은얼마나極度에達하얏스며 愛至重至하는人命은 얼마나無慘히도업서젓는가 實로그數도헤아리지못할것이다 그러면이交通機關이發達됨에依하야 人生의價値는 말할수업시 低落되엿고 그反面物價의 狀은 참으로 悲慘할수밧게업다 우리朝鮮半島는日淸、日露兩役의波瀾曲折을契機로 明治三十二年에는 京仁線一部營業을開始하고同三十七年에는 京釜線開通이되엿스며爾來 國鐵及私鐵의澎漲力은文化發達과産業開發의 一大動脈으로逐年二百三十키로式 延長增加되며 인푸레－景氣 滿洲國이建國됨으로因하야日滿經濟블럭 軍事的重要工事關係로 記錄的鐵道黃金時期는何人이라도是認하는此際에우리 水原交通을 一瞥하건댄大京城及 仁川等 重要都會地에隣接하야 京東線의 中繼地이며山紫水明한 自然의景致地임으로旅客貨物의 輻輳混雜은 期必事이라 此等輸送을 緩和키爲하야本線旅客列車 三十回 貨物列車十回 京東線 水原驪州間 十四回 華城中央、京水等三自動車會社의 運行이 五十餘回其他 주려往來가 繁多하야十二分 刻苦經營에 努力을하나 奈何리오 一年間人口가 百萬名이나 增加되여가는 非常現狀에 比較看之하면 오직 不足의感이 不無하다 政治上國策의 發動과民衆의 渴望으로不遠間 軍浦場、水原間 十二키로의 復線工事를 計劃하야列車回數를 增發코자當局에서 生覺하며 多年地方人士의 懸案이던水仁線 五十四키로及 京東線驪州橫城間 四十키로를 新設延長하야 地方發展의 重大使命을 圖謀하는同時에 江原、京畿兩道物產販路의 運輸機關完璧을 期하고잇스니 前途는洋洋하다 仄聞컨대 日本紡績工場이 水原平野에서 黑煙을吐出하기도 不遠이라하니 以上諸條件을 가진우리水原交通界는 眞實로 多事多幸하야 明朗히飛躍할을 疑心치안[illegible]

……의實成績을들어보면 다음과갓다고한다 (昭和十年度)

名稱	種類	員數	金額
水原驛	乘客	三二四、〇九九人	一三三、一六三圓
同	降客	三三一、八〇九人	
同	貨物	一六六、〇六七屯	六八、〇四三圓
京東	旅客	一〇七、七七七人	一〇三、八七九圓
同	貨物	五、八八三噸	一八、三五四圓
華城軌	旅客	一七二、四六一人	六九、三二一圓
同	運輸收入		七一、五五〇圓

△金融

△金融=예로부터 水原은 特殊한事情을가지고오느니만큼 個人에對한經濟이나 社會에對한經濟機關施設도 全朝鮮的으로드물것이다 다시말하면 內外의經濟가 相伴하야 엇더한事業이던지 一心協力으로 着手하면 成事치못할것이업는것이 우리水原社會의 經濟狀態이다 古今을莫論하고 萬事가經濟力이아니면 實現되지못할것이 事實이지마는 現代로는 더욱더 經濟에明眼치못하면 自身이라는 身을 남의압세세울수가업서되다 여긔를잘맛본 우리水原人士는眞實로 全朝鮮的으로模範할만한經濟界의 堅固한立志를가지고잇스며 一方으로는 游興氣分이濃厚한것도가트나 事實은自體의經濟를 充分히 남에게빼앗기지아니할만한抱負를가지고잇다 다시말하면我利我欲에發展되든곳도 우리水原이라고말하고십다 이러한地方이기때문에 일즉부터漢城銀行水原支店이 水原中心地에嚴立하야內外의經濟를 指導하야왓섯스나이機關하나가지고는 到底히充分한使命을다하지못하겟기때문에 殖產銀行水原支店이 創設케되여萬般의使命을 充分히하야갈으로秋毫만큼이라도 구개입이업시 一般商工業에大發展을 計畫하고잇스며不遠한將來에 前途洋洋한 產業地帶로轉向될것도 期必할바이다 또 一方으로는 小商工業者又는農村啓發의 一大使命을 가지고잇는 華城產業株式會社와 水原金組 華城金組를비롯하야 郡內各主要地마다 金融組合이 施設되여 하나로부터열까지 細密한計畫樹立으로 產業獎勵에積極的으로指導하고잇스니 躍進相의水原이아니되지아니치못할것이 事實이다 그金融機關別로들어成績을列記한다면다음과갓다고한다

區別	預金(圓)	貸付金(圓)
殖產銀行	一、六九九、五五三	[illegible]
漢城銀行	[illegible]	[illegible]
水原金組	三六〇、八六六	二〇六、三七一
華城金組	二四二、〇五五	四二一、八七五
南陽金組	九四、九七七	一五九、一三〇
沙江金組	五八、五六一	三一一、〇一三
發安金組	一四七、一四五	二六六、九四一
烏山金組	一四五、四八一	四〇三、〇五一
烏山第二金組	一一〇、三七一	三〇八、〇六六

前記以外에東拓과 共濟無盡株式會社水原支店이잇서 東拓은大地主로 小作人의融用資金은 勿論이지마는 一般商工業者에게까지 極低利로 貸出하야 줌으로 商工、產業發展上 至重한 使命을 가지고 銀行과 取扱方法은 다르나 그 實績은 眞實로 莫大하다 그리고 共濟無盡은 半額金半貸出의 使命을가지고 水原

實業界의總觀

水原의 實業界를 말하자면 簡單하지 先 歷史的으로 考察을 要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겟다。距今 二百年前 우리 水原은 一個의 寂寞한 農村으로서 모든것이 天壤之間이엿섯다 한다。그러다가 乘華의夢를 맛난 우리 水原은 그때로부터 五十餘年後 李朝正宗大王께서 花山에 王陵을 모시게 되시자 그卽時로 水原에 王都를 建設하시고 四大門을 建立하신것이 오날 우리 水原을 만든 最初의 主原이라고 아니할수 업는바이다 그러하야 그常時에는 經濟的機構가 半農勢이요 半封建的領域에서 脫却되지못하야 農商工業을莫論하고 全部가小規模的의 아이들의손장질과가다야 所謂 工業으로는手工業이거나 家庭工業에不過하엿섯다고한다 그러나 한가지 特長한 點은 金融資本의 畸形的發達이엿다 다시말하면 一般市民의 資金業만은 全鮮的으로 模倣할만큼 膨大하엿스며 지금까지도 그 遺跡이 남어잇다 그러다가 時代의 推移하야 오는 朝鮮의 經濟를 따라 水原의 實業도 創始期的發展을 보게되여 封建的經濟領域에서 資本主義的經濟組織으로 躍進하야 百五十年前 正宗大王當時에 勃興되고 잇든 手工業의 家庭工業이 工場工業으로 形態를 轉換하야 株式會社『떼빠트』各種商品市場으로 工場等은 實로『싸치키라意』一大의 革命을 보고잇다 그中에도 全鮮的이오 特殊한것은 種苗界로서 他地方으로서는 보지못하는 飛躍的發達을 보이고잇다 그러고 其他織物界도 逐日發展하게되여 最近에와서는 外來資本의 侵投가 激甚하야 昨秋 엣南北綿業株式會社도 不遠한 將來에 日本紡績等의大工場이 林立하게되엿스며 水原平野北部에는 半官制인 製絲工場이 新天의 鐵炎로 활공하고를 吐하야 水原實業界의 空氣를 一層 緊張하고잇다 이와가티 今日水原의 實業界는 質的으로나 量的으로나 急激한發展을 거듭하야 實로 資本主義的 發達을 보하고잇다 그러한데다가 北으로는 朝鮮의 首都인京城이 鐵道로는 二十里에 不過하며 七里에 仁川港을 控하야 實業界의 權威를가진 經濟가 自由自在로東으로는 龍仁 利川、驪州等으로 安城、振威等 各地商業界에 中繼地가되여잇다 그러고보니 急激한 偉大한 伸展을 못하지아니치 못하게될것도事實일것갓다 그우에 또天惠之沃土로 地質이 肥沃하야 一般의 産物이 豊富하며다가 全市民의 熱誠이 眞實的이요 打算的이니 將來우리水原은 現在以上의 伸長을 볼것을 期必하는바이다 現水原의 實業機關을 列記하면 다음과갓다

◇印刷業
中央印刷所
東一印刷所
近藤印刷所
文化堂印刷所
水原印刷株式會社

◇種苗業
萬盛園
富農園
八山商會
水原苗圃

◇農場業
東山農事株式會社
東洋拓殖株式會社
方農場
合名會社園武農場

◇穀物介
株式會社第一社(金融業兼業)
水原穀物商會
振興商會
水環穀物同業

◇精米業
金澄商會
殖產精米所
丸社商會(精米工場業)
寺神精米所
光明商會

◇釀造業
水原釀造株式會社
花山釀造
豊榮釀造
南陽釀造
半月釀造
烏山釀造
發安釀造
雙阜釀造
寶永釀造
入灘釀造
勤善釀造

◇織物業
水原商會
朝鮮生業組合

◇和洋品業
萬盛商店
華城商會(綿布兼業)
和信連鎖店
加茂商店
不二屋

◇綿布業
德昌商會
新興商店
洪思業商店
世一號布木店
神崎吳服店
三和商會
興信商會
廣信商會
振興商會

◇食料品業
中原商店
松尾屋

◇木材業
水原消費組合
篠崎商店
新井商店(金物商兼業)
水原材木商
共信商會

◇運送業
⊙運送指定所
三運送店
運送店
運送店

◇娛樂機關
株式會社第一館
永樂館
日月館
迎賓館
一二三
富司亭
樂興樓
一興樓
同興樓

各界重鎭의抱負

官民이一致協力 生活改善에邁進

水原郡守 宋文華

水原郡은 往時觀察府를 置하고 京畿一圓을 管轄하얏스며 李朝 世祖時代에서 鎭營을 置하얏고 正宗大王은 山紫水明하며 平野가 廣開肥沃함으로 首都로 好適地라하야 遷都의 計畫으로 城廓을 築造하고 實現치는 못하얏다 하드라도 古色이 蒼然하며 其遺跡이 歷然하야 歷史的由緖가 깁흔바 叙上과如히山川이 秀麗하야 八達山의 翠松이며 華虹門의 淸流며 訪花隨柳亭의 龍淵이며 華寧殿의 芍藥이며 西湖의 杭眉亭이며 花山의 龍珠寺를 爲始하야 名所古蹟을數擧키難할뿐아니라 農事試驗場과 高等農林學校가 잇슴으로 千客萬來의 觀光團이 不絶하고잇다 大正三年 郡廢合以後로 今日에는 一邑 二十面으로 約五十七方里의 地域이되여 人口十六萬의 大郡이다 產業의發達이 日進月步하는 途程에잇스되 京城과 八里九町의 距離에 不過함으로 商工의發達은 大都市로 集中됨으로 그影響으로 오히려 前途가 遼遠하다할수잇스며 農業方面으로 考察한다 할지라도 半島의 產業開發의 關鍵을 把握하고 잇다하야도 過言이라할수업는 農事試驗場이 잇는 本郡으로 그發達이 오히려 遲遲하다고 볼수잇다 그럼으로 우리水原地方人士는 새로운 覺醒을 要할것을 思料하는바 水原邑으로서는 都市計畫을 進行하야 不遠將來에實現할것이오 또는 日本紡績會社의 工場이 設置케되야 商工業界에 一大活氣를 想起하며 道立甲種農業學校는 設置準備工作이 完了를 告케되야 本年內로 生徒를 收容케될것으로 敎育機關의 充實을 볼것이며 農村으로는 昭和七年秋부터 振興運動을 唱導한以來로 官民이 一致協力하야 그目的達成에 一路邁進하야 農業의 改良과 生活改善에 힘씀으로 豫期의 成績을 擧揚케됨은 甚히 欣幸할바이다 (사진은 宋文華氏)

工業方面에 研究를加하야 地方의發展을 促進하도록 投資하야 大衆의 일터가되도록 努力하여 주기를바라는바이다

(五) 觀光水原의施設 天惠와 人工의 勝地水原은 春夏秋冬의 眺望何時든지 絶對의風景地로年年히 觀光客이 增加하야 오는 惟一한 景勝地이다 (◇사진 梅原靜雄氏)

教育과衛生

申鉉益

옛날가트면 水原에도 자랑할만한것이 相當히 만헛다 假令 開國四百四年에 正宗大王께서 遷都의 大計를 세우시고 築城造宮하신것과 그後로는 觀察府를 비롯하야 重要한官衙와 必要한 施設이 櫛比하야 文化로나 經濟로나 半島의 心臟地帶이어던 것등이다 그러나 오거서 王都도 夢이오 時代는 모-든施設은 影子조차 사라저서 城址를 밟고 花山을 바라보는 行客으로하여금 부지럽시 손수건을 적시며 가슴을 만지게될뿐이라 滿山花謝王家事오 五百年榮片夢春이라고 읍조려진다 이제 구차하나마 現狀에서 紹介할만한것을 들추다면 敎育과衛生方面일것이다 敎育機關에 잇서서는 朝鮮에 唯一한 高等農林學校 農業敎員養成所 女子蠶業講習所가 잇고이번에 新設된 甲種農業學校는 적어도 다른農校의 追隨를 不許……

……秀明媚한 名勝地이며 山紫水澄한 生活擁養의 理想的住宅地이다 이러한 求之不得의 地理이기때문에 人物의 質도 一般的으로 美麗하다 숲는 새암이 간곳마다 豊富히 食料에 最適하며 水原平野에서 쏘다지는 食糧은 無窮히도 그品質은 比할곳이업슬만큼 好質의 到處에柴炭亦是 俱備하게 豊富하니 出生하는 人物도여기에따라同樣할것이 事實이다 그러기때문에自今으로二十五、六年度까지도 現道立醫院의 施設뿐이엇섯고 그外에는 醫療機關으로 볼만한것이업섯다 그리하야도다가 漸次文化가向上이되고 一般施設의風潮에따라十五、六年前以來私設醫療機關으로도公設그것以上으로 內外充實한 醫術과完備한 器具오堅實히躍進하는 現狀이라 그럼으로우리人生治病의 各科目으로하나도 缺陷되는바이업시 엇더한難關의病魔라도 短時日에治療할수잇게되엿다 現下施設된醫療機關을列記하면 道立醫院、水原醫院、泰和醫院、東華醫院、白鳥醫院、尾崎醫院、八山醫院、李昌鎬齒科醫院、鐵路齒科醫院、尾島齒科醫院等이잇고 二層洋屋의入院室까지完備되여 何時이던지 患者의隨意로入院治療케되엿스며藥房으로는 濟生堂藥房、東亞藥房、松永業房、一三堂藥房、今村藥房이 洞里마다잇서 各其藥劑衛를가지고언제던지 製藥하게되여잇스니因病으로非命으로死亡하는人口는極小하고出生하는人口만日增月加하다 何方面으로보던지 자랑거리며 따라서 大發展을 이루지아니치 못하겟다 또그뿐만 아니고水原邑을떠나 城湖面烏山에는 中醫院이잇스며 後場面과 鄕南面에는 南陽(後場面)、發安(鄕南面)의 兩公醫院이잇서 農村山谷까지 徹底한 醫療의救援을 밧고잇는바이다 이와가티醫療機關으로 完備되곳도 全朝鮮을通하야도 드뭄것이라고 밋는바이다 水原의醫療機關을 代表하야 道立醫院을紹介하고자한다

京畿道立水原醫院

本道立醫院은 明治四十三年全朝鮮第三位로 設置한 光輝잇는歷史을가진 醫院이다 그所在地는 八達山東麓舊觀察道廳(行宮)잇든곳으로 風光明媚 空氣淸澄하야 外來館은 堂堂한 煉瓦建物로設備도充實하얏스나 本年三月부터 다시多額의 道費로써 病室의大改築을斷行하야 오는七月로써 竣工할豫定으로 이것이 完成된後에는水原의 一大偉觀을 나타내일것으로 百餘名의 患者를收容할수잇게되며 그러한中에도 病室은 거의가다 一室一人으로採光通風의 더말할바이업시 또最新의 醫療設備等萬端準備를 堅實整頓하고잇서 患者에게一大福音이다 醫師의 配置도全部가 理想的이다

內科 小兒科 院長醫學博士 三木榮
醫員醫學士 對馬尾二
醫員醫學士 李泰宗
外科皮膚泌尿科 醫官醫學博士 金河植
醫員醫學士 折田千春
同 鄭虎容
產婦人科 醫官醫學士 佐藤正
助產婦長 小川キヨ
耳鼻咽喉科 眼科 醫員醫學士 富澤春雄
藥局 藥劑手 藥學士 水津俊介
同 淺井治
同 洪燮裕
レントゲン科 金道植
病理、理化學試驗所 具明亞
庶務科 課長 千葉德一郞

患者의 診療에는 上下의 區別이업시 誠實親切히 貧困者에게는 施療、無實力한者에게는 減額方法을 講究하야 救命에 專念함으로 一般患者로서는 救主와가티 思慕하고 잇는바이라하며實로水原의 자랑할만한 一大의存在라고한다

◇……代表名勝 華虹門

初等教育問題

三一學校長 金炳浩

水原을紹介함에잇서 무엇보다도 貧弱한敎育界에 더욱重要한다는데對하야는 그뜻이어데잇슴을 짐작하게될때에 紹介자計劃하야 가장難事인 이事業을 일음에는 滿腔의同情과 感謝를表하야 마지안는바이다 우리水原은 新聞으로서의充分한 機能을 다하기어려운同時에 이런事業은 經濟的으로서 더욱難事인까닭이며 特히水原의敎育界는 他地方에比하야 너무나뒤진대잇서 自己의短點을 自己가不知한다는點에서 가장바르紹介할바를 紹介한다는點이다 이제 적작무르신바에 依하야 세가지만 平素에생각되엿든대로 써볼가한다

첫재 敎育界에선 우리로서는 責任感을 좀더 늣기자는말이다 우리들이 마라指導하는 兒童들의將來를 생각해볼때는 너머나 그ㅡ責任이목업고 큰것에놀라지……

五十當年活動家

水原郡守 宋文華氏

氏는 明治十九年十二月 驪州에서 出生하야 일즉부터敎育界에 獻身努力하야오다가 大正九年八月에 비로소 官界에出向하야 朝鮮總督府道屬으로 任命하자 道學務課에 勤務한後 官界各方面에서獨特한手腕으로 多大한 功績을싸엇고 大正十三年十二月에 朝鮮總督府郡守로 榮進하야 江華郡守로 昭和二年三月엔 廣州郡守로 同五年九月에楊州郡守로 同十一年一月에 水原郡守로 榮轉한분이라는데 氏는 本是 活躍의大手腕家임으로 水原으로 榮轉하든 첫날부터 一般市民은 同氏에對한 企待가자못컷다 그러하던中 벌서半歲의 功績은 엇더한가 其中一二의實績을들어말하면 敎育方面으로水原農業學校를 創設코자 經費問題에對한 만흔波紋을 單獨의熱誠으로 圓滿히解決식히여 未久에 開校케되엿스며 또工業方面으로 日本紡績水原工場設置誘致問題에 直接率先하야 交涉員을派遣하야 具體的으로 打合케한結果 前記會社는 一千萬圓의 巨額을投資하야職工三千人을 所要할工場을 新設하기로 하고 同工場 設立期成會를 組織하야 工場敷地買收其他 一切準備에 最善의努力을다하야 우리水原社會에 萬般으로 發展策을 圖謀하며 猛進하는 五十壯年의 大活躍家로前途가 洋洋한분이라고한다 사진 宋文華氏

健康第一主義

八灘公普校長 宮本伊之吉氏

氏는 明治二十七年 鳥取縣高郡出生으로 大正六年 同縣立師範學校를 卒業하고 日本內地에서 오래동안 敎育界에 努力하다가 昭和五年五月 朝鮮에건너와 安城公普에서 勤務 同七年四月 一竹公普校長으로 昇進하얏다가 同九年四月에 八灘公普校長으로 轉任한분이라는데 氏의 敎育上 方針의 特性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個性尊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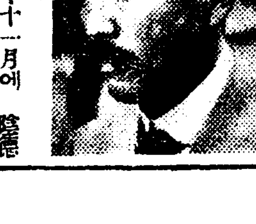
自己의 마음에하고십다고 生覺되는바가 잇스면 그를 全길것이어서 善惡을勿論하고 實現하여라 그實現되는곳에는 純眞한 兒童이니만큼 그立志를 實現한대로 敎養할수도잇스며 指導할수도잇다 여기에서 비로소 敎育者의힘이 必要케되고 그兒童에對한 個性의特徵을 알게되며 따라서 自己의 第一希望하는바로 敎養식힐수가 잇게되다 가량 例를들어 말하면 싸홈을 잘하는 兒童이라하면 그返面엔 반다시 美點이잇다 그 美點은 들어보지 안어도 알것이니 첫재 健全한 體質이다 만일健全한 體質이 아니라면 그兒童은 敎育식힐수도 업시되다 ……結果는 반다시 善惡이 잇슬것

烏山第二金組理事 川畑周藏氏

氏는明治三十七年三月鹿兒島出生으로 昭和三年 神戶高商을卒業하고 同七年朝鮮에와서 同組合創設第一世理事로 就任하야 組合立에熱誠을 努力한結果創設의時日은 淺薄하나 벌서同氏의不斷의努力으로 各組合員의 關心은 크다 同氏의主義는多角的農營의方針을 南國人特有의 熱情家임으로그主義는 農村과가티 實現……

面行政元老

陰德面長 洪承殷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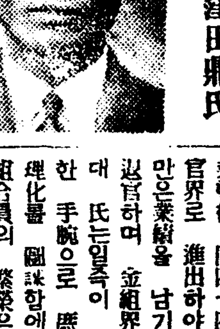


氏는 明治十五年十一月에 陰德面南陽里에서 出生하야 일즉이 京城靑年學館을 卒業하고 鄕鄰에 當地方敎育界에서 獻身努力하다가 大正三年四月에 京畿陰德面里面長兼楮八里面長、水只面長으로 面行政에 努力하다가 大正四年부터 實業方面에서 多年間 活動하던中 또다시 大正十一年二月 現陰德面長으로 大衆의推薦에서 赴任하야 面行政에 努力한結果 同面은 ……

……의推薦으로 大正八年二月에楊甘面長으로赴任한以來 溫厚한性德으로써 面治의努力한結果 本是貧困하든面民도 只今에와서는 매우樂觀的狀態에잇스며 其他實例를列擧하면 多大하나 氏의 功績을하나만을 紹介하고싶다 前述한바와가티 同面은極貧한面에區域亦是 狹小하야 무슨施設이든지 時急히 實現식힐수업섯는데 氏는 赴任當時부터 깁히맛보앗다 只今으로부터 十五年前卽大正十年秋期부터 五個月동안 繼續하야 每戶當每月五錢式 合計金二十五錢을 八百戶에게 據出케한것이 總計金二百圓이되엿섯다한다 이것으로써 敎育機關設立基金의造成코자하야 同面民에게 極低利로 一般產業資金에運用식히며 千辛萬苦로 昭和四年까지 꾸준히 불느고 내리오든結果 이것이 大業할만한 巨金四千三百餘圓에 達하야 氏는 面案을 實現할만한 資金이되엿슴으로 그卽時로 某有志와 打合하야 同年十一月에 現楊甘公普가 出現케되엿다 이를보든 同面民은勿論이요 附近面에서도 氏의 熱誠에 大感하야 누구나 感服하얏다 萬一氏의如此한 誠力이 아니엇든들 貧困한 同面으로는 一時多大한 寄附金을 據出키는 到底하고 따라서그敎育機關도 何時에實現될는지 莫然하다고 一般은말한다 이學校가 實現된後 벌서數百의兒童을敎養시키여 或은 實社會로 或은上級學校로 各各進出하야 그使命을 다하고잇다 이와가티 氏는外兼內富의事業을計劃하는분임으로 아프로도어떠한面案이 實現될는지 모른다고한다

溫順無缺한

[illegible]校長 窪田鼎氏



氏는明治三十三年 山梨縣出生으로 大正九年三月同縣立師範學校를 卒業한後日本內地에서 大正十五年까지 敎育界에서 努力하다가 同年五月에 朝鮮에와서仁川寺町小學校에서 勤務하고그後 다시 金浦小學校長으로 昇次하야 昭和八年四月本校第一世校長으로 轉任한분이다 同校의 一般準備가不充分함에도 그成績은 매우良好하야 學父兄는一般으로氏의獨特한 敎授와 實習指導에稱讚이 藉藉하다고하며 그將來는자못 企待된다고한다 사진 窪田鼎氏

華城金組理事 朝倉一彌氏

氏는明治十三年一月 新潟縣出生으로 同三十七年 日本大學을卒業한後 同四十四年에 朝鮮에와서 官界로 進出하야 十有餘年間에 만은業績을 남기고 大正十二年 退官하며 金組界로 轉向한분인대 氏는일즉이 官界에서 圓熟한 手腕으로 庶民金融界의 合理化를 圖謀함에따라 同組合과 組合員의 繁榮은 日就月長한다고하는데 同組合은京畿道內에서 第一區域이 廣大한組合이며 또 氏의非凡한手腕을 가지고 一般組合員의 指導統制를 하기때문에 如此히 廣範한區域業務外에 發安金融組合理事까지 兼務하엿다고하나 氏의 手腕은 對內對外的으로 빗나는바 잇스며 따라서 氏의前途에 만은企待를갓고잇다

烏山金組理事 伊藤重雄氏

氏는熊本縣出生으로 東洋協會專門學校를 卒業한後 大正元年부터 金組界로 出向하야 組合員의更生을 目標로하고 一般產業指導에 誠心竭力한 結果區域內의 產業은 現著하게 隆盛하며 經濟力은日就增進하야 全組合員의 生活狀態는 殆히豊足하야간다 同組合은 歷代의 理事로도 만은功績이잇섯스나 特別히 伊藤重雄氏에 이르러 斷然面目을 一新하야 堅實한 經營下에 一大發展을하엿다 例를들어말하면 昭和四年以來各部落에 相互連帶保證組를 만드러이를 單位로하야 養牛殖產獎勵를組織하야 統制的으로 今日까지指導하야왓기때문에 어느組合員집을勿論하고 農家에서 第一必要한 黃牛一頭는 全部所有케되엿스니 이것이얼마나 巨大한事業인가 이와가튼 事業이 非一非再임으로 一般組合員은 勿論이지마는 昭和七年金組大會엔模範組合으로表彰을 밧엇스며 始政二十五週年紀念엔宇垣總督으로부터 功績에莫大한表彰이잇섯던 분이며 따라서地方的으로熱熱한 信望을 밧는분으로 그成績은 日就月長하야 果然異彩의功勞가잇슬것이라고 一般은期望하는바라고한다

方紹介版

두엇다 이와가티 [...] 史를가지고오다가 李朝[...]年에이르러서는 都護府로 改稱하야오던後 世祖때에 鎭과判官을두엇스며 中宗二十一年에府民中 그父母를殺害한일이 잇서서 降等하야 郡守를두엇다가 同三十年에 復舊하얏스며 宣祖時代에府使와 防禦使를兼하얏고 顯宗時代엔 討捕使를兼置하얏스며 正宗大王即位하신後 父王莊祖大王의陵墓를楊州拜峰山으로부터 花山顯隆園으로 移奉하시고 다시父王의 哀慕戀戀의孝情에서 못처 遷都의 意志를가지시고近臣과 地理學士를命하사 現水原의地勢를卜하신 結果同地八達山麓이 廣濶하고 光敎山으로부터湧出하는光敎川(華川)이南으로滔滔히 흐르고 西北部는 沃野廣濶하야 農作에適當함으로 眞實로王都를建設함에 絕好한位置임으로 設計의大要는 光敎山脈으로부터 七寶山脈 千祐台山脈을 外郭으로 內郭은 八達山脈으로서 區域을

[...]歸하기 爲하야 朱文華氏의 地方長官이 政務를 잡게 되엿스니 施政方針도 우리 原地方에 適合할것이며 따라서 日將月長 開發으로 되라고 一般民衆은 크게 企佯하는바라고 한다 그都勢를 數字的으로 들어보면 다음과갓다

人口(昭和十年末)

行政區域	面積 方里	戶數	人口
水原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衡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儀旺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半月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梅松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峰潭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飛鳳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南陽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麻道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松山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西新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灘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長安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雨汀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鄕南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梁甘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城湖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灘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台章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龍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總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職業別(昭和十年末)

區分	戶數	人口
農業	[illegible]	[illegible]
工業	[illegible]	[illegible]
商業、交通業	[illegible]	[illegible]
公務、自由業	[illegible]	[illegible]
其他業	[illegible]	[illegible]
無職業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教育=本郡에對한

教育施設은 아직까지도 一面一校制가 完成되지못하엿슬뿐더러 現在設置된面으로도 그面內志願兒童數의 約三割밧게 收容이못되는 狀態로잇는中 一般向學熱은 日復興하야감에따라 逐年文化普及의 發展은보이고잇스나 배우고자하야도 배울곳이업서 彷徨

台章公普	[illegible]	[illegible]
三槐公普	[illegible]	[illegible]
半月公普	[illegible]	[illegible]
東灘公普	[illegible]	[illegible]
安龍公普	[illegible]	[illegible]
鄕南公普	[illegible]	[illegible]
正南公普	[illegible]	[illegible]
飛鳳公普	[illegible]	[illegible]
梅松公普	[illegible]	[illegible]
西新公普	[illegible]	[illegible]
峰潭公普	[illegible]	[illegible]
麻道公普	[illegible]	[illegible]
三一學校	[illegible]	[illegible]
三一女子普	[illegible]	[illegible]
華城學校	[illegible]	[illegible]

右外는 省略하며 年內로 一面一校가 完成할豫定인데 그開校될校名은 日衡、儀旺、雨汀各公立普通學校로 不遠間工事着手하리라고한다

△通信=通信이라고

하면 戰爭時代의通用되는바라고 筆者는 말하고십다 古昔을 追憶한다면 그다지 通信이업섯스며 그返面 아모文獻도업섯다고 보여진다 그러고도그時代的文化도 잇섯스며 泰平의政治도 잇섯다 그러고 藝術도 잇섯스며 武器도 잇섯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사이에 戰爭도잇섯다 이러하고도 萬端의 事業을 和平한 가운데에서 完全히하야갓섯는데 오늘에 와서는 往古에 보지못하던通信이 萬里라가든며 그우에도 數百里밧게것이라도 目前에잇는것과가티 相對케 되엿스니 極度文化의 生存競爭에 適

[...]의 商的인地位를 占領하고잇다 人生은누구를勿論하고 다各其平和를主唱하고잇스나 平和는 漸漸머러지고 닥처오는것마다 死線과死線이다 그러고보니 現代人類의부르짓는平和는往古時代의意義이요 往古的時代의意義은 現代的平和라고볼수잇다 다시말하면 現代的事業은 모다가假面의 自利的野心이라고 말할수밧게업슬것갓다 世界人口가眞實로平和를찻는다하면 예로도라가지안코는 平和의두글자도 어더보지 못할것이라고 말하고십다

우리水原은 예로부터 優秀한 名所로써엿스며 [...]의 勝地이며 京城과 不遠한距離에 位置를 가지고잇기때문에 交通機關으로 말하면 西湖五達의 何方面으로 出發하든지 正是스파ー트의行動을할만큼 各方으로 便利하게施設되여잇다 南北으로는 京釜線이 貫通되엿스며 東西로는 京東線이 이複貫되여 東西南北으로 高級運輸와 少量도 구개임이업다 그뿐만이아니고 北南、東西方方谷谷으로 一等、二等、三等 等外道路가 羅列되여 水原自動車、華城自動車、京水自動車、中央自動車의 四大會社가 時間을다투어 往來의旅客을 輸送하며 貨物取扱運搬으로는 京釜線과 京東私線이 深深山谷까지 每日數十次의運送이 잇고 個人經營으로는 京仁貨物自動車、青木貨物自動車가相互爭時하야 眞實로生存競爭의 一層 加味를주고 잇슬뿐아니라 이것도 不足하다고 金融、丸代、水南、花山各商會에서는 自家用 貨物自動車를 所持하고 往來客의 眼鼻莫開의 感을주게 하며 東奔西走로 飛躍的水原을 자랑하고잇다 그러고보니 이以上더便利한點이업슬것가하며 따라서 來客이 日增月加하야 人口는年年二、三千名式增加하여가니 現代의말로 우리水原도不遠한將來에 府로昇格될것은틀림이업스리라고 當地民衆은勿論이요 他方的으로서도 一大注目視하고잇는水原의交通機關이다 그中一二三

[...] 다 멀리臨接郡面까지 緊密하야 小資本으로 大資本을遂成하야가지고 各種의商工業資金을 調達하야 水原開發의 一分子로活躍新進하야 自體의責任을 敢行하고잇다

이와가티 우리水原의金融機關은多方面多角的으로 相互連絡이되여 합듯뎅이라도 뭉여진이업시 至重의寶石이되여 無窮한曙光의 水原의將來를 培養하고잇다

이에되더마 殖銀水原支店長安東政昭氏는 다음과가티말하야준다

殖銀水原支店長 安東政昭氏 談

營行으로 水原에 營業所를 設置한은 大正七年十二月二十五日이엿섯는데 昭和六年四月一日附로써 支店으로昇格한以來 滿十七年을 經過한 그사이 營業成績한 進展의士壽에 預金貸出은 年年共히 相當한增進을現實식히고잇다 이畢本年四月末 現在各種取扱營業科目殘高에依하야보면 預金總額一、六五九、五五三圓 公共貸出額七五五、二六五圓 産業貸出額三、〇八五、四四二圓 商業貸出額四九五、八五六圓으로 現在에依하야는 商業金融方面에比하야 그다지大數로는보지못하며 産業金融에主力을傾注하야 進行中인데 今後京東鐵道 水仁線의開通이 不遠에在하며 또地理的 關係等에 基準하야 漸後로는 當地도 商工業地帶로 相當한發展을期待하고잇는 職能엔 商業金融에 對하야서도 可及的進展을 期必하고잇는바이다 이러하기때문에 從來로서는 當店의 本來使命에 鑑하야 地方産業開發에 多少의 貢獻이 잇다고 밋는바이나 今後로는 一層더 微力의 誠意를 盡하기 爲하야 金利의 引下를 斷行함에따라 地方産業低利資金을 一般的으로 普及식히여 最善의 努力으로서 斯界進展의 根本的으로 獻身할 方針이라고한다。

△醫療=現代의

[...]리라고잇는다 그것은 元來地利와水利가 조흔데다가 農事試驗場、蠶業試驗所、高等農林과 가튼 方面을끼고잇기 다 도한가장 理想的敎育機關으로 都會地도아니요 農村도 아니며 交通도 交通便利하고 衆하야 風紀를 保護할수잇는곳이라고하야 안흔 將來의 敎育的理想鄕이實現되리라고밋는다

衛生方面에 잇서서는 自主로 健康地이여서 長壽하는이가 만흠으로 一年一次 高齡者表彰에當에는 如干七十老人은 참예하기어렵다。

傳說에 水原사람은 赤身三十里라하며 解釋하되 人心이 사나워서 깍대기 벗겨도 三十里는 다라난다고 한다。

그러나그것은옛말이요 오히려 사람이새해서그런것이 아니라 身體가健康하고 勇猛이過人한所以라고하겟다 이외가티稱할만傳說이잇슬만치 健康增進인中에 近來에는 公私立醫療機關이 擴充되야 人口千人에醫師一人이라 日本內地의 一千六百人에 醫師一人이比率보다도 훨신조흔狀態이다 健康이人生幸福의 根源이라지만 더구나 우리에게잇서서는 唯一한資本이오 武器이다 이것이잇슨然後에 百折不屈의精神도잇고 勇往邁進의努力도잇슬것이며 生存競爭도잇고 自力更生도할수잇다 이精神과이힘을 가르고 자랑하기에適當한天與의惠澤이豊富하고 모ー든施設이充實함은 엇지水原의자랑뿐이라 部分的이나마 우리社會의多幸이라고하겟다

水原發展의要諦 五個施設의急務

水原邑長 梅原靜雄

回顧하건대 今日 水原의 發展은 他都市에 比較하야 甚히 뒤진感想이 不少하다 百四十餘年의 엣歷史를追想하거나 또天惠之深 이를富한 水原의地理를 觀察하면 우리는 大水原을建設함에 全力하지아니하면 아니되겟다는것을 痛感한다 그러나只今으로부터 水原은 一大躍進의氣運이 膨脹하야 眞實로 前途洋洋한 都市이다 水原의 發展을 策하야 百年의大計로 施設할 事業은 十指를 屈하야 計畫할 事業은 그가운데에 尙不足이지마는 그가운데에서 緊急한 施設又는 急要한것가지를 例擧하면 다음과갓다

(一) 市街整理

市街의一部는 整理되엿다고보겟스나 目睹하는바와가티 裏道와 連絡道路는 舊態의 形狀그대로잇는곳이 아직도만타 이것은交通上으로보던지 商業上으로보던지 一大不利不便으로 家屋을建築함에도 支障이 莫大하다 그러한데다가 또下水溝의 不完全으로 衛生上으로보아도 하로速히 改修의 必要를 기고잇다 이를遺憾으로 여겨오던 水原邑은 援衛者를 設置하고 市街計畫을樹立하고잇슴으로 不遠間具體的인立案이되여 事業이 實現될줄로 생각하는바이다 그러면 市街地計畫令의 適用을바들이 急務이며 또土地區劃整理에 依하야 新市街을만들어 人口增加에 支障이업시 地域을 擴大가 絕對必要되여 當邑의郊外인 隣接面一帶을 市街地로 編入利用케함이 最善의良策으로 認定하는同時 此에

(二) 上水道의 敷設

水의 惠이며 水의鄕이라는 곳에서 今日까지 上水道의 施設이업슴은 甚히못그러운現象이며 一大遺憾이다 他地方의 例를보면 不過人口五千內外의 都市에 現下우리水原으로는 人口二萬이 갓차운地方으로서 上水道가 업는 保健衛生上으로보던지 또工業發展上으로보던지 非常한 損失로 何方面으로던지 上水道의 設置는 焦眉의急務이다 그럼으로今春 總督府技術者의 調査의結果 上水道의 設計도 이미樹立되여잇다 하야 設計는 巨額의 經費를要하기때문에 本事業에는 國費、道費의 補助를求하야 달성될것이며 그償還財源으로 使用料를 主로하야 實施할事業이니만큼 그다지難事라고는보지 안는다

(三) 市場의整理

水原에 積年의 一大懸案이며 또難問題로잇든 市場敷地도 買收하고따라서 場屋을 新築改善하며 家畜市場에 革新을加하야 市場의陣容을 새롭게할計畫은 昭和十一年度豫算에 計上되여 理想的市場의 實現도 在近케되엿다

(四) 工業의振興

地方의向上과 發展은 工業을 振興식힘이 唯一한良策이다 工業의 振興이 업는都市로는 發展이 困難하며 遲緩하다 이것은 先進都市가分明히 證明하고잇는바이다 水原의先覺者、資本家는 이

水原交通界의 將來에對하야

水原驛長 金翔坤

南鮮北馬、人肩馬背等外에 何等物資運輸의機關을 有치안은往時에比하면隔世의感이不無하다 時代變遷된 此二十世紀의交通界即空陸運輸機關의發達된 立體的現

(水原의代表的洋屋) 京電水原支店

水原電氣와 그의將來觀

增田武雄

水原의 電氣事業은 大正二年當地方有志의 發起로 創設하야 經營下에서 年年來務를擴張하야 一般市民에게 莫大한 便益을 圖謀하야 오다가 昭和三年에와서는 經營者及一般有志로서 本事業과가티 公共的事業은 大資本 統制下에 經營을 移讓하야 完備한 施設로 合理的 經營方法을 取케하는것이 地方發展 貢獻에 適應策이라 認定하고 圖議한가운데서 迅速히事業의 一切을 京城電氣株式會社에 讓渡하고 同社는水原에支店을 開設하는同時에 京城으로 부터 送電線路 建設하야 動力의供給을 開始한後 다시 料金引下을斷行하야 一層一般市民에게 好感을 주엇다 爾來同支店은 安養、振威、餠店方面에 營業區域을 擴張하고 數次料金을引下하야 需用家에 多大한便益을주어 地方文化向上과 産業開發에 努力하야 오는바이다 그러한中昨秋에는 水原及安養變電所를 擴張하야 供給力을增大시키며 壯麗한 水原支店營業所를 新築等 面目을 一新히 躍進하야 水原에 適應하도록 劃策하고 잇는

안흘수업는까닭이다 여기서 우리는 二動一靜과 지나치는 말이 마다에도 이런責任을 잇해서 하지안흘수업다는 말이다 둘재、初等敎育 其中에도 私立學校에는 實力의 經營者가必要하다 或은長久한 經營하거나 或은代理로 其職에 直接實施치안는關係로 訓練上主大한 影響이 밋치는까닭이다 그리고 敎員의 由來自由답게 쓰지못하는데서生에도 自由가넘어만허서 弊한바 起는弊端이만타 이런點에서 [...]實驗者들 느끼는바이다 셋재로 學校와 家庭의連絡이다 한번兒童을 學校에맷겨 노코면 그저學校에서 잘指導해주겟거니하는것이 父兄들의 생각이다 이런생각을 하로밧비 버리지안코는 完全한敎育을 바랄수업슬것이다 父兄으로서 學校에對하야 完全한指導를 바란다할것가트면 家庭으로서는 學校와同一한 方針밋해서 步調를가티하지안으면 不可能하다는말이다 그것은 學校에잇는 時間이 家庭에잇는 時間보다 적은관계上 아모리 誠力잇는 指導가잇다 할지라도 남이 말들하는바 우리의 家庭敎育은 敎育이 아니라 飼育이란 말을 듯는이만큼 學校와 連絡잇가는 도모지 成果를 엇을수업는까닭이다。

[...]도 모르고 [...]는지모른다 이러고보니 그判斷과 指導가 곳 우리敎育者의 責任이다 그러한中에 一惡한點이 잇다하더라도나외主義는 그敎育에 無理한 個例의 罰로써 指導하고 시키는 안타 그惡한點은 惡으로取扱지 말고그善良을 圖謀하야주고자한다 그러면 거긔에는 또不知中 善美點이되고 그兒童이 이를몰 때에도 自己조차 깁버하게된다 이와가티 惡한點이 잇슬때에는 二惡한것을消極的으로말하지말고 그當時에 全部消滅식히고 善한것이잇슬때에는 이는언제던지連絡하야 그兒童의 마음에 구김이 업는 김뻠을 주어야된다 나는 職員과도 늘 말하기를 絕對的惡이업고 絕對的善이업다고하며 우리敎育의責任은 初等敎育이니만큼 兒童의 身心이되여가지고 敎壇에서지안으면 아니되겟다고 主張하며 나가는바이다 사진宮本伊之吉氏

되리라하며 今後當組合의發展은 同氏의指導實行에잇다고 一般으로 大信望을 밧는분이라고한다

溫順淡雅한

楊甘公普校長 武井勇氏

氏는 群馬縣碓氷郡出生으로大正三年三月에 同縣立師範學校를卒業한後 同郡各地小學校로 十三年동안 敎育界에서 努力하다가 昭和九年六月에 朝鮮에와서 八坂公普로 同六年十月에 楊甘公普校長으로 榮進한분이라는데 氏는子女와가티 兒童을對하며 恒常 淡雅한態度로 始終이一하게實質과理論을折衷하야 누구에게나 尊崇하는마음으로더욱히兒童에게까지 各自의 缺點을아지못하는 가운데에서 回省케하는 特性을 가진분이라고한다

理論보다實地

半月公普校長 石本市三氏

氏는 岡山縣出身으로 同縣師範學校를 卒業한後 數年동안 同縣에서 教育界에 奉職하다가 大正十四年十月에 朝鮮에건너와 抱川公立小學校長으로 進出하엿다가 昭和五年十一月에 抱川內村公普校長으로 同七年에 現校長으로 轉任한분이라는데 氏의敎育上方針은 兒童天賦의特性을伸展식히여 現代世相에 適應한才能을 敎養케하야 將來鄕土文化의 先導者로 實務에 適合한善良한사람이 되도록 遠大한 抱負의 計畫을樹立하야가지고 理想과實地를 打算하며 그의長短을 調節하며 內外共히 充實함을 圖謀하며 力行하는분이라고한다

誠、愛、行을信條

南陽公普校長 岩月周夫氏

氏는 明治二十一年八月에 鹿兒島縣薩摩郡出生으로 同四十年三月에 同縣立中學을 卒業하고 同四十二年 朝鮮에와서 兵役에勤務하다가 大正二年三月에 總督府敎員養成所를 卒業하고京城市內各小學校에서 勤務하다가 大正七年에 始興郡新東小學校長으로榮進하야 各地小學校長으로 昭和十年三月에 南陽公普校長으로 轉任한분이라는데 氏의敎育方針은 다음과갓다고한다

訓練의直接的方面

誠=正直한意志는活動의根源으로 萬行의 基本이다

愛=純眞한感情은 社會生活의根源이며 또秩序를 重히하야 立憲生活의根基가되다

行=絕大의忍從强大의意志는 活動의根源으로 自己의本分이 他動的이거나 自動的이거나 물불것업시氣分전케遂行하라

이를綜合的으로본 敎育의理想

敎則에依하야 熱과愛로써 兒童의 個性伸展을 補導啓培하야 謙虛히 知能을 修得케하야 獨立不覊誘惑에 잇슴이지말고 他動의 干涉壓迫은 斷然히 이를 排除하고 自己의良心이 命하는곳에 不撓不屈하야過去를回省하며 將來를考慮하야專心으로 最善의 努力을다하야個人으로 將來家族、社會、國家의 一圓으로自己의 本分을다할 人格의 陶冶가되기期한다 사진 岩月周夫氏

南陽金組理事 藤田郁彦氏

氏는 明治三十九年三月山口縣出生으로 昭和三年大倉商業을卒業한後同年에 同組合理事로 就任하야 第一着으로 施設한 事業이 養農方法을 改良식히며따라서 自給肥料獎勵의 徹底指導이엿다 그效果가 莫大하얏스며이어서 模範指導部落을 設置하야 各方으로 錢窮農家의 經濟更生을 圖謀勇進함으로 組合自體의 發展은 勿論이오 一般組合員의 經濟狀態도 四、五年前에 比하야 形言할수업시 進展되엿스며 또今年부터는 同組合區域內에잇는 織物機業을 一層助長식히기爲하야 그生産品을 同氏가全部引受하다십히 隣接郡內各金組에게 共同購入申込을 早春以來밧어가지고 共同販賣斡旋에 讓係的으로 努力하야옴으로 一般生産品販賣에도 支障업시 順調롭게 消化식혀줌으로 組合員의 更生은 現著한바잇다한다。

[...] 將來에 南陽[...] 남부럽지안을만한 小都市化할이다 [...](模範的事業)이가업 놀내이지안[...]

本面은 古昔南陽都護府 現水原郡에 屬하엿는 큰古邑이엿다 高句麗時代에는 唐城郡이라하다가 新羅景德王에 唐恩郡이라 改稱하고 [...] 其後다시 [...] 그郡名인南陽이라 [...]엿다 同面長의事業槪要

一、教育方面으로 公普四年制를 六年制로延長運動하야 昭和三年에 此를實現

二、交通方面으로 三等道路一里十九町과 等外道路(面內交通線路)四里十町을 改修하야 어되이던지 通行하기에便宜케한것

三、衛生方面으로 大正十二年에 率先하야 經費를自擔하다십히하야南陽醫院을設立(公設)하야 大衆醫療機關을 開拓하엿다

(사진洪承殷氏)

至愛로對하는

麻道公普校長 横枕千鄕氏

氏는 明治二十九年福岡縣八女郡出生으로 大正十二年三月에 同縣立八女中學을 卒業하고 同十三年三月에 朝鮮에와서 同四月 京城師範敎員練習所를 卒業한後 京城西大門及水原小學校에서 勤務하다가 昭和十年四月에 麻道公普第一世校長으로 榮進한분이라는데 氏는沈默主義로 언제던지 誠意잇고 한갈가튼 마음으로 學術이나 實習에 兒童을取拔하야 줌으로써 一般兒童은 조금도 숨김업시 그赤是眞實한 熱誠으로 敎學에着心이되며 新設된지不過얼마되지안엇스나 그낫타내인 成績은퍽으良好하다는 消息을듯는前途有望한 靑年校長이라한다 (사진은 横枕千鄕氏)

各界重鎭人物

水原社會의恩人

水原醫院長 申鉉益氏

氏는 明治三十年龍仁에서 出生하야 天品이 俊秀하고 非常한 天才로 다시말하면 聞一知十의 才士이다 그實例를들면 基礎의 教育이업시 一躍京城醫專을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한것이 누구나알기쉬운氏의 天才이다 大正八年五月에 前記學校를 卒業하면서 同年六月 京畿道立水原醫院의 前身인 水原慈惠病院으로 進出하야 同十二年까지 滿五個年동안을 하로가티 刀圭界에無雙한功績을 남기고 氏의 現時經營하는바 水原醫院으로轉向하야 前記醫院의 生命을救援하야 오날까지 公私間에 獻身努力으로 勇進하는 水原社會의 恩人이다 이와가티 우리水原社會의 公私的代表者임으로 現水原에 施設된 諸般機關으로는 氏의힘을 밧지아니한機關이 無하다 氏의 現在直接으로關係하는것은 水原醫院長을 비롯하야 京畿道會議員、鐵道局囑託醫、女醫 南鐵囑託醫、小作委員會委員、稅務調査委員等으로 만흔活躍을하고잇다 (사진 申鉉益氏)

治山治水努力

日莿面長 李弼商氏

氏는 明治九年十二月日莿面下光敎里에서 出生하야 大正八年一月에同面長으로 就任되어 面行政에 盡力한結果同面은 水原邑附近에 接在하얏지마는 그發展의實況과 面內一般施設을 차저본다면 모다가 驚異치아니치 못할바되여잇다 그中에 한두가지例를 들어보면 日莿面은 本是林野가 만으니만큼赤山이만엇섯다 그런대 氏의活躍으로 同面內에 砂防事業을 組織하야가지고 每年이를 工事한結果 只今에와서는 어듸를 勿論하고 蒼鬱한 山林으로變遷되엿스며또 古昔李朝正宗時代에 築成되엿던 北池가 主人을잃고 한農場經營主의 손에들어가 거의荒廢地境에 일우운이때에 氏는一四、〇〇〇圓의 工費로 다시往古와가티 修築하게되여 不遠間氏의손에서 녯자최를 再現하기를 京鄕의 往來客은 손꼽아기다리며 또河川修理로 一二、〇〇〇圓의 工費를 醵出식히여 同面邑長里로부터 泉川橋까지에 河川을第一着으로 修理하야 엇더한旱魃과水亂을 當하던지 安全하도록 治山治水에 努力하는氏의手腕엔 누구나 驚嘆하지아니한者가업다고 한다

鐵道朝鮮의重鎭

水原驛長 金翔坤氏

氏는 明治二十九年十一月 慶南釜山鎭에서 出生하야 大正二年三月에 釜山公立商業學校를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日本內地에 留學하고자 一切準備를 하얏스나 家庭의 形便으로 留學치못하고 同六年三月에 鐵道界에 投身하야 釜山方面에서活動하다가 大正十四年六月에 任官 同十五年三月 楡川驛助役、昭和二年七月에 釜山驛助役으로 榮進 同七年三月에 永川驛長으로 同九年七月에 朝鮮의名勝地인 海雲臺驛 第一世驛長으로 榮任하야 多年間 南朝鮮鐵道界에 莫大한 功績을 남기고 同十年十月에 水原驛長으로 榮轉하야 目下 朝鮮鐵道交通業務를 一層 向上식힐計畫을 가지고最大의 努力으로 活躍하는분이라는데 前後十九年동안을 하로와가티交通機關에獻身勇進하며 一般事務에도 敏腕을휘둘러 一般人士는 驚嘆不已하는바이며 氏의 前途는 洋洋하다고 한다 사진은 金翔坤氏

教育界의重鎭인

水原高等農林校長 湯川又夫氏

水原農事試驗場、水原高等農林學校는 朝鮮農業의 指導者인데 多角的農業을 비롯하야 新研究와그 實際化는 이곳으로부터 出生되엿다고하야도 過言이아니라고할것이다 大工原名校長이 그人材를 認定케되여 그後任으로오른이 現校長兼場長인 湯川又夫氏이다 氏의 學者로서의 그地位는다시 論할必要가업시 一般이 周知하는바지마는 氏는 京畿한人格者로 누구나 다 敬慕하는분이다 氏의 人格第一主義를들어말하다면 氏는어대까지든지 學問의實際化를 强調하야 農村으로서의 活氣잇는 意志을養成식힌다는것이 氏의 衷心의意圖이다 同校長兼場長으로 榮任以來無比堅實한校風으로 數千에아들을 養成식히여 우리朝鮮產業開發에出戰케하야 疲弊하야가는 田作改良과 米品種改良其他各方面으로形言할수업는 活躍을 하게하엿다 氏는 明治三十九年東京帝大農學部의 出身으로 同四十二年 母校의 助敎授로 任命하얏다가 大正六年에 農學博士의 學位를獲得한後 一層農學을 研究하고자 同八年으로부터 二個年동안 歐米에 留學하면서 九州帝大農學部創設로 同帝大敎授로 榮任 同十五年農學部長에 昇進하얏다가 昭和七年朝鮮總督府招聘에 應하야 朝鮮에와서 水原高農校長、試驗場長으로 朝鮮農業開發에 全幅的으로 努力하면서만은 子弟에對하야 항상朝鮮産業開發의 一戰士가될 薰陶을잇지안코 또敎授에게도 新進拔擢으로 一絲不亂의 統制을 가지고잇자는 名校長으로 敬慕할뿐이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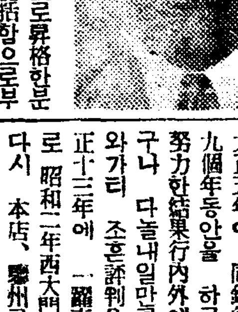
清雅溫直한

三槐公普校長 大岩根村德氏

氏는 明治三十五年五月 宮崎縣出生으로 大正十年三月에 同縣立中學을 卒業하고 同年에朝鮮에건너와 同十一年三月에 京城師範教員養成所를 卒業한後 即時 京城清雲洞公普外 同地各公普에 勤務하다가 昭和五年에加平郡朝宗公普校長으로 榮進하야 同六年二月에 三槐公普校長으로 轉任한 분이라는대 氏의主義는 한갓 兒童들의 심부름군과가티 되여 兒童에게 無限한愛情을주며 그純眞無欲한 天性의兒童을 天眞그대로 教養식히자는것이目標임으로 언제든지 兒童取扱에 不美한 點을보이지 아니함으로 數百兒童의 教舍이지마는 맛치 一個의 家庭보다 더親美가잇다고한다 ◇寫眞…大岩根氏

水原發展功勞者

水原邑長 梅原靜雄氏



氏는明治十二年六月 高知縣高岡郡多鄕村에서出生하야 同三十六年十月에高知縣屬으로 任命한以來 各地로歷任後 同四十四年六月에朝鮮에와서 忠南舒川郡屬으로 昇進 大正七年三月에京畿道로榮轉 同十一年四月에水原郡勸業課長으로 同十三年十二月朝鮮總督府郡守로榮進하야 黃海道長淵郡守로 昭和三年十月 (同七年三月에奏任官待遇)에 水原市民의大歡迎裡에 水原面長으로 同六年同面昇格에따라 邑長으로昇格한분인데 氏가邑事務를總括함으로부터는 水原邑의發展이 日就月長의形勢에잇다 그功績을列擧하면 教育方面으로 水原公普를 昭和八年에擴張新築하고 消防施設에對한一切器具를 水原에適應하도록備置하고 또다시交通方面으로 水原驛으로부터 水原四街里까지 水原街道(京城方面으로向)를長安門까지 幅이四十四尺의道路를改築하야 一般交通에莫大한便利를주엇고 水原古蹟으로有名한華虹門과訪花隨柳亭을 改築又修築을加하야 一般觀覽客에게 또긴古의 感興을주며 또그外洩湍되여가는 古蹟은全部 重修하기로晝夜로 努力하는 분으로 이와가티 압흐로 幾年間만 더經過한다면 水原에對한 모든 施設이 조곰도他地方에 뒤질길업시 全朝鮮的으로 자랑할만한水原邑이 될줄로 當地方民은氏의 手腕에企待함이 만타 (사진은梅原靜雄氏)

水原金融組合 理事 赤木直枝氏

氏는 明治二十八年 長崎縣出生으로 大正六年東洋協會專門學校를 卒業後 大正七年 三月부터 朝鮮金融組合方面에 投身以來 一般産業開發第一線에서 努力하는 분인데 그功績은 實로 적지안타 始政二十五週年紀念時에는 宇垣總督으로부터 功勞者表彰까지 밧은분으로 絕大의信望을어더 압흐로 더욱더良好한成績을 나타내이리라하여 所謂金融組合主義를 保有助의觀念이 强固하며 따라서獨特한 手腕으로 水原商工業에中心地인 四街里에二層洋屋組合을建築하기로 되엿다한다 今年부터 同組合의區域을 大擴張(九個里)하야가지고 一般商工業發展에 더욱盡力하하리라한다

實直勤勉한銀行家

漢銀支店長 金柄熙氏

氏는明治二十二年京城出生으로 大正五年에 同銀行에 入社하야 九個年동안을 하로가티 堅實히 努力한結果行內外에 그功績은누구나 다놀내일만콤되엿섯다 이와가티 조흔評判을 가지고 大正十三年에 一躍東大門支店長으로 또다시 本店、驪州로 昭和七年에 水原支店長으로 榮進한분인데氏는 漢城銀行에서 第一因緣이기 是逸材로 實直勤勉 또는 誠心努力하야 金融機關使命을다하야 各地方商工業開發에 貢獻이不少한분으로 現下最適의 活躍時期에 氏는計畫着着實行中이라하며 그將來에는만흔 祝福이잇스리라고 잇는바이며 그家庭에는 令閨金圭煥夫人 次女禮順(同德女高卒業)長男敎完(善隣商業卒業)次男敎植諸君으로 和氣靄靄한남부러운家庭이다

私設鐵道의王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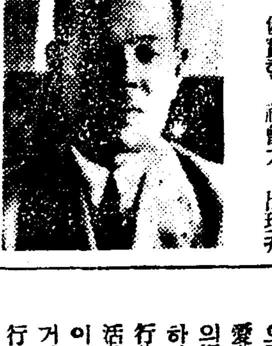
京東鐵道 荒木武二郎氏

氏는 昭和十九年五月橫濱本牧町에서出生하야 明治四十二年 神戶高商을卒業한後 日本內地各地瓦斯界에 莫大한功績을 남기고 大正十一年朝鮮에와서 十餘年동안 朝鮮私鐵界의 功績者인同時에 中部朝鮮產業開發의 功勞者이다

朝鮮에對한 私設鐵道의 補助에 對하야서는 그時期마다 朝鮮의特殊한事情을主張하야 鐵道當局을說服하엿다 그러나朝鮮에對한 私設鐵道는 日本內地와가티 遊覽의目的이나 或은政府의買收를 越見하고 政黨屋이 經營하는것과 大異하고 다만產業開發을圖謀하기爲하야 多大한犧牲을忍耐하며 國鐵의餘力이 不及되는地方의것을補充하는形便에잇다 그런대朝鮮產業의開發은 只今으로부터 本格的軌道에 立하얏스며 따라서私鐵의 責任지役割도 漸次重大하야간다고보겟다 이와가티重大한線에서 敏活한手腕으로努力하는분은 곳京東私鐵의荒木武二郎氏이다 氏가 大正十一年朝鮮에오기는 京東鐵道의 招聘으로 日本內地에서 重要한 瓦斯事業施設의 重役을 辭任하고 同社經理課長으로 支配人으로 同社의 基礎를 堅實히하고 여기서 더욱私鐵經營에 充分한自信을가지고 다시 京東鐵道會社를 創設하야 同會社常務取締役으로 現在重大한 使命을 眞實히 遂行中인데 同氏手腕의 特點은 어느會社를 勿論하고 더욱히 私鐵에對하야 經營困難으로 維持하기 極難한것이라도 荒木氏손의들어가면 起死回生케하는 萬能의 手腕을가진분이다 京南鐵道、京東鐵道는 언제든지中部朝鮮의 農耕地을 貫通하야 躍進하는 農村의 昇發에 劃期的으로進步를 促進하는바이며 最新文化의 誘導에 貢獻이 甚大한바이다 이가티 氏의 功績은 半島經濟界에 現在는勿論이오 永久한 將來에도 더욱光彩가잇스리라고 이信望이 遠大한분이라고한다

産業開發의功勞者

殖銀支店長 安東政治氏



氏는 京都上京區室町의 出生으로 大正十年 京大經濟科를 卒業하면서 곳 殖銀에 入社하야 勸業金融課에서 實務에對한 理論을 實際로 應用하야 勸業金融에 稀有한實績을 내인後 第一線으로咸興支店에 出向하야 同金融實際에對한 貴重한 體驗을 가지고 羅南支店長代理、大正十五年五月 元山、昭和三年三月平壤支店長代理로 歷任하면서 朝鮮北部地方에對한 經濟事情을檢討하고 昭和四年十月에 再次本店 勸業金融課長代理로 또다시 南朝鮮 淺橋支店長으로 榮進하야 同地方產業의 飛躍的開發을 圖謀하고 同十一年一月에 水原支店長으로 榮轉하얏는데 敏腕으로서 水原地方產業機關施設에 最大의 努力으로 猛進中이며 우리水原의 將來에 莫大한 功績이 잇스리라고한다

個性尊重하는

松山公普校長 尾島茂平氏

氏는 明治三十四年五月 岡山縣出生으로 大正十五年五月에 朝鮮에건너와서 利川公立農業實修學校에서 勤務하다가 昭和四年에龍頭公普校長으로 昇進 同五年에 本校로轉任한以來 오늘까지 五個年동안을 하로가티 誠熱을다하야 敎育界에 努力하는분이라는데 氏의 敎育上方針은 다음과갓다 時代의要求와 個人의 要求에 對하야 人類의根本的精神에는差異가업스나 時代의 推移에依하야 教育의色彩도 달너저온다 그러기때문에 一般時代思潮와 教育의思想이 地方的으로 흘리는 點이 잇슬줄로 밋는다 여긔를 圓滿히 調和하자면 먼저그地方의 特殊事情을 深察하야 初等兒童의 養育이니만큼 適切安當한 計畫下에서 實行하야 個性에 適合한 發育을 시키는데서 비로소 個人의 自由에 進展과 따라서 健實한 社會가 出現케된다 그러므로 個性의 尊重이 必要케되며 그個人의 境遇의軌道에서 脫線치아니하도록 指導하는것이 곳 敎育者의 責任이다 이와가티 우리 將來의 正當한 國民이되며 公民이될者는 오직 初等敎育過程에잇는 兒童이다 그러므로 人間의 完成은 그個性을 充分發揮시키는데잇다고 생각한다。(寫眞은 尾島茂平氏)

警察行政의俊才

水原署長 藤田乙治郎氏

氏는 明治二十三年 佐賀縣出生으로 大正三年에朝鮮에와서 警察界에進出하야 南朝鮮各地에서多年警察法 行政에만흔 功績을남기고 大正九年에警部補로 昇次하야 同十一年에 京城으로 出向하야同十四年에 警部로 昇進하는同時 江華署長으로 驪州署長兼同檢查分局檢事代理로 또다시昭和三年에 京城을거처 同八年八月에 水原署長으로 榮轉한분이다 氏는本是天品이 俊傑하고 高尙한 抱負로 何方面으로던지 缺陷이업시 더욱히 司法行政엔 細一無雜의 嚴格한態度로 治行하므로 氏가赴任한以來 水原社會는 極히 平穩하엿스며 氏의溫厚한 德望엔 仰慕치안는이가 업스며 氏는 不遠間一段의 昇進이잇스리라고 밋는바라한다

公普設立恩人

楊甘面長 李光雨氏

氏는明治十五年四月에 忠南鎭川에서出生한분으로 일즉이京城으로 올라와 株式會社工商銀行에서오래동안 努力하다가 [...]한世情에부대김을避코자 楊甘面으로下鄕한것인대 또다시同面民[...]

林業界의權威

水原高農敎授 植木秀幹氏

氏는愛知縣出生으로 일즉이東京帝國大學農科林學實科를 卒業하고이어서 渡米하야『하ー바ー드』에서 優秀한成績으로 『마스다ー오부 후오레스트리ー』學位를 얻고歸國하야 宮城縣立農學校敎諭로就任한後 現高等農林의 前身인水原農林專門學校의 敎授로林學部長을兼任하야 우리水原農學만이아니고 全朝鮮의 禿山赭土에鬱蒼한林相을보이게하여 住民으로하여 林野에對한觀念을 一變케한것 [...] 人格의 陶冶가되기期한다 사진 岩月周夫氏

剛直從義의

鄕南公普校長 伊藤矢三郎氏

氏는 明治三十一年新潟縣出生으로 大正九年에 朝鮮에와서 同十年三月에 京城高普附設臨時教員養成所를 卒業하고 黃海道各地에서 敎育界에 만흔功績을남기고 昭和九年一月에 高陽、安城各地敎育界로 同九年四月에本校長으로 轉任한분이라는대 氏는 公私間義理에 버서남이업스므로 언재던지 圓滿한가운대에서 自身의 抱負를充分히發揮하야 職員과 兒童또는 各家庭連絡에도 圓滿하야 初等敎育者로서 最適任者라고共認하는분이다 (사진伊藤矢三郎氏)

德義豊富한

水原公普校長 香名泰三氏

氏는明治廿[...]年十月愛知縣出生으로 同四十二年三月에 愛知縣第一師範學校本科를 卒業한後教育界에드러와 二十餘年동안 日本內地에서 努力하다가 大正六年七月에朝鮮에 와서京城市內各尋常小學校에서優秀한成績을 나타내이다 昭和三年三月에 長湍公立普通學校長으로 昇進한後往十里[...]

沙江金組理事 金鍾禹氏

氏는 明治二十五年四月京畿道楊州郡出生으로 일즉부터 庶民金融界에 出向하야 오날에이르기까지 熱熱한一誠으로 特히地方産業開發에 獻身努力한분인대 同氏가 轉任하는곳마다 그地方産業開發의功績은 必有하얏슴으로 이에따라 一般組合員은 勿論이지마는 其外地方大衆의商工業까지 實績을 남기는분으로 아모리不幸한 狀態에잇섯다하더라도 氏의着手하는날부터 不知中 平和의 美를가지게되도하며 同氏의 德望은 去益高하가고잇다한다

◇水原八景

◇水原八景=水原은 古來로 名勝으로도 全朝鮮的으로 代表할만한 水原의 八景까지 俱備되여잇다 그八景을 列記하면 八達의晴嵐、西湖의落照、花山의躑躅、華虹의觀漲、光敎의積雪、北池의賞蓮、南堤의長柳、龍池의待月等이 前記 各機關의 俱備되여잇슴을 한層더 볼수잇서 우리水原社會를 하로速히 大都市로 만드러주고자한다

一隨筆一

文學人의觸感 ⑦

蔡萬植

한글統一

한글統一案이 생기고 新聞들이 그를支持하고 그래서귀동냥 눈동냥으로 나도 그약간 까다라운 綴字法을 조금은 더듬하엿다

그런데 한글 統一案이 생기기前에는 아무데고 아무렴케써도 그대로 말성이업서서 조터니 요지막은 아주여간성가신게 아니다

A新聞은 A式으로한다 B新聞은 B式으로한다 C新聞은 C式으로한다

자ー그러고보니 글쓰는 사람은A新聞에 쓸때는 A式한글로써야하고 B新聞에 쓸때는 B式한글로 써야하고C新聞에 쓸때는 C式한글로써야한다

『잇으니』『잇스니』『잇으니』

이놈 세개가 그 해여하나를 보이는것이다

이것이 보기에는 대수롭잔한듯해도 當하는 사람은 여간만 까다롭지가 아니하다

그것은 우리 글쓰는사람에게만 폐로운것이 아니라 讀者들에게도 응당 그러할것이다

이리해서 統一案이 나오지 아니한 옛날은 統一이 되엇든것이 統一案이 나온 시방은 도리어 허트러젓다는 天下의 奇現象을 보이고잇다

◇

이것이 勿論 오래두고 그 綴字法의 統一에 苦心한 硏究家들의 허물이라고는 나는 보지아니한다

그런데 新聞에서는 各其들 自己의것이 올라고여이는 모양이다

그러니 왜이러케 복잡하고 소삽하냐고 어데다대고 트집을 잡을곳조차업다

『生活이라는것은 物質(모든 힘의 根源)의 進化過程으로서는 놀나울만치 單純하고 社會的諸關係의發展過程으로서는 모든 複雜의 單純한것때문에 複雜해젓다 眞理는 單純을 要求하고 虛僞는 複雜을 要求한다』

이말이 다시한번 머리속에서 씨퍼진다

種牛와去勢馬

S라고하는 친구를 길에서쭈적 맛낫다 아마 한一年만인가부다

서로 그럭저럭 인사끄테

『그래 요새는 회에비나 좀헷나?』

S가 나더러 뭇는것이다 원世上에 이런 侮辱이잇나!

『사람을보고 말을해! 누구더러 하는소리야?』

나는 이러케 꾸지(?)젓다

『어? 거참 失禮헷네! 그래그새 장가를들고 도 그럼 시치이를 땃네그려? 한데 내게그려』

S君은 내가 꾸짓는말을 아주正反對로 알어드른모양이다

나는 장가를 가느니 쌨놓엇느니하는것도 다사람나름이지내가어떠케 그것을하느냐 사람을 보아가면서 그런말을해도해라 그래서

『사람을보고 말을해!』한것인데 S는 그유ー모어를 고정하게 解釋을해버리고는장가렴을 내라는것이다

『아ー니 이랍이!글세 사람을보고 말을하라니까그러네!』

『아ー그런가? 네끼 납분친구……나는 하도 자네가 으젓하게 그리길래 깜박속앗지』

S는 비로소 깨닷고 웃는것이다 이번에는 내가S더러무려보앗다

『그래 자네는 家族을 가젓스나 그동안 자미나 만히 보나?』

『이사람 자네야말로 사람을보고 말을하게! 아이구! 굴세 그새 또 한개가 생겨낫서요 또한개! 都合 며칠을이사람아!』

『아ー니 여보게! 내가 자네더려 애를 만히 나라고를 햇다말인가? 자네집 살림살이를 라말인가? 왜이러케 내게다대고 부리대나?』

『허허 생각만해도 속이 답답해서 하는말이지…… 이대로낫다가는 아마 一小隊는 넘녀 編成식힐것가터!』

S는 웃지도 아니하고 아주眞情으로 一小隊編成을 豫想하는것이다

六月創作評【五】

技巧의自然性과 作者의過度한機智

朴英熙

『趙兵丁』 이作品을 다읽고 먼저 作家의 意中을 살피여보려 하엿다。무엇을 表現코자 하엿는가? 趙兵丁은 古時代의 遺物이라 그가 녯날을 回想할때에 悔悟와 咀呪가 잇섯든가? 아니다。그러면 그는 自暴自棄하야 世上을 비웃으려 하엿든가? 아니다。世上을 비웃기 위해서 自己의 主觀이업는 사람이다。그러면 趙兵丁은 不幸한 自己生活에 對하야 寂寞과 哀愁가잇섯든가? 그것도 업섯다 그는『씨니크』學派의 嘲笑도 업섯고『슈베크』와가튼 諧謔도 업다 志士가 가지고 잇는 義憤과 愛國도 업스며、그러타고 또한狂人의 發作도업다。

狂風客이라 한다고 主人公의 性格이 바람처럼 虛無할수는업다。智力의 優劣을 莫論하고各各 所有하고잇는 性格의 標準이 잇슬것이라고 推言할수잇다。일즉이 李泰俊氏의『不遇先生』은 끗업는哀愁한 난알핀 怨恨이 그主人公의 性格을 훌훌히 構成하엿섯다。그러나 趙兵丁에게는 눈물도 한숨도 義憤도 怨恨도 諧謔도 嘲笑도 그리고 愚者가보는 現代文明의 批判도업다。그는 다만 題가 表示하는바와 가티 狂風과 가티 流浪할뿐인데 그流浪에도 무슨人生의 辛酸한苦勞가 잇는것이 아니라때로는 豪氣滿滿해서 도라다니는 것이다。

하로날 趙兵丁은 昌慶苑 夜櫻을 보러가서、門으로 드러가려니깐 표밧는 사람이 그를막을때、그는『나는 趙兵丁이요하고 가슴을 내미니까、이 친구가 조병정을 누가 아느냐고호령을 하며 쪼츠니 이럴수가잇단말이요』하는말을 드르면、서울을 처음온 사람도 아니오、탑골공원을 제집 사랑처럼 다니는 사람으로서、昌慶苑 入場이、趙兵丁이『후리ー파스』가 아니될것쯤은 알만한일인데、作者는、事件을 戲化 하기위해서 不自然한 揷話를 만든데 不過해보인다。더욱이 生命保險會社員과 일어서 말 다툼을 하는것 가튼것도、趙兵丁의 無事圓滑한 流浪客의 性格으로는 矛盾된 行事라고 생각된다。時代가 박귄以後 所謂 新文明을 呪咀하는 鄕村의 老父들의 現世에 對한 諧謔과 嘲笑는 趙兵丁과 同一한程度려니와 狂人이 아니면 누구나 主觀의 性格化가 나타나야만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라팔소리를 드를때 趙兵丁의 歡喜는 人間의 常情일것이다。그러면 이곳에도 라팔소리를 드를때마다 歡喜보다도 哀愁가 한가지 回想될것도 常情일듯한데 그것이 缺如되여잇다。

다만 趙兵丁을 戲化하기 위해서 趙兵丁의 個性과 性格을 그냥 덥허버렷스며 그러므로 不自然한 結果를 맺고 말엇다。作者는 무엇을 表現코자 하엿는가?

『午後十一時』 李熙善 作 (新家庭六月號)

『매캐한 여름밤』에 생긴 일이다。主人公은『수운』이라는 계집아해인데、나히는 열일곱살、생김생김은『몸은 상큼하고、코스날이 오뚝하고 두뺨은 유난히 동그런데』……매우 숙성한듯하야 벌서、戀情의 앗질한『칼피스』의 新味에 홀녀서 山間의 情夫를 만나보고、일속이 도라온다는것이 밤이 되엿스니、嚴格한 父親의 꾸지람이 무서워서 敢히집에 드러가지 못하고 박갓 판장틈으로 숨어보고 엿보면서 서 잇는 동안에 거미줄가튼 怨恨과 불꼿가튼 焦燥의 心境、난봉난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鬱憤한 心事를 對照하여가면서 描寫코자 한 作品이다。

勿論 이런 作品에서 生活의 深刻한것이나、或은 華奢한것을 차즐 必要는 업다。그러나 少女가 가지고 잇는、戀情과 柔弱한 性格으로서 苦惱하는 純眞한 氣質을 차즈려고 하엿스며 또한 그러한 氣質이 部分的이기는 하나、印象的으로 나타낫다。小說 構想으로는 特記할것이 업스며、平凡하나、作者가 表現코자 하는 少女的情熱과 懷疑와 恐怖는、全幅的은、아니나 가장 機智的表現으로 部分的 完成을 꾀하엿다。

言語에 關해서 適當한 말을 차즈려고 애쓴듯하며、整頓된文章을 가다드무려는 痕跡이 보이는데、그것은 勿論 巨大한 成果는 아니보이나、적어도 努力한 가죽은 뚜렷이 볼수가 잇다。또한 이 作品이 力作이랄수는 업스나、失敗업는 作品이라고는、말 할수잇다。말 하자면 女性的 纖細한 細工과、一面的 策略이라든지、淺薄기픈 探索이、그의特異한 筆致가리 생각된다。

『잘은 길을、허둥지둥 가노라니 와시시 문허지는 이슬을 치마에 바드며、조밧 수수밧 피밧도 지낫고 소똥이 구불구불 떠러져 잇고 수레바퀴 자죽이 움푹패인 고개도 넘엇고 키를 넘는 새풀이 아피 보이지 안케 드러선 산길로도 드러섯다』

이 짜른 文章에서、시골산길의 特徵만을 羅列하야、簡單한 文章에서、할수 잇는대로 그情景의 큰効果를 나타내려고 努力한것이 보인다。少女의 不良性은 特徵的이면서도 大膽하다。十七歲의 少女로서 山間의 情夫를 차저간것은 勿論大膽하기 이를데 업는바나、이것은 特異한 性慾의發露로 一時的 發作이라고 본다드라도 늦게집에 도라왓스니 多少 懺悔의 情이 잇슬듯도 하건마는「그까진 아버지 십년 백년 못본대도 아모러치도 안흘것 갓다」고 말하는것이나、느저가는 時間을 아즉도 일따고、어듸까지든지自己行動을 合理化 식히려는、이 少女는 노라以後의 노라이니 作者는 現代生活에서 激變하여가는 少女의 性格을 描出하려는가、新時代에서 少女的性格을 表現하려는가、문허저 가는倫理를 表現 하려는가? 싹드려는『빠ー・걸』의 初步的氣質이 潛德업시드러낫다고 볼수잇다。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딸、부모와 자식사이가、자식이 자랄수록、漸漸 멀어저 가는것을 表示 하려고 하엿다。늙어가는 아버지의 時代와 새時代를 開拓하는 자식의 生活이서로 衝突되는것을、그린 作品이 만흐니 이作品에서도 一部分 그것을暗示하엿다。

☆☆……그ㅣ늘ㅣ에ㅣ저ㅣ진ㅣ綠ㅣ波

竣工・開放한 『레ー닌』博物館

【모스크바特派員發】 쏘베ー트 政府는 모스크바의 붉은廣場『레ー닌』廟갓가이 미리부터『레ー닌』中央博物館을 建設中이엿는데 맛침내 竣工되여 五月十五日에는 그 開設式이 擧行되엿다。이博物館은 二十一의房으로되엿는데 約六千의陳列品을 年代順으로 陳列하고『레ー닌』의 生涯와 活動及이것과가티『볼쉐뷔키』黨의 歷史를 一目瞭然하도록 만드러두엇다。그중에도 가장興味잇는것은 第一室에 陳列되여잇는『레ー닌』의 少年、靑年時代의 文獻과寫眞들일것이다。여긔에는 매우 成績이조튼 中學校의 成績簿와 卒業當時에바든 優等賞金『메달』等『레ー닌』의 非凡한 才能을 如實하게말하는것이만코 學生時代에읽은책에 自書한覺書와『레ー닌』이 十七歲에 벌서學生運動에 參加하야 그때문에『카잔』大學을 放校된때의文獻도 出品되여잇다。그리고 順序대로 第二室、第三室에 드러가서는『말로프』『프레하ー노프』等 日和見主義者와 斷乎抗爭하야『레ー닌』이『볼쉐뷔키』黨을 擁護하여 十月革命을 準備한經過가 示現되여잇다。漸漸나아가 第十七室에 이르면 여긔에는 全體가 薄暗하고 周圍一面崇嚴한 氣分에 싸여 낫게달닌『비로ー드』의 旗로四面이되고 그內部에 硝子에너흔『레ー닌』의『데드・마스크』가 安置되여잇다 그리고붉은『비로ー드』의 旗우에는『스타ー린』의『同志『레ー닌』에게 我等은 盟誓한다』고한 有名한誓言이 金色으로 씨여저잇다 革命의 天才『레ー닌』의 死에際하야 黨을代表하여 陳述한『스타ー린』의 弔辭는 이暗鬱한 空氣中에서 光輝를내여 이博物館을 訪問하는 모든사람에게強한 印象을주지안코는마지안는다

朝鮮俚諺에對하야

─그蒐集과整理의必要性─ ⑤

金思燁

三三五(아리랑)調

鋼鐵이간데는가을도봄
개고리三年에黃毛못되다
거지가部承旨를불상타한다
구덕이무서워장못담을가
나룻(鬚)이석자라도먹어야산다
내딸이고와야사위를골른다。
남의말하기는식은죽먹기

或은 同類音을 反復하거나 그러치안호면 同音을 重疊하여 口將하기에 圓滑히하려고 一種의 諧調를이루는것도적지안호니

갓혼에도參與서혼에도參與
드문드문걸어도黃소거름
물에물탄듯이술에술탄듯이
나가는놈의목은잇서도자는놈의목은업다
니업스면니몸으로살지

大門이家門
舊官이名官
兩班인가두兩半인가。

一切說明語를 省略하고 主語만으로도하고 或은 暗喩를 使用하여 暗暗裡에 相對의行動을 諷刺하거나、嘲弄하는것도 朝鮮俚諺의한 顯著한形式이다

南大門入納
꾸부러진송곳
주먹마진감투
달팽이눈
門前沃畓、
물에빠진새앙쥐
내코가석자
낫에나온도깝이
도랑에든소
다팔아도내땅
밧팔어논살때는이밥먹자는뜻
버더가는犢(牛)도眼이잇다。
색기만흔소가길마버슬날이업다
서발막대기거칠것업다
숭어가뛰니까망둥이도뛴다。
쭝비에가서묘解찻는다。
五六月병아리하로비쇠새롭다。

俚諺에는 흔히 傳統與故民間의 信仰等을 그대로使用한이만하 萬若 그緣由를모르매에는 남이말하는 俚諺을듯고도 곳理解못할수가만타。假令 도움을바드러갓다가 도로혀 큰凌辱을當하고 온것을『혹떼려갓다가혹붓쳐왓다』하면 이는三尺童子라도 잘알고잇는 童話에서나온말일것이고 조흔일가운데에는 반다시 조치못한일도잇다는것을 寓하야『廣州뿔이면다玉石인가』하면 漠然하나마 廣州에는玉石이 產出되는갑다는 推測은 할수잇다하드래도 或 엇더한잘못되임에 그責任이한사람에게만 도라올境遇에『못된바람은 水口門으로 들어온다』고한다면 얼핏 諒解하기어렵다。水口門은 光熙門을말함이니 以前에는 京城內의 屍體는모다 光熙門을것저서 運搬하여야하는 規定이잇섯슴으로 自然光熙門에는 惡臭가떠날날이업다。아페 말한俚諺은 이事實을가지고 俚諺으로한것이다。幸運을맛난사람을보고『소경에초하롯날』이라고 宴會나엇더한會議하는모임에 全然關係업는사람이 突入을하면『封緘에捕捉單士』라고한다면 그 當場의 境遇로미루워보아서 漠然하나마 大綱은짐작할수잇다고하드래도 自己의技術學業等의進步가 遲遲함을 他人이『윤달맛난黃楊木』이라고말하고 自己의藝術이나 藝術가튼長技를 自己만享樂하고 他人에게는 決코가르켜주지안흐려고함을 남이嘲弄하야『靑기와장사』라고한다면 俚諺속에 숨은事實을모르고야 自己를 嘲弄하는줄은 알면서도對抗할수는업다。前者의俚諺은 黃楊木은 閏月을맛나면 키가한치식 줄어든다는 民間의傳說을 그대로 引用한것이고 後者는옛날엇던者가 靑瓦를 製造하는法을發明하엿스나 利益을獨占할 心算으로 도모지 他人에게 그術法을 傳授치안허 後世에 그法이 傳치안헛다는 事實을 利用한것이다。이가티 風俗、習慣、信仰、迷信等이 變하여가고잇는데 오즉俚諺만이 舊態를 그대로가지고 남어잇서 使用될때 新世代에 자란 우리들에게는 至極히理解하기에 困難하며 그것은 또한 새로운形態로 變裝하거나 그러치안호면 그衰態를 감추어버릴 運命에 處하여잇다。

新刊紹介

◆音樂◆ 六月 發行所 京城府壽松町三六 音樂社 振替京城二一五三番 定價十錢 送料二錢

◆骨董品◆ 黃順元詩集(主要內容 動物抄 靜物抄等其他) 總販賣所 京城府堅志町三二一 [illegible]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〇番 定價九十錢

祝水原特輯刊行

京城電氣株式會社 水原支店

華城自動車株式會社 宋秉焜 李愼

共濟無盡株式會社 水原支店 支店長 吉浦英信

各種印刷、文具 各種原紙製造 中央印刷所 電話一三二番

和洋百貨 萬福商店 安巨福

和洋百貨 綢緞布木 華潤商會 朴潤錫

水原和信連鎖店 李起鉉

材木 金物 萩野・商店 電話一三六番

神崎吳服店 神崎房吉

水原邑 朝鮮料理 中華料理 永樂館 主 金應化

水原 華城券番

水原城內 朝鮮料理 日月館 主 車廷麟

城湖面長 沈世澤

西新公立普通學校長 百生賴一
台章面長 李福承
安龍面長 金南韶

三一學校長 金炳浩
儀明面長 柳根禹
梅松面長 鄭寅達

三一女子普通學校 金泳來
麻道面長 趙應順
長安面長 金庸模

飛鳳公立普通學校長 有働一誠
松山面長 洪龍裕
西新面長 鄭奉勳

華城學校 洪思運
峰潭面長 朴商德
鄕南面長 尹元榮

雨汀面長 金元默
東灘面長 洪思贊
飛鳳面長 李鳳求

八灘面長 李鍾範
正南面長 崔廷植
半月面長 沈玄澤

朝鮮 西洋 料理

水原城內 株式會社 第一館 代表 金鍾業

資本金三千萬圓으로 南朝鮮電力統制

瓦電等 六個電氣社合同으로

本社位置爭奪戰可觀

【大邱】 전기계(電氣界)에도 대통제―와전(瓦電) 대흥(大興) 목포(木浦) 대전(大田) 군산(群山) 천안(天安) 등의 륙개전기회사는 금년가을에잇서 자본금 삼천만원으로써 통제한다고한다。 그출자는 와전이 륙백만원 대흥 칠백만원 목포백만원、군산 대전、각각이백오십만원、천안이 최하 오십만원이라한다 대구대흥은 이통제를 전제로써 남조선방면에잇서 자긔세력을확장하고저 발서십개소의적은회사를 통합하는동시에 자본금을 륙백구십구만원으로 조직체를 변경하엿다한다。

통제로말미아마 전력공급계통(電力供給系統)은 녕월(寧越)의 대발전소(大發電所)로부터 상주(尙州)를거처 상주에서 남북으로갈리여 남은 청도변전소(淸道變電所)에서 발전을바다 경상남북도에배공하고 북은 대전변전소(大田變電所)에서 천안 군산 목포등의 네회사 즉 종래의 배전구역에향하야 공급한다고한다

일군말미아마 지방민에게만흔 관심을 가지게하는것은 이통제회사본사 유치운동이라한다 이본사의 후보지는 대구(大邱)대전(大田)두곳이라는데 결국본사가 어대로결정될것인가? 일반은 크게 주목한다하며 발서압흐리 에서 유치운동의기색이 농후하다고한다

水飢饉의 鎭南浦 또制限給水斷行?

府民衛生上또發展上大問題로

―上水道擴張의急務―

【鎭南浦】 금춘이래 진남포부에서는 수도(水道)의 불완전으로 목마른부민은 년래에 보지못하든 물기근을당하고잇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이즈음도다시 수원지는 점점고갈하여 이모양대로큰비가오지안흐면 또다시간급수제를단행하게 되리라고 한다 진남포부 상수도 문제는 부민의 위생상 으로나 부의 발전상으로보아 실로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도 하로속히 수원지확장문제가 해결되기를 일반부민은 갈망하고잇다고한다

府民이一致蹶起 上水道擴張運動

府民大會도開催準備

진남포부의 수도확장 문제는 실로중대하고 긴급한문제가 되여잇다함은 별항보도한바 어니와 진남포상공회의(商工會議)소에서는 도당국과 부당국과 협의한결과 오는십이일 오후세시부터공회당에서 공직자 련합간담회를열고 상수도확장문제를 토의하게되엿다는바 간담의결과는 긔성회(期成會)의설치 부민대회등을 개최하고 상수도확장문제가 속히 실현되도록 총독부와 도당국에 맹렬한운동을 일으키리라는바 그결과가 크게주목되는바이다

新興炭坑事務員 坑長排斥陳情

【新興】 소화오년오월에 종업원의 총파업이 잇고 이어서 대합격사건을 이르키어세상의 이목을 경동식힌 함남 신흥군가평면 장풍리(新興郡加平面長豊里)에 잇는 조선합동탄업회사(朝鮮合同炭業會社)(俗稱新興炭坑)에서는 현재의 항장(坑長)고하(古賀)씨의 불신임운동을 이르키어 목하각방면의비상한 주목을 끌고잇다고한다

그내용을 탐문하건대 고하씨가 항장으로 취임한 후로는 인사행정에 잇서 공정을 잃는다는 비난을 밧든중 얼마전 동탄광 배급소(配給所)의 주임으로 잇서 종업원들의 신임을밧든 하목(夏目)씨를 항목게(坑木係)로 이동을 식히자 동탄광간부급의 불만을 사게되엿고 얼마아니되어 하목씨는 사표를 고하항장에게 제출하엿든바 항장은 그사표를 수리하는동시에 당연히 지불하여야할 퇴직료에 잇서 하목씨가 동탄광에 오개년간을 근무하엿스므로 월급의 오개월분에상당한 금액을지불하여야 할 규정을 무시하고 두달분에 해당한것밧게는 지출치아니하매 이것을 본 그탄광 중요간부들은 모든것을 그대로묵과한다면 결국에는 자긔네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이 밋칠것이라하야 사오명의 일본내지인을 제한 절대다수의 일본내지인과 밋 조선인 사무원들은 결속을 굿게하고 항장의 불신임진정을 경성에잇는 합동탄업회사장에게 련명제출한 것이라는데 배척운동을이르키는 자가 모다 동탄광의 중요한 지위를 점령한간부들이니만치 세상의 주목을 밧는중이며 그진정을 바든 그탄광경성본사장의 태도도 지극히 주목된다고한다

公普增設期成에 喜捨金이萬餘圓

咸州各里民의敎育熱

【興上】 함남흥상에 소재한 지경공보(地境公普)에서는 변변히 입학아동이 증가되여 지금에와서는 미취학아동이 칠할오부나되여 지방유지들은 학급증설의 급무를 늣기고 삼년전에 학급증설기성회를 조직하고 기금조성에 맹활동을하는 동시에 군당국에수차 진정하엿다 그후위원들은 팔방으로 맹활동을개시한결과 함주군천서면각리(咸州郡川西面各里)와 주지면각리(朱地面各里)와 지방유지들의 히사금이 예정액이상의 호성적을보게되엿다한다 그리하야 불일간군당국에 납부하게되엿다하며 일반은 하로속히 인가를 고대중인데 이제의연한 각리와 인사의씨명은 다음과갓다

金洪原(女史)一千八百圓 金雲集一千圓 鄭過涉五百圓 李昇鎬 徐景漸各四百圓 劉根豊三百圓 海東釀酒所 金用燮各二百圓 尹文基 金敬觀 洪用澤 柳昶燮 金競鎬 金東燻 韓煥用 金玉根各百圓 金汝浩 金容善 金尙雲 徐甲豊 金林鎬 金昌郁各五十圓 金觀河 李定奎 金宗楨 徐甲任各三十圓 李應串 全昌鍊 鄭泰鎬 金達三各二十圓 徐象淳十五圓 全命麟十圓 尹基錄十五圓 韓晋源五圓 興上里二千圓 深東里五百圓 豊西里三百圓 (市外)崔應國四十圓 金泰淳二十圓 韓錫濟十五圓 尹鍾順 姜錫澤 金河龍 李東燮 徐炳湖各十圓 川西面元興里 八百五十圓 川西面豊峰里 二百圓 川西面九上里 三百圓 朱地面新積里三百二十圓 朱地面新安里 三百圓 朱地面松興里 二百圓 朱地面德成里 一百五十圓 朱地面民興里百圓 其他一千五百圓 積立金二千七百圓以上 合計一萬六千六百九十圓也

八百萬圓僞造하려다 試驗中에遂發覺

楚山憲兵分隊에서取調中

一團二名檢局에送致

【新義州】 꿈과 가튼 만주국 국폐(國幣)위조를 하려다가 미연에발각된 사건―▲江界邑東部洞 吳昌濟라는 吳昌玉[illegible] ▲楚山郡楚山面城西洞 金鎭觀[illegible] 등 두명은 작년부터 초산(楚山)대안 즙안현 외차구(輯安縣外岔溝)에서 도박을하야오든중 돈에쫄리여 만주국 지페 백만원 외조를 계획하고 초산군하 룡산동(楚山郡下龍山洞) 김병히(金秉禧)(?)에게 대하야출자금 이십원에、백원을 주겟다고 꼬이어 일회출자금 이십원을 바더가지고 『고무』도장을만들어 십원짜리 견본 여섯장을 위조하엿스나 잘되지못하엿슴으로 석판(石版)긔게를 사려고 자본금운동을하려 초산(楚山)을거처 위원(渭原)으로 갓다는것을 초산헌병분대원이 위원군청압 중국료리점(金世宗)방에서 술먹는것을 체포하야 그간초산헌병대에서취조중이든바 구일초산(楚山)검사국 지청으로송치하얏다한다

釜山大博覽會 協贊會委員選定

【釜山】 부산부(釜山府)에서는 명년십일월경에 총경비칠십만원 내지 팔십만원예산으로 부산대박람회(釜山大博覽會)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여러가지로 연구준비중이라함은 긔보한바이데 관계각방면과 협의한결과 준비가 순조로나아가고잇는데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협찬회(協贊會)를 조직하야서 동박람회개최의 측면공작을 하려고 여러가지로 준비를 하고잇던바 지난 십일부당국과 협의한 결과 협찬회조직준비위원 삼십명을 선정하고 발긔인대활동을 개시하고잇다 하며 부당국에서도 동협찬회의 부담액이결정되는대로 곳예산을 편성하야 부회를 소집하여가지고 최후적결정을하려고 준비중이라한다

協贊會組織準備委員 坂田文吉 西條利八 金準鎬 陸順九 權仁壽 金相洪 山本榮吉 山川定 山內忠市 中島鶴太郞 堯川完一郞 大矢菅松 桐岡覺峰 長富芳介 松岡藤太郞 池田錄次郞 (釜山府會側) 立石良雄 金暻泰 梁鄕像 山村正夫 五島誠助 米倉淸三郞 西本榮一 中村高次 荒井縈一郞 大黑酉松 岩橋一郞 松尾己之助 五島伍郞 石原權(商工會議所)

稅務署員態度攻擊

商議總會에서

【平壤】 구일오후 평양상공회의소 의원총회석상에서 제삼종소득세과세에 대하야 또는 기타의 세금과세 또 징수에 대하야 세무서원의 여지업는 건방진태도를 들어 세무서를 공격하는 의원이 만하 장내는 긴장하엿다。 맛치 세법을 만히 부담시켜야 된다든가 또는 잘바다드리는것이 큰 공적이나 나타나고 성적이나 금작히 올라가는것처럼 생각하고 들을도 눈가지 못하고 서드러대이고 교만하고 경박진행동으로감행한다는 허다한 실례를 드러 철두철미 공격을 가햇는데 결국이문제는 별개로 세무간담회를열고 세무원과회의소원이 회합하여 충분히간담을 하도록하자는 의견의일치를 보아 근일 소위 세무간담회 라는회합이버러질터이라한다

金村의野談大會

演士申鼎言、本報讀者無料入場

十三日夜普校講堂에서

【金村】 본보금촌지국에서는 일즉이 지국창립이래 애독자제위와밋 약진도상에잇는 금촌의시민제위께 한층의위안을 드리지 못하야 심히유감으로여이든바 금번당지 지방인사의 열렬한성원아래 야담대회(野談大會)를 개최하기로되엿는데 연사는사계의 최고좌인 신정언씨(申鼎言)로서 일은 륙월십삼일이며 장소는금촌공립보통학교대강당(金村公立普通學校大講堂)으로 금은 본보애독자에 한하야무료 일반인사에게는 장내정리로금십전을밧기로되엿다는데 특히금촌에잇서서는 처음인만큼 일반인사의 기대가자못 크다고한다

忠北麥作收穫豫想 四十四萬二千餘石

比前年減收十四萬八千餘石

農民의生途가念慮

【淸州】 충청북도의 본년맥작수확예상을 도산업과의 발표에의하야보면 사십사만이천사백십석으로 전년에비하야 십사만팔천이백륙십삼석 즉이할오부일리의 감수를 보게되엿다하니 벌서부터 식량의 결핍으로 춘궁의소란을 이르키고잇는 농민들의전도가 매우념려된다고한다

滿浦線鐵道工事로 附近畓受損莫大

引水路를마거播種遲延으로

被害者賠償請求提訴

【新義州】 만포선(滿浦線)철도공사를싸고 이러난 최조의 소송(訴訟)사건 ▲江界郡立館面倉坪洞七三 金元吉 ▲同郡城干面外仲洞 金允玉 외 칠명이 련명하야 토목청부업 록도조(鹿島組)를 상대로 지난구일 신의주지방법원 민사부에 제기하엿는데 사건의 리유는 피고 록도조가 만포선 철도시설 공사에 이르러 토사(土砂)를 원고 논(畓)의 인수로(引水路)에 싸어 『논』에 인수를 방해하야 작년 파종시긔에 『논』갈만 백팔평의 파종이 이십일간이나 느저저 이로 말미아마 수확이 감소되여 약이천백오십구원의 손해를 입엇슴으로 이를 배상하라는것인데 만포선시설에 이러난 최초의 문제인 동시에 백만농민에 직접 간접으로 중대 문제임으로 사건 귀결은 큰 주목을 끌고잇다

平壤初有의― 帛畵展覽會

平壤支局後援

【平壤】 우리평양에서는 처음보는 백화전람회(帛畵展覽會)가 백화연구소주최와 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십삼 사 량일간 오전십시부터 하오 여섯시까지 백선행긔념관에서 개최되게되여 방금준비에바쁘다

백화라는것은 비단으로 변변그림을 만든것으로 작우간 구경삼아서라도 상식의 한가지를 느리는 의미로라도 반다시 한번드려다볼것이다

입장료(入場料)는 십전이나 본보독자에게는 반할인권을 드리기로되여 신문에 껴너허 배부한다

축매(即賣)도 하게되엿는데 부내각학교관계자들로서는 곽 표본(標本)으로라도 구해두어야할것이다

출품점수가 칠십여점에달하는터이므로 한참관상할수잇다 만히와서 드려다보라

在奉初等學校巡禮記 【九】

北市場普校篇

學校로서의施設完備

勤勞精神涵養에注重

◇…校勢의前途가實로洋洋

本論으로 드러가기전에 먼저 이北市場普校가 생겨나온 由來부터 아려보기로한다 奉天은 數字로 보아서 五萬이란 적지안흔 同胞가 居住하느니만큼 滿鐵經營의 奉天普校 한곳뿐으로는 到底히 數만흔 學齡兒童을 收容하기는 어려운일이엿다 그래서 多少間이나마 生活의 餘裕가잇고 入學할 條件이 具備한 兒童은 奉普에 入學케되나 其他戶籍上으로나 生活上으로 보아入學條件이 不備한兒童은 排흥에 굼주린饑鵑을 洩할길이업섯다고한다 더욱이 事變以後로 其數가急激히 늘어 奉天社會의問題거리가되고 뜻잇는사람의 關心處라기보다 度를지나처 悶痛거리가되여잇슬때 奉普學父兄其他有志로 組織된 奉普後援會에서 第二普校設起會를열고 期於히 設立키로決定을짓고 代表로林漢龍氏와 幹部金信根氏가 活動한結果 滿鐵會社所有인奉普舊校舍를 비러서 開校하엿스니 이것이 昭和八年十二月一日에 創立된 記者가차저가는北市場普通學校이다

음침한滿洲人거리를 北으로 뚤코 드러가니 푸른벽돌二層建物이 웃득소사잇다 넓다란運動場에 드러서니 어린學生들이 畜맛드리를 들고다닌다 女學生은 돌을 줍고 男學生들은 흙을파서 나른다 서로서로 分業的으로되고 平和롭고 神聖하다、銅錢한푼에 작우고대수롭지아니한일에 몰고뜻고 感情이 極度날카로워진 國際的都市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이와가티부드럽고 화스러운줄은 뜻하지못한바이다 더구나 母校의運動場을 조고만힘을모아서 修理함에랴! 이때의 아름다운 場面을카메라를 通해서 비치일는지 記者의 觀察로는 到底히 그려볼수가업다 事務室에 드러서 校長先生이계시냐고 무르니 羅斗植先生이 校長室로 引導하야주신다 그때에야 精神을 다시한번 가다듬게되엿다 農村의學校들고 어떤學校는 事務室한間이업는데 比하면 넘우나 差가잇다 校長金秉甲先生이 微笑를띄이면서 반가히마저준다 『올간』도 커다란게두어개 노이고 敎授用道具 其他諸般施設이 조곰도 遜色이업다 金校長의말슴에 依하면 學校의歷史가 짜르니만큼 그리큰波瀾은 當하야보지안헛스나 그럿타고하야서 平坦한順路만을 밟버왓다고도 볼수업다고 한다 不完全에서 完全으로 나아가는데는 數만흔敎役者의 苦心이 必要케되는것이다 創立當時校長 金信根氏와後援會幹部諸氏는 말할것도업고奉天市民이 蹶起하야 一千五百圓을 모아서 設備를하야주고 後援會에서도 五百圓이나 드려서 設備의 充實을圖하야 주엇다고한다 創立初에는 一百四名밧게안되든 生徒가 今日에至하야는男子四百三人 女子二百十三人 合하야 六百十六名이란 多數에達하얏는데 十學級에 男敎員이일곱분 女敎員이세분 合하야 열분이다 敎室이不足하야 一二三四學年은 午前午後로 난호아서 二部制敎授를 하고잇다 그런데今年度부터는 滿鐵에서 補助金도 莫大하게엇게되고 現在의 校舍도 滿鐵에서 無償으로어더서 使用한다고한다 아직것 卒業生은 내여보지못하얏스나 明春에는 第一回卒業生을 내이게되엿다고―

이學校亦是 現在에는 奉天朝鮮人學校組合에서 經營하고잇스나 將次滿鐵會社에서 引繼하야 第二奉普로 하리라는 奉天社會의 物議까지놉다 이學校長金秉甲氏는 奉普에서 十三年間이나 勤續하신이로 奉天敎育界에 十五年동안을 獻身하신이다 實로우리 敎育界의 恩人이시다 手腕이 敏活하시고 敎育에 만흔經驗을 쌓으신 校長을 마지한北市場普校야말로 앞날의 曙光이 目睫에在하다 끗흐로 校長先生에게 이學校의 자랑거리를무르니『우리學校는 大部分이 貧寒한 家庭의 子女들이고 또한學校當局으로서도 勤勞精神을 涵養케할方針인故로 恒常勤儉、節約하라는 訓示를 하는것이 아마자랑이라고나 할는지요』하시는말슴을 듯고 처음校庭을 드러설때 學生들이 흙을파서 나르고잇든 心情을 再吟味하엿다 白文受先生의 親切하신案內로 敎室을 一覽하고 校門을나서니 復雜한 滿洲人市街에 날리는 紅塵에는 숨이 막킬지경이다 (奉天支局一記者)

◇寫眞…校舍全景과 校長金秉甲氏)

第四回―西朝鮮 中等團體庭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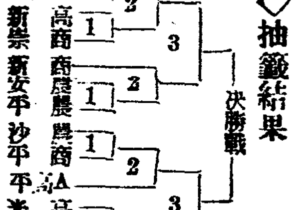
◇…十一個校十二『팀』參加로

十四日午前九時부터

【平壤】 평양의전 정구부(平壤醫專庭球部)주최 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십사일(일요일)오전구시부터 부내 남정(南町)농구『코―트』에서 거행될 제사회 서조선중등학교 정구대회는 ▲定州五山高普 ▲平壤商業 ▲鎭南浦商工 ▲沙里院農業 ▲光成高普 ▲新義州高普 ▲寧邊農業 ▲平壤農業 ▲崇仁商業 ▲安州農業 등십일개교 십이『팀』이 참가하여 각기모교의 영예를 위하여 불꽃을 날리는 차용을하게되엿다 구일상대에서 추첨의결과와 대회임원들은 다음과가티 결정되여 대회일을 손곱아 기다리게 한다

◇大會役員 ▲大會長 及川邦治 ▲副會長 成島正 ▲庭球部長 森田貞士 ▲審判係 殷洛鋼 金熙兌 吳晟錫 金柄勳 金鳳梧 姜元國 庭田久松 ▲記錄係 李炬春 李潤生 姜顯鐸 白宗爾 朴淳寬 ▲接待係 安敏林 李時釆 宋春和 李景來 ▲準備係部員全部

◇抽籤結果



市場擴張決定 移轉問題落着

【黑橋】 천여명의생명선인 황해도흑교(黑橋)시장은 지금으로부터 약이십칠팔년전에 설립되야 지금에 이르기까지 실로비약적 발전으로 오백여호에 이천오백여인구를 산하는데 바야흐로 시장에 모히는 사람도 년부년증가하야 지금의시장으로는 실로 누구나 협착함을늣기여 오든중인데 요즘에와서는 더욱 필요를늣기고 일부(牛市場側)에서는 시장 이전운동을 맹렬히하야 수십명의련명으로 감독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든중인데현재시장부근주민들은 이소식을듯자오주자긔네들을살려주는 생명선인 시장이 다른곳으로 이전한다면 곳자긔네들의 생명을 떼가는것이나 다름업다하야 이에대한대책을 강구중이엿는데 시장관리인 현면장조긔원(曺基元)씨도 이점에잇서서 심히우려한바잇고 동정에넘치는 열성으로서 원만한해결을 지으려고중심노력하든바 뜻한바와가티 시장부근가옥을 매수하여 약일백륙십여평을 확장하기로 결정되여 공포중에싸혓든 시장부근이백여호의 천여명은 히색이만면하다한다

地方人事

▲郭成元氏(本報大同支局總務)田勢實孃과結婚式을 遂安郡延安面栗果里禮拜堂에서牧師主禮로 十三日午前十一時에擧行

▲曹明根氏(鮮滿交通株式會社宣川營業所主任) 新任人事次本報宣川支局來訪

大元鑛山事件 全部無事釋放

【平壤】 사년동안이나 계속하면서 만흔파문을 그리어고 따라서 세인의 주시의 표적이 되엿든 세칭 백만원의 금산 평북의주군 가산면(加山面)에 소재한 대원광산(大元鑛山)을 싸고도는 지분권(持分權) 쟁탈전은 이광산의 광주김윤황(金潤璜)씨가 상대측인 고박상목(故朴尙穆)씨의 일파인 림승주(林承周) 표영준(表永準) 등 량인의 불리한 진술로 결국은 문서위조와 위증교사죄의 혐의를 밧고 림、표량인과가티 김윤황측의증인 리은식(李殷植)박정순(朴正淳)량인의 위증죄등에 련좌되여 신의주 지방법원에 공소중이든 사건은 십일오전 동법원 경(鏡)재판장으로부터 김윤황외 전피고에게 일심동양으로 무죄의판결이 나리엇는데 전번 검사의 구형은 다음과 가트다

▲金潤璜[illegible]求刑二年 ▲林承周[illegible] ▲表永準[illegible]求刑各一年 ▲李殷植[illegible] ▲朴正淳求刑各八個月=以上全部判決無罪

鑫林里民蹶起 堤防修築陳情

【平壤】 대동군 금제면 귀림리(大同郡金祭面鑫林里)의 부락민 약사십여호는 오랫동안 방축하고 들어잇서오든 제방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진정을하엿다 그 리유로는 대동강 지류인 화강(樺江)에 제방이 축조되엿스나 이때 논에는 침수를 면햇스나 그반대측의 부락은 우긔가되면 침수가 심하여 해마다 피해를 입음으로 오랜동안 고통을 격거왓는데 그리하야 침수로부터 버서나는 한방법으로 제방을 개축하든지 부락이침수가 되지안토록하여 달라는것이다

被告否認一貫

耀德金山控訴

【平壤】 함남영흥(永興)에소재한 요덕금산(耀德金山)사건을 싸고 롬면서 세인의 주목의적이 되여잇든 전평남도회의원 오승은(吳崇殷)변호사와 그아들 오현호(吳鉉鎬)량인에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문서위조행사조선광업령위반 사기등 피고사건의 공소공판은 십일 경(鏡)재판장주심 원(元)류원(柳原)량판사배심 암성(岩城)검사립회하에 개정되여 오현호와 오승은변호사의심리를하엿는데 철두철미사실을부인하엿다 십일일 결심하고 림회검사의구형이잇슨후 동경에서 출정한 산구(山口)변호사를 필두로 평양경성동지의 일급명변호인의 변론이 잇슬터이라한다

平壤

全朝鮮中等校個人庭球戰

△時日 六月十三日正午부터

△場所 崇專코―트

◇主催 崇實專門學校體育部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南原

經濟大講演會

▲時日 六月十四日午後二時

▲場所 南原廣寒樓

◇演士 本社主筆 徐椿先生

◇主催 朝鮮日報社南原支局

愛慾의彼岸 【19】

李光洙 作

金康穆 畫

김장로는 한 잠을 자보려하엿스나 되지아니하엿다。 젊은여성의 냄새가 김장로의 마음을 뒤흔들어 노앗다。 김장로의 눈압헤 문임의 풍풍한 육체가업는것이 잇는것보다 도로혀 견듸기어려웟다。

빨가케 상긔한 문임의 얼굴 상그레 웃는 옷음、어듸 하나도 비인 구석이 업시 실하게 보이는 그、잘、발육된 몸―이러한 생각이 김장로의 오십이 넘어서 륙십을 바라보는마음을 뒤죽박죽을 만들어노앗다。 김장로는 길게 한숨을 수여엿다。 주먹을 불끈 쥐고 아까님을썻다。 제 숨ㅅ소리가 더욱 놉하짐을 깨달앗다。

『옹』

하고 김장로는 코에 덥혓던문임의 손수건을 집어서 해내어던젓다。 그 냄새가 원수인것가탓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다시 그 손수건을 집어다가 코에 대어보고 입설에 대어보고 혀끗으로 할타보고 가슴에 품어보앗다。

『모든것을 다 희생하고、모든것을 다 무릅쓰고』

김장로는 이러한 생각을 하엿다。 아모리하여서라도 문임을 품에 품어보지아니하고는 살수업는것 가탓다。

김장로의 손은 덜덜 떨리고 이는 떡떡 마조첫다。 눈압헤는 뽀야케 안개가 껴서 아모것도 보이지아니하엿다。 김장로는 제코와 제 몸에서 무슨 냄새를 발함을 깨달앗다。 그것은 동물원에서 원숭이나 하마 겻헤 갈때에 나는것과 가튼 냄새엿다。 아마 이것이 애욕의 폭풍우라는 것일것이다。 김장로의 머리에는 열이 나고 전신에는 험이 나서 금시에 영감을 하며 비발로 달아날것 가탓다。

그 동안이 얼마나 지낫는고

『진지사상 올리랍시오』

하고 문밧게서 부르는 중의 소리에 김장로의 혼은 저 축생계로부터 다시 인간으로 돌아왓다。

『옹、밥、먹지』

하고 김장로는 벌떡 일어나안저서 문임의 수건을 아까모양으로 목침에 더퍼노핫다。

김장로는 가슴ㅅ속의 폭풍우는 갈작이 잔잔하여졋다。 그러나 그대신 김장로는 마치 열병을 알코난것과 가티 몸이 허둥허둥함을 깨달앗다。 김장로는 일부러스럽게 기지게를 켜면서 하품을 하여보앗다。

『옹』

하고 입맛이 쓴드시 입을 쩝쩝하엿다。

『아부지 주무서요?』

하고 혜련이가 문밧게서 불럿다。

『한참 자고 일어낫다』

하고 김장로는 아모도 보는 사람이 업건마는 눈을 비볏다。

『저의들 들어가요?』

하고 혜련이가 또 뭇는다。

『들어와』

하고 김장로는 미다지를 열엇다。 거기는 혜련과 문임이가손에 꼿츨 한줌씩들고 서 잇섯다。 얼골들은 더욱 빨아케 상긔가 되어잇섯다。

혜련과 문임이가 겨테 들어와 안는것을볼때에 김장로는두 젊은 여자의 얼굴을 참아 정면으로 바라볼수업는듯한 부끄러움을 늣겻다。 제 얼굴에 지금까지 생각하고잇던것이 역역히 새겨잇기나 한것가타서 나츨 들기도 부끄러운것 가탓다

『꼿츨 만히 꺽것구나』

하고 김장로는 신거운 소리를 하엿다。 혜련과 문임의 눈이우연히 김장로의 눈과 마조칠때에 김장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밧는듯하여서 고개를 숙여버렷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김장로는 다시 마음으로 문임의 풍부한 육체를 마음껏 껴안앗다。

"米穀統制目標" 專賣制로落着?

● 申 泰 [illegible]

以上述한바는 日本內地의米穀統制가 어떠한過程을 밟어왓다는것을 말한것이며 또는오늘에잇서 그目標가 거의全部的으로 朝鮮米移入에對하야 어느程度까지 阻止하라는곳에잇슴을 밝힌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날로强化하여가는統制에잇는 그移入阻止가 朝鮮米에 어떠한結果를 매지게할것인가 함을 考察할 必要가잇다 卽 大正八年에 朝鮮米移出은 二百五十萬石에 不過하엿든것이 昭和九年에는 九百五十萬石으로 激增하야 지금에잇서는 朝鮮米移出高를 年八九百萬石으로 잡게되엿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程度까지 制限의結果를 보게될때에는 朝鮮米에 얼마만한影響이 잇스며 또 그로因하야 朝鮮經濟界에 어떠한 波紋을 일히킬것인가 함에 큰關心을 두지안흘수가업다。

×

오늘에잇서 朝鮮米移出의數量을 만케한原因이 어느곳에 잇느냐고 하면 이에對하야는 누구나 客觀的事情 卽 日本內地의食糧問題를 解決하기爲하야 朝鮮米增殖計畫이 그移出을 激增케되엿다는것을 들어서 말할것이다 이것은 事實인것이나 그러나 다만朝鮮米移出增加의原因은 그것만으로 끗치는것이 아니라 一面으로 朝鮮米의自體事情도 移出치안코 될수가 업는 點이 잇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朝鮮米移出의增加에는 그主觀的事情이 잇슴을 認定치안흘수가 업다 卽朝鮮에 잇서 米의生產은 諸產業의總額中에서 그五割以上을 占하고잇는만큼 依然 그大宗의地位를占하고 더구나 朝鮮人經濟에잇서 그原動力으로 되는만큼 그米販賣力의消長은 直接으로 農村經濟에 影響이 밋친다 그러고 오늘의 米移出은 朝鮮米의 五割以上에 達하는만큼 그移出의 增減에 依하야 朝鮮經濟界가 左右케된다。

×

그러므로 이點에잇서 朝鮮米移出이 年八九百萬石의 大量에 達하는것은 그自體事情에 依하야 不可避하고 될수밧게업다 이처럼 朝鮮米가 移出치 안흘수업는 主觀的事情은 무엇인가하면 이에 잇서는 大體 두가지의理由가 잇다 卽 첫재 朝鮮經濟는 資本主義的 支配下에 잇다 그러므로 生產한 農產物을 市場에 내보내어 이것을 商品化케 안흘수가 업게된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全般的으로 農家는 쌀을 먹기보다 쌀을

生產하는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집이 무거운 負擔을 求하야 租稅、元金의償還 또는 收穫을 엇기는 그農家의 所得을 쌀로 비교하야 보다도 目前에 急하야 이 되는때문에 이것을 압시 쌀을 팔아서도 아니고서는 될수업는 實情이다 卽이것이 商業的本質의 하나이다

둘째 朝鮮人口의八割이 農民이라고 하는 朝鮮農民中에 大部分은 小作農이라 自作農은 少數이며 또 小作料를 밧는 地主는 더욱 少數이다 그러나 朝鮮米의 分配에 잇서는 그와는 反對로 總生產高의 大量이 少數의 地主와 商人의 倉庫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朝鮮米의 商品化는 地主와 商業資本의 手中에서 行하여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主觀的事情이 잇는限에는 朝鮮米의 移出은 當然한것이다 만약 이것을 人爲的으로 制限한다고 하면 朝鮮經濟의 不安은 免치 못할 것이다

×

이와가튼 主觀的事情이 잇는限에는 朝鮮米의 移出을 制限치 안는限 朝鮮內에서는 그 米消費를 늘게하자는말이 잇스나 이것은 朝鮮經濟의 特殊的本質에 對한 認識이 缺如한 것이라고 할밧게 업다 ……(續)

農業動產信用法 "朝鮮實施"成案

農業、水產、薪炭製造等에適用

先取特權抵當權設定

農業動產信用法의 朝鮮實施에對하야는 財務局理財課에서 過般以來 立案中이더니 大體成案되엿는데 그法의內容은 다음과갓다고한다

一、農業(耕作、養蠶、牧畜)水產 薪炭製造等을 適用範圍로하는點

一、先取特權、抵當權의 設定은 金融組合及 其他 指定의法人에 限하는點

一、先取特權은 購入其他의 貸付金에對하야 그動產上에 設定되고 果實에及함

一、抵當權도 가튼設定을 할수잇고 民法上의 第一順位 先取特權과 同順位로 되는點

그러고 朝鮮의 施行에 잇서는 農村經濟를 爲하야 同法을 積極的으로 活用할意向이라고한다

米生產、移動調查

今年부터着手內容

今年부터 新規로開始될 米穀의 生產、現在移動의 調查에關한것은 準備가 大略完了되여 農林局에는 이때문에 事務官一名技師一名外二十名을 增員하고 不遠着手케되엇는데 그調查要項을 보면 大略아래와갓다

生產高 調查는今四回로別하야調查키로하고

一、八月十五日現在로는 水稻作況을 調查하되 作況은 良否를 良、稍良、稍不良、不良等으로 表示하고

二、는九月二十日現在로 第一回收穫豫想調查를 하되 作付反別及 豫想을 具體的으로數字를 表示로調查하고

三、九月三十日現在로 第二回收穫豫想을調查하고

四、一月二十日을 報告期限으로하고 一反步收穫高까지調查키로한다

現在高는 三月一日 五月 七月 八月 九月 十一月의各一日現在로調查하되 朝鮮米 台灣米 外米等을 區分하고 同時에 正租玄米 白米도區分하고 外米는 碎米도調查키로하고 方法은 釀造業者 又는 各地倉庫等을 비롯하여 市場에까지 全面的으로 調查케한다

移動狀況 各月을 單位로 每月一日現在로 調查하되 各道를 區域으로하고 輸移出入、과 道外搬出等도 調查케 한다는것이다

米移出量 繼續增加

粟輸入도續增

【朝鮮總督府調查】六月上旬의米輸移出은 前年의十六萬千九百六十石에比하야 二十六萬二千三百六十石에 增加하고 輸移入은 前年七百八十六石에對하야 今年四百五十九石으로 減少하엿다 그리고 粟은 輸移出이업스며 輸移入四萬五千七百三石으로、昨年同期의 二萬七千五百三十二石에比하야 激增하엿다

(以下單位玄米換算石)

	今年	前年
▲米輸移出 六月上旬	二六二、三六〇	一六一、九六〇
累計	[illegible]	[illegible]
▲米輸移入 六月上旬	四五九	七八六
累計	[illegible]	[illegible]
▲粟輸移入 六月上旬	四五、七〇三	二七、五三二
累計	[illegible]	[illegible]

京春鐵道株申請

十萬株即日到達

京春鐵道의 公募二萬株에 對한 申込은 三十萬株以上에 達하는 盛況인데 이에關하야 林殖銀理事는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十年以前에는 小會社의하나를 創立하드래도 一一히 日本內地의資本에依하엿스나 지금에는 一千萬圓의 大會社가朝鮮內資本으로 되는것은 朝鮮財界의 膨脹을 말하는現象이다

朝鮮對滿貿易

五月五十萬圓出超

五月朝鮮對滿貿易은 常態로回復하야 五月中의對滿貿易은 오래간만에出超로되엇다 (以下單位圓)

	今年	比前年比增
輸出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出超	[illegible]	[illegible]

그리하야 累計額은 다음과가티 [illegible]

朝鮮內通貨流通

◇漸次減退의數字

朝鮮內에流通하는 通貨現在高豫想에對하야 總督府財務局의調查에依하면 昭和四年의九千二百萬圓은五年에 七千二百萬圓으로顯著히減少하고 農業恐慌의展開에依한 信用經濟의梗塞에依하야 六、七年은八千萬圓臺로昂騰한바 八年以後의 恐慌安定에依하야遞減의傾向으로 八年의七千三百萬圓은 十年에五千六百萬圓으로 減退한바 最近의動向을보면 近年은遞減할뿐인데 朝鮮經濟의膨脹、躍進에 全然反比例하는奇現象을呈한다 最近七個年의 朝鮮內通貨流通豫想高를 總督府調查에依하면 다음과갓다

流通은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千圓)

昭和四年末	九二、四八七
五年末	七二、五七五
六年末	八五、八七九
七年末	八八、四七一
八年末	七三、七三四
九年末	六九、九三八
十年末	五六、七四八

그리고 十年九月末 流通豫想高는 朝鮮銀行券四千八百五十一萬九千圓 補助貨八百二十一萬八千圓이라고한다

朝鮮內耕地面積 最近에顯著增加

農業採算好轉이라고

朝鮮에는 現在國有未墾地約 九十萬町步 公有水面의 干瀉地二十萬町步이며 畓과田의 可能地가 그四割을 占하는데 近年의 農業採算好轉으로 各道에 開墾과 開畓熱을 刺戟하야 그中中小規模의 朝鮮人方面의 企業이 激增하야 數年後에는 耕地面積의 元狀은 十萬町步를 突破할것이라고 豫想된다 最近의 總督府調查에 依하면 國有未墾地의 貸與를 바든開墾中의것이 二千七百四十三件 二萬二百九十四町步에 達하고 公有水面의埋立도 認許中의것이 一千四百九十三件 四萬六千百五十二町步에 達한다 今年度以後는 北朝鮮開拓計畫에 依한 大大的高地帶의 開墾計畫도 期待되야 畓作業好轉으로 干瀉地埋立도 急速度로增加하야 新地開拓事業도 新拓事가加케될것으로 豫想은 그러고 朝鮮의新地는 昭和四年以後十年까지 四萬町步를 增加하엿슴에不過한狀態이라고 한다

人絹操短 擴張難免

結局五分程度?

【東京電話商通】人絹聯合會에서는 十五日 大阪交易에서 臨時總會를열고 七月로부터九月까지의 操短率과 昭和大陽의 兩人絹의 非加盟問題를 協議키로된바 操短問題에 關하야는 大體擴張가 될모양이더니 結局五分程度의擴張은 不可避하리라고 한다

京城勞銀指數

五月中一四六、八九

【朝銀本店調查】五月中의 京城府內勞銀平均指數는 一四六、八九로前月에比하야 七、五八反騰이나 前年同月에 比較하면 二、五七의 低位인데 今後는 土木建築工事의 繁忙에 依하야 漸次昂騰될 傾向이라한다

米日爲替强保

【元泉十日發同盟】十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實買二十九弗二十九仙으로保勢

▲東京爲替(十一日)

	賣	買
對米	二十九弗十六分五	二十九弗八分三
對英	一志二片卅二分一	一志二片卅二分三

取引停止

(六月八日) ▲肥料 京城府黃金町七丁目一三四番地 李英潤 ▲食料品 京城府貫鐵町四八番地 閔泳熙

○朝鮮內會社數는 逐月增加一途

○五月末現在 四千六百八十八社 公稱資本 十億圓也

○日 朝鮮事業界 飛躍이라고

○누구의 事業이 飛躍되어가는지는 딴問題로 돌리여야 속이나 편할가

○白衣人 富豪여서 어찌라하는? 喜樂할지어다

繭自由市場廢止

京畿道正式發表內容

昨報한 京城의 繭自由市場에對하야 十一日 京畿道產業部長談의 形式으로 다음과 가튼 內容의 正式發表가 잇섯다。

×

京城府의 繭自由取引은 統制잇는 朝鮮產繭共同販賣制度中의特異的存在로서 其存續은 產繭의 合理化와 統制를 紊亂케하고 其弊害가 逐年顯著한 傾向을 示하얏슴으로 道에서도 善處研究中이던바 今回總督府로부터 共同販賣의 徹底의 趣旨에 應하야 今年春蠶부터道農會로하야곰 同府內에 共同販賣所를 開設하야 各郡農會와同一方法에 依하야 共同販賣의 斡旋을하게하고 朝鮮蠶業令施行手續第十一條의 八에 依하야 一定한期間 共同販賣所外의 場所에서 繭賣買는 禁止하기로 되엇다 그러나 從來同市場에서 原料繭의 仕入을하고 或은 繭의賣買하던業者의 業務에 急激한 變化를 與함을 念慮하야 京城府內共同販賣所에 出廻하는 繭은此等의業者에게 適當한 比率로配分特賣하는同時에 玉繭도 모다業者가購入하드래도 되게하얏다

內에 加工消費의 機關이 업고 他에轉賣할 을不得함으로 各郡農會의共同販賣所에서 大體 前年同樣 繭、屑繭은 仲買人에게 轉賣케되엇다 各業者는 京城府及各郡의繭을 購入할수잇게되엇다 京城府의 繭取引을 共販制로하면 從來보다도 繭價가 低價로되어 農家에게 不利하다는 論者도 잇겟스나 過去의 實蹟에 보면 自由市場의 市勢는 共同販賣市勢보다 多少高價이엇던 例가 잇지만 其原因은 自由市場에서는 運賃諸掛를 加算치안는 繭을 세울수잇는것 地道業의生產費가 輸出生絲의 關係에도 因한 繭의 低價는 비싼것이나 주로 投機的取引의 原因이 되엇던것이엇다고 생각한다

從來

各郡共販에서行하던 繭의格付가 特等春蠶繭標準으로할수는업다 다만 이에 考慮를要할것은 蠶業不況時의 繭價에激動이 만하던 때문에 그傾向이 顯著하얏섯다 如斯한 小賣取引으로부터 生기는 市勢는 決코大量으로 合理되는 取引所의 그것과 가티 公正價實한것이 아니오히려 繭販賣上 苦境에陷함은 明若觀火로 共同販賣制度徹底의必要를 痛感하는一面 蠶業界 最近의 情勢에 鑑하야도 產繭處理統制의 確立과 其合理化는 斯業獎勵上의 焦眉의急務로서 日本內地蠶業도 最近政府에서 이方面에主力을 注하고잇다 朝鮮에서도 昨年末부터 蠶業令이施行되어 斯業의健實한 發展과 蠶絲處理의合理化를 圖하기에 至한것을 契機로하야 多年의 懸案을 解決改善하고 時代의 進運에 伴하야 蠶絲業의圓滑한 發展을 期하자는 意圖에서 나온것이다

株式 低落後에 下澁

商況【十一日】

前場低落 高價一巡觀으로 目前不勢로보는 實物이 優勢하야 今前場은 東新筆頭로低落하엿스니 卽昨後引에 比하야 一圓三十錢低인 百三十四圓丁 鐘新八十錢低인 百五十八圓五十錢에 大引되고 日產七十二圓十錢으로 五十錢에 底堅新二十六圓八十錢으로 五十錢에低迷、朝石十九圓丁 拓新二十二圓丁이엇다

期米 旱魃人氣去益加重 新高價로暴騰

今十一日은 入梅(長霖期에 들어가는날)인데 日本內地나 朝鮮의 天候快晴으로 旱氣를 人氣에더하게하야 十一日의 淸算市勢는 爆發的大暴騰이엇스니 夕刊마감까지의高價는 如左하다

▲大阪期米 先限 三四、三〇 ▲東京期米 先限 三四、三四 ▲仁川期米 先限 三三、三三

前場新高價 昨後場 阪地 三十四圓十四錢止와 共히 三十二圓○九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四圓十五錢인 一丁高를 據하고 當限은 三十一圓五十六錢인 七丁高 中限은 三十一圓八十二[illegible]

弱氣論風靡! 東新再軟으로

東京東新이 五月二十二日 百三十七圓八十錢에까지 二、二六事件以來 처음으로 反騰되어 三月二十三日의 最低價 百十九圓三十錢에서 十八圓五十錢戾이고나서 六月一日百三十二圓十錢에까지 반락되엇스나 九日後場과 十日前場에 百三十六圓三十錢에 六圓二十錢戾이엇스며 今前場은 三圓에 反落이엇슨바

本으로 問題化되어잇다 百十九圓三十錢이 大底인與否가 根據는 그는新平價할것임으로 大底라면 月前百三十圓前後이잇스면 百三十七圓八十錢은二番天井으로 眞正한大底入이잇서야 할것이나 百十九圓三十錢이 大底가 아니라면 一番天井이고 [illegible]

▲北濱情報

【大阪電話】日糖海運協定도 貿易悲觀人氣가强하야 好材料되지안코 日米材料는거의 織込濟으로 市況은 不安이오 鐘新은 一巡의感이잇스나 押目滑在로 無理한 買인기 戒嚴令下의 新東은 市勢로 結하야高價에는 利喰急피難株買의려는 實物이入하야야다 日新防은 減配說로 賣人氣助長 日本絹織 三、四分配當復活期待 帝國製麻 [illegible] 機械製作社의 原代로買盛等 東新筆頭 一割二分(三圓)配當落 日糖十二日前場限 一割分配當 山陽水力七厘配當

後場下支

後場은 前引에 比하야 堅下支이엇스니 卽 東新二十錢高인 百三十四圓二十錢、鐘新十錢高인 百五十八圓六十錢、日產三十錢低인 七十二圓十錢、大新七十錢低인 七十二圓八十錢、[illegible]十六圓八十錢에各大引

實物前場取引

▲日滿아루미(新) ▲京水鐵製糖 ▲同新 ▲東京人新 ▲鮮滿拓 ▲大同電力新 ▲朝鮮製 ▲大同產業 ▲滿洲煙草 ▲帝麻新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四分利公債賣上解除說도 濃厚하나 이미 豫期하던 問題인만큼 市勢에는 影響이업시 保合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一、一〇 ▲二回四分利 一〇二、五〇 ▲一回四分利 一〇二、二五 ▲佛貨四分利 一九八、一五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illegible] ▲第三五分利 [illegible] ▲一回四分利 [illegible] ▲二回四分利 [illegible] ▲佛貨四分利 [illegible] ▲米貨六分 [illegible]

不安視無用論

取引所機構改革이란 不安이東新을 울리지못하게잇스나 取引所機構改革이라할지라도 現在委任者保護의積立은 實行하고잇는터이오 실려積立率을 增加한다드래도 實際暴落的하고 할수는업스니 不安觀할必要가업다 이不安이除去되면 金利水準이 이미 引下되어잇는 現在新株로 一段買上케될것이오 事業會社가 一、二分의減配를한다더가 利潤이어느程度까지 減少한다드래도 低金利로그만한것은가 바랄것이다。

東新再軟化를보고 氣論風靡▲百十九圓三十錢이大底가아니란말이 또擡頭▲그러나 突發的大惡材料가 업는限 東新의 大崩落은 無理한 期待가아닐가? ▲時局不安不去로 活氣市上市勢는 바랄수업지만 金緩低利와 大豫算放出에支持되어잇는 市勢를 慢性的 惰力으로 動하게만볼것은 一考? ▲新形勢展開가 업는限 夏枯必至이오 沈滯打開難이라 强弱論만 風靡할가?

大勢、風?雨?

結局天候가左右

後場躍進

後場은 三十二圓 三丁高를 締然進騰되고 二十錢에 三十一錢에 高價로 三十二錢에 止場하다

丸仁管內插秧

比昨年○、九%減少

仁川穀物協會調查에 依한 六月五日現在 丸仁管內(京畿道 忠南、北 黃海 江原의 大部分)의 插秧狀況은 左記와 如한데 插秧面積에 對한 完了地割合은 平均 ○、三六%로서 前年同期에 比하면 ○、九%나 적으며 忠南 黃海의 一部를 除한 外에는 總히 遲延狀態이다

丸仁管內插秧狀況

道別	水畓總面積에 對한進捗步合	前年과의比較
京畿	○、二九%	○、三三(稍遲)
忠南	○、五四	○、四○(稍早)
忠北	○、○一	○、○七(遲延)
江原	○、七五	○、三五(遲延)
黃海	○、一九	○、一○(稍早)
平均	○、三六	○、四五(遲延)

概況

苗代期以降의 氣溫은前年及例年에 比하야 低溫으로 雨量은一般的으로 적고 黃海道의 水利組合地域을 除한外에는 一般的으로 用水不足을 告하고 特히北方의 天水地米는 今後相當한降雨가 잇기外에는 插秧不可能의狀態이며 一方植付後의 生育狀況은 大槪順調로 直播의 面積은 次와如하다

江原道	四七五町步
京畿道	三〇〇町步
黃海道	七〇〇町步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堂島期米漸騰

【大阪電話同盟】一年期 [illegible] 農家의 態度强硬인데 다가 農繁期에 直面하야 賣物이 全혀 途絕되고 當用側의買氣促進으로 淸算軟化에도 不拘하고 淸算이 上向하면 이에追隨하는 狀態이다 如斯한情勢를 反映하야 今朝商品價警戒裡에도漸騰步調이엇다 今朝各地 氣配는 入梅를 思케하얏스나春來不順으로보아 今後의天候에 一抹의不安을 넘김과 前記의正米惜勢와 相俟하야 尙上價를 取할것으로 보이엇다

前場 (賣方)永岡自己 三木自己 東京側 地場弱氣側(買方) 地場强氣側 櫻井某來客側 (買方)東京側 東京側 乘 後場 埃側地場利食北國側(買方) 江草櫻井某地場熊來客側

各地正米

京城反撥

定期의恢復步調를좃고 氣配十錢反撥인 丸仁三等三十一圓三十錢 四等三十一圓 一等白米 二十三圓丁

仁川强堅

依然한取引停頓狀態로 今朝는 定期高에 잘追隨치안는狀態이다 十錢高唱인丸仁三等 三十一圓三十錢 四等三十一圓丁 一等白米十三圓十錢

釜山伸悩

定期는또昂高步調이오 新規로躍進하나 依然한高價警戒로 市況伸悩이데 此間當用小口가買하얏슬뿐이다 角ヶ三等三十一錢三十錢四等 三十一圓丁 一等白米十三圓十四錢

大邱硬化

繼續하야 實物不添이오 休商同様의場面이나마 定期高에 追隨하야 氣配十錢硬化인角ヶ三等三十一圓十錢 四等三十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五錢

群山强調

高價買警戒이오 產地市況은依然閑散을繼續하나 産地高와期米强調로 市勢만은頑强味를不失하야다 燙ク三等三十一圓六十錢 四等三十一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錢

木浦保合

前途가有望視되어所持側의態度가 자못强硬하나 高價에는 依然買物不添이오 繼[illegible]

金融 十一日

◆海外經濟◆十日 ◆朝鮮銀行券◆十日 ◆日本銀行券◆十日 ◆東京手形交換高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米國 十一日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純金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十一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綱布 ◆綿油冲價 ◆綿粕冲價 ◆外米期變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illegible]

◆朝取短期(前場) 十一日 ◆算定代引日步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illegible]

朝取期米 十一日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商品 十一日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東京人絹現物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

今日財界(十一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大阪期米 先限 正租(仁川)一等 京城(二等)白米 一斤價三等 ◆市中金銀 ◆株(單位錢) 朝新 東新 日產 ◆商品(先限單位錢) 大阪綿絲 大阪棉花 大阪人絹 大阪砂糖 ゴムRSSQ現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益 米 株 仁川 京城 [illegible]

朝鮮紙物都賣 北 全北企業株式會社 京城府仁寺町二五六番地 電話七四五番 振替京城二四一八○番 支店 全州府本町一丁目 電一五四番 兼委託販賣